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金) 本紙夕刊十二面

各閣僚、再次參內 宮中서臨時閣議

廿七日夜、軍事參議官全部偕行社서徹夜

一部閣僚宮中서徹夜

【東京電話同盟】廿八日午前五時 宮中을退下하야 各邸에 休養中이엿든 大角海相、望月遞相、町田商相、川崎文相、兒玉拓相、廣田外相의 各相은 同十時頃부터 宮中에 參內하야 宮中에잇든 後藤臨時首相代理 內田鐵相、小原法相、川島陸相을 加하야 臨時閣議를 開하야 先後處置에 對하야 協議하엿다

【東京電話電通】二十七日夜 宮中에 參集하야 深更까지 重要協議를 거듭하고잇든 … 川崎 內田各閣僚는 二十八日午前二時 宮中을 退出하야 各其自邸로 歸還하엿다가 … 九時 再次 參內하야 後藤臨時首相代理以下와 …한게 再次善後策에 對하야 協議를 繼續하기로되엿다

【東京電話同盟】今回事件의 善後對策을 講究하기 爲하야 宮中에잇든 各閣僚는 二十八日午前에 이르러 東京의 治安도 大體로 完全維持되게 되엿스므로 非公式으로 參集하야 여러가지로 協議한後 後藤臨時首相代理 小原法相 內田鐵相의 各閣僚를 除한 各閣僚는 午前二時 一旦宮中을 退下하야 各其 自邸로 撤…

【東京電話電通】九段偕行社에 參集한 各參議官은 二十七日夜는 全員이 偕行社에서 宿泊하엿다

林、荒木兩參議官 司令部幹部와協議

【東京電話電通】偕行社에서 宿泊한 軍事參議官中 林、荒木兩大將은 二十八日午前八時五十分 戒嚴司令部에 赴하야 香椎司令官 其他 司令部幹部와 重要協議를 하엿다

民政黨幹部會流會

【東京電話電通】民政黨은 二十七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서 幹部會를 開催할 豫定이든바 四圍의 情勢에 鑑하야 何等協議한바가 업시 流會되엿다

新內閣樹立機運 二十八日內成熟?

軍事參議官、樞密顧問官重臣等間에 本格的인銓衡開始乎

【東京電話電通】戒嚴令下의 東京의 治安은 完全維持되어 事態는 平靜에 歸하게되엿슴으로 아츰내 新內閣樹立에 對하야 本格的 銓衡이 開始케되엿다 後藤臨時首相을 爲始하야 大臣은 二十七日 深更까지 宮中에 參集하야 重要協議를 거듭하면서 同夜도 宮中에서 宿泊하엿다 新內閣의 首班者에 關하여는 二十八日中에 軍事參議官 樞密院顧問官 重臣等間에 愼重協議를 거듭하고 準備를 熟하기로되엿다

鈴木總裁落選甘受

【東京電話同盟】鈴木政友會總裁의 進退問題와 關聯하야 注視되여잇든 川口義久氏 當選辭退申出件에 關하여는 二十七日 開催된 政友會幹部會에서 協議할 豫定이엿스나 川口義久氏의 當選辭退는 그實現이 자못 困難한 事情이 잇고 一方 鈴木總裁도 固辭하고 受諾을 不肯하므로 幹部會에서 다시 이 問題를 드러 論議할 必要가 업고 따라 同日 會議席上에서도 何等 觝觸된바가 업섯다 이結果 鈴木總裁는 落選을 甘受할것은 確定的으로 되엿는데 時節이 時節인만콤 힘써로 紛亂을 招來하기를 避하고 當分間 現狀대로 나가리라고 觀測된다

伏見總長宮殿下 艦隊行動을上奏

【東京電話電通】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께서는 二十八日午前七時二十分 宮家御出門 宮城에 御參內하시여 天皇陛下께 拜謁하야 艦隊行動에 關하야 上奏、御下問에 奉答한後 御退下 軍令部에 오시엿다

헐米國務長官弔電

【華盛頓二十七日發電通】헐國務長官은 昨二十六日 廣田外相에게 岡田首相以下 日本政界에잇서 有名한 數氏의 不意의 死를 悼하며 深甚한 哀悼의 意를 表한다는 旨의 弔電을 發하엿다。

朝滿間의三戰役

—仁祖朝廷과毛文龍— (七)

文一平

己未役後 丁卯役前까지 무릇八年동안에 三國을 通하야 主權者가 모다 갈리게 된것과 滿의 積極進出에 依하야 朝明兩國이 한가지로 威脅을 밧게된것이 이때의 顯著한 現象이다 그러나 朝鮮에 잇서서는 主權者의 更迭이 되는同時에 그國體의 人物도 모다 轉換되고 對外政策도 一變하게 되엿다 그는 그러밧게 업는 것이 光海主가 일즉 親明을 反對하고 後金에 投降을 密敎햇다하야 그것을 廢位의 重要한罪目으로 삼은以上 新朝廷은 어데까지든지 親明排滿을 高調하지 안을수업슬이다 그래지 안허도 後金勢이 무서운때 이처럼 挑發的 態度로서 臨하니 그危險은 말을 기다러 알바가 아니다 그러나 後金人의 入寇에 對하야 이밧게도 勸因이 둘이잇스니 하나는 遼의 敗殘將卒等이오 하나는 明의敗將毛文龍이다 新朝가 成立된當年甲子에 일어난 李适의亂은 仁祖反正의 餘波로볼수잇고 适의殘黨인 韓明璉等이 後金(滿)으로 逃奔한것은 适亂의 延長으로 볼수잇스니 이것도 要컨대 仁祖反正이 그리케된 故에서 튀여난 一小枝葉이 아니나 이보담 압서서 遼陽等城 數十萬의 敗殘兵을 거너서 義州近境에 潛駐하게된바 그中에는 明의前遼東都司毛文龍이 잇섯다 그實은 草草한 亡命孤蹤에지내지 못햇스나 차참 그麾下에 遼難民과明人들이 모혀들매 徒衆이 만하지고 椵島에入據하야 府를 開하매 그氣勢가 자못 커섯다 陸路로는 明과의交通이 遮斷되지 오래지만 海上에 잇서서 明과連絡을 取하야 滿洲(後金即淸)를 牽制하니 滿洲人이 毛文龍을 가장危險視하엿다 그는 鴨綠江을 넘어가며 번이나 後金人을 掩襲하엿스며 後金人도前後 數次나 鴨綠江을 건너와 義州宣川에서 毛文龍을 襲攻한일도 잇게쯤 되엿섯다 이로보면 後金人이 丁卯前에발서 朝鮮境內에 侵入하게된것이니 이는純然히 毛文龍等으로해서 그러한것이다 그러나 韓潤等은 滿洲에 가잇서서 後金人을 朝鮮에 入寇하도록 敎唆하고 毛文龍은 朝鮮에와서 後金人을 朝鮮에 入 激動또는挑發하엿다 當時明國의政策은 朝鮮으로써 滿洲를 牽制하려할새 隱然히 毛文龍을 시켜 朝鮮의行動을監視하게하엿고 毛文龍은山東의 登萊를聯絡하야 明廷에멀리 聲息을相通하엿다 그는이를 利用하야 一方으론 明國에 糧餉을請求하고 一方으론 朝鮮에糧餉을 討索하야 每年十餘萬石을消費하엿단다 그러나 朝廷에서는 毛文龍을 畏憚하야 그의無厭한討索을 그대로應從하다못해서 내중에는 明廷에交涉하야 窮乏한 情狀을말하고 겨우 謀免함을 어덧지만 어째든지 毛文龍의所爲는 弊害가 實로莫大하엿섯다 그러나 上述한바와가티 明의內命으로 滿洲를牽制하는 同時에 朝鮮을監視하는 任務까지 가지게되엿슴으로 仁祖朝廷이 反正하면서 곳平安監司朴燁과 義州府尹鄭遵을 境上에 處斬한것은 光海主의對滿軟化를 暴露시키고 新朝廷의 對明忠勤할뜻을 毛文龍에게 보이려고함이다 흥은말하되 朴燁은 北人임으로 禍를입은것이라하나 그도 그러치안흔것은 아니로되 그와同時에 對明廷政策上 그리한것으로 解釋하는것이 더옥近理하다하겟다 己未役前後에 잇서서 明廷의謀臣사이에는 朝鮮을監視하자는 議論이만히 提唱하게되엿든데 이것이具體的으로 實現은 되지아니하엿스나 事實에 잇서서는 明廷이 毛文龍을 通하야 朝鮮에對한 모든報告를 듯고안저잇섯다 어째든지 後金人의朝鮮入寇를 促進한것은 簡單히말하면 仁祖朝廷의 排滿政策과 아울러 그의助因으로서의 韓潤과 그보담도 毛文龍을 먼저꼽지 안흘수업다。

佛蘇條約批准案 佛下院에서可決

佛參謀本部曰—蘇聯空軍은世界第一

夬前空相 軍事的意義를闡明

【巴里二十七日發電通】佛國下院은 오래懸案이든 佛蘇條約批准案을 三五三票對 一六四票의 大差로써 二十七日 드듸여 可決하엿다 表決中의 議場의 混亂은 實로 近年稀有의것으로 議長은 秩序維持困難으로 因하야 두번이나 休憩를 宣한後 겨우 採決하얏다 그리고 前空相피엘·꼿트氏는 佛國의 參謀本部가 蘇聯空軍을 世界第一의것이라고 激讚한旨를 演說로 報告하고 此와 密接한 提携를 함으로서만 佛國의 國防은 保障되고 安全을 期케될것이라고 指摘하야 佛蘇提携의 軍事的意義를 明白히하얏다

國防調整을爲한 專任大臣設置

陸海空軍을綜合連絡、首相補助

英首相、新設할旨聲明

【倫敦二十七日發同盟】볼드윈首相은 二十七日午後 下院에서 새로 國防調整을 任務로하는 專任大臣을 設置한다는 旨를 聲明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政府는 今回에 새로 國防調整의 專任大臣을 任命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大臣의 任務는 左와如하다

一、陸、海、空三軍相互의 綜合連絡에 當하야 首相을 補佐하야 國防의 强化調整에 當함

一、英帝國의 國防委員會及 內閣國防委員會의 副議長으로 首相을 補佐하야 委員會의 議事를 主宰함

볼드윈首相은 專任國防相의 人選에 對하야 何等 言及치안헛스나 一部에는 前外相호어氏가 國防相으로 任命되리라는 評이 有力하고 또 元文相파씨卿도 國防相의 下馬評에 올라잇다

專任國防相으로 『스』卿이有力 空相엔「호어」氏

【倫敦二十七日發同盟】二十七日午後 下院에서 볼드윈首相의 國防專任大臣設置를 發明한데 繼續하야 新國防相의 選任이 問題되여잇다 目下 下馬評에 올라잇는이는 現空相스윈튼卿으로 볼드윈首相은 二十七日午後 스윈튼卿을 首相官邸에 招致하고 長時間에 亘하야 會議를 遂하엿다 스윈튼卿이 國防相에 轉任할 境遇는 前外相호어氏가 空相에 就任하리라는 說이 有力하다

蘇聯代表弔意表示

【莫斯科二十七日發同盟】蘇聯外務人民委員部式典局長벨고프氏는 二十七日午後 日本大使館에 太田爲吉大使를 訪問하고 岡田首相以下 諸顯官의 逝去에 對하야 政府를 代表하야 懇篤한 弔意를 表明하엿다

有田大使新方針指示

第一回大使館會議에서

【上海二十七日發同盟】有田新任大使는 二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大使館에 若杉參事官 雲野堀內兩書記官과 須磨南京總領事를 招致하고 第一回大使館會議를 開催하얏는데 席上에서 有田大使는 若杉參事官 須磨總領事로부터 現地情勢를 聽取하는 同時에 本省으로부터 携行한 對中外交新方針과 自己의 對中態度를 闡明하고 今後의 具體的 交涉方法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協議하엿다 有田大使의 南京歸任日程은 二十七日夜 南京에 歸還할 須磨總領事가 國民政府當局과 協議한 結果 正式決定될터인데 아마 三月四、五日頃이 될 模樣이다

有田大使 許世英氏以下招待

【上海二十七日發電通】有田大使는 二十七日午後八時부터 大使館에서 駐日大使許世英氏를 招待하고 晩餐會를 開催하엿는데 若杉參事官 石射上海 須磨南京 兩總領事 堀內書記官(以上日本側) 徐謨外交部長(以上中國側)等이 列席하야 日中兩國大使가 初會見을 遂하고 今後日中關係改善에 對하야 相互腹臟업시 意見을 交換하엿다 有田大使는 特히 許世英氏에게 對中三原則의 趣旨를 說明한後 兩國이 提携키를 爲하야 最善의 努力을 다하자고 激勵하고 午後十時 散會하엿다

許世英新大使 赴任期延期

【上海二十七日發同盟】新任東京駐剳大使 許世英氏는 三月七日 上海를 出發하야 赴任할 豫定이든바 日本國內의 情勢에 鑑하야 出發을 延期하기로 決定하엿다

農業法案實施에 增稅必要를力說

米大統領政府首腦部와協議

【華盛頓廿七日發電通】루-즈벨트米大統領은 新農業法案 議會通過에 際하야 右實施及 復興諸計劃及 恩給法實施等에 對하야 資源捻出上 더욱 增稅의 必要를 痛感하게되여 二十七日夜 政府首腦部及 議會巨頭를 白堊館에 招致하고 增稅案을 內示하고 協議會를 開催하엿다 案은 數個의 代案으로 構成되여잇는데 各方面의 利害가 錯綜되여잇서 愼重討議를 遂케한後 가장 非難이 적은것을 選擇할 方針이다

米新農業法案 大統領官邸에廻付

【華盛頓二十七日發電通】米國上院及下院은 兩院協議會에서 成立된 修正案附新農業法案을 二十七日 各其審議한結果 兩院이 모다 此를 可決하고 即時 大統領官邸에 廻付하엿다 大統領의 署名이 끗나는대로 正式法律로 發效하게되엿다

日中調整交涉 四月頃부터開始

【上海二十八日發同盟】有田新大使는 近近 南京政府에 國書를 捧呈한後 日中國交調整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交涉을 開始하리라는데 外務當局으로서는 中國側에서 提議하는 …가튼 會議의 形式은 避하고 通常外交 交涉으로 調整交涉을 進行할 方針으로써 臨하고잇다 따라 前記專門委員과 如히 交涉機關은 設置치안코 有田大使와 南京政府 外交當局과의 間에 隨時交涉의 形式으로 此를 進行할 方針이다 그리고 有田大使로서는 右調整交涉開始에 對한 南京政府의 眞意와 具體案이 果然 어나程度의 것인가에 對하여는 더욱 깁히 意見交換을 遂할 意向을 가지고잇는바 同大使로서는 即時 實的 交涉을 開始할것을 避하고 爲先 當分은 中國側의 眞意를 打診한後 徐徐히 具體的 交涉을 開始할 方針을 가지고잇다 따라 調停交涉도 四月中旬頃부터 차친 開始되리라고 觀測된다

岡田前首相遺骸納棺

【東京電話同盟】悲慘한 犧牲을 當한 岡田前首相의 遺骸는 二十七日午後三時 福田 迫水秘書官의 손에 納棺이 完了되엿다

漁業條約改訂에 蘇聯은遷延主義

日本側도急速進行不願코 蘇聯의反省要求方針

【東京電話電通】日蘇漁業條約改訂交涉은 昨年六月 莫斯科에서 開始된以來 이미 九個月을 經過하엿슴에도 不拘하고 何等 進展을 보이지못하고 法定期間인 五月二十七日까지에 完了될 可望은 全然업는바 그推移는 자못 憂慮되여잇다 蘇聯側은 어데까지 日本漁業의 勢力驅逐을 目標하고잇는 模樣으로 今回의 改訂交涉에 잇서서도 日本側의 要求를 하나도 容認지안코 交涉을 遷延하야 日本側의 焦心을 助長하려는 戰法을 取하는것이라고 觀測된다 그러나 日本側의 要求는 現有漁區의 確保라는 最低限度의 것인바 蘇聯側이 日本의 權益을 尊重할 意思가 잇다고하면 當然한 이 日本要求를 簡單히 承認할수잇는것이다 따라 蘇聯側만이 誠意를 表示하면 漁業改訂交涉은 數日內로 成立될 性質을 가지고잇다 그러나 蘇聯側의 戰法은 前述한바와가티 交涉遷延에 依하야 日本側의 讓步를 期待하는것이라고 觀測됨으로 日本側은 이點을 가장 警戒하고 交涉成立만을 急히하지안코 法定期間中에 條約이 成立되지못하면 暫定的 協定을 締結할 方針으로써 交涉에 當하기로되여잇다 그리고 日本側으로서는 假令 法定期間中에 條約이 成立되지못하드라도 現在狀態로는 今年에 漁區를 喪失할리는 업슴으로 이點에 對하야 樂觀的 態度를 取하고 잇는데 蘇聯側이 反省하지안흘時는 日本側으로서도 어데까지 强硬한 態度로 交涉을 繼續할 方針이다

四國軍縮條約에 調印을正式拒絕

制裁撤回안는國家와締約안켓다는眞意

駐英伊太利大使通告

【倫敦二十七日發同盟】駐英伊太利大使그란디氏는 二十七日午後四時 英外務省에 이든外相을 訪問하고 伊太利로서 左의 諸理由에 依하야 四國軍縮條約에 調印할수업다하야 調印拒絕을 公式으로 言明通告하엿다

一、戰鬪艦의 實的制限으로 排水噸數三萬五千噸 砲徑十四吋는 受諾할수업슴

一、軍艦建造에 關하야 一萬噸과 二萬噸과의 間의 建造를 中止한다는 條項에도 亦是反對함 伊太利로서는 이中間의 軍艦을 建造할 權利를 保留하기를 希望한다

一、其他 事前的協議에 關하야도 여러가지로 受諾하기 困難한 事情이 有하다

그리고 伊太利의 調印拒絕은 對伊制裁를 撤回치안는 國家와 條約調印交涉을 行할수업다는것이 眞意인데 이것을 카모푸라-주하기 爲하야 如上의 條件을 擧한것이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伊太利代表部는 軍縮條約調印拒絕後에도 當分間 倫敦에 駐在하면서 他國代表部와의 折衝에 努力할터이다

000334

冷靜善處가必要

東京事件과宇垣總督談

宇垣總督은 二十八日 記者團과 會見하고 今回의 事件及 南朝鮮地方農村振興協議會에 出席하엿든 感想을 左와如히 말하엿다

今回의 事件發生으로 宸襟을 惱하게한것은 實로 恐懼痛恨의 極이다 이以上 더 드릴말삼이업다 그리고 多數先輩와 僚友가 突然 急逝하고 負傷한것이 實로 가이업는일이다 同時에 非常한 孤寂을 感한다 早晩間 當局은 冷靜히 善後處置를 講究하야 轉禍爲福할 方途를 열리라고 생각한다 또 余도 이것을 切望하고잇다

今回에는 數日間 忠北 慶南地方의 振興 研究會에 臨席하야 親히 一般의 緊張된 것을보고 눈물 겨운 實驗談을 聽取하고 感激하야 吾等의 工夫와 努力이 不足한 것을 깨닷고 今後 一層努力을 내이려한다 平北에서도 二十八日 同樣의 會合이 잇슴으로 出席할 豫定이엿스나 感氣기운도잇고 京城에 用務도 잇스므로 中止하엿다 그러나 近近 京畿道에서 開催될 研究會에는 반드시 出席할려이다

八面鋒

◇鈴木政友會總裁、落選을甘受하기로되엿다고。

◇落選은 苦楚이지만은 只今은 甘受라고 하여도 無妨할만한 時機。

◇米大統領이 增稅案을 實行하기 爲하야 各方面의 意見을 綜合中。

◇일표下의 增稅라는 財政上의 兩人三脚도 잘못하면 一大流行이나 안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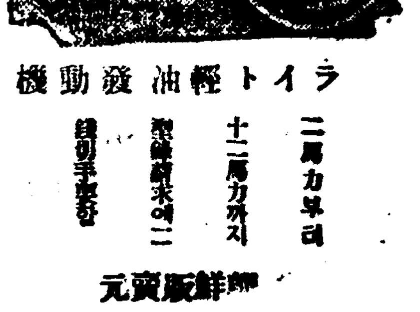
◇陸海軍省만 가지고는 안되겟스니 國防省을 新設하여야겟다고 英國이 야단。

◇大英帝國이 이러케 야단을내면 群小國들은 쥐구녁을 차즈라는말인가。

◇蘇聯空軍이 世界 第一이라고 佛國前航空大臣이 發表。

◇그러기에 佛蘇協定을 締結하엿다는 말슴이오?

新案特許 長谷部式製麵機
ライト發動機鮮滿發賣
特別割引
發賣開始
中島式製粉機朝鮮發賣元

製麵機中의覇王

カタログ送呈
特約店募集
ライト輕油發動機
二馬力부터 十二馬力까지
朝鮮販賣元
營業所

光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一、募集人員 第一學年 二○名
一、出願期日 三月十日限
一、試驗日字 三月十六、七日
(平壤府景昌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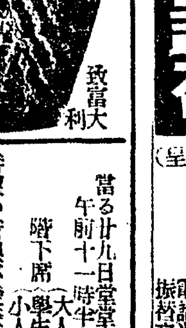
京城保育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五十名、選科生若干名
◇願書提出期限 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期日 四月一、二兩日
◇詳細來問 (京城淸進洞一八七)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約百名
◇出願三月九日限
◇試驗考査三月十一、十二日
京城府貞洞三二

中央佛教專門學校生徒募集
一、募集人員 本科 五十名 特科 若干名
一、願書受附 三月末日限
一、試驗期日 四月六、七、八
一、入學案內、要郵券
京城府崇一洞二(電光六五五)

恩給 長期極低廉確立 他에比較하야最有利 信用으로緊急店의特色 乞照會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 鄭商會

원료물감 (商標登錄)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番 振替京城八○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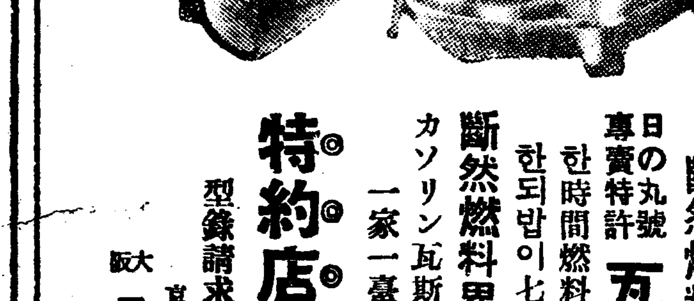
多收穫
寒暖各地大好評 無損增收水稻珍種「大韮金光」發見 無肥料로 一穗五百粒 從來보다四倍增收 多收穫大利 播期에追試用一袋(卄本) 分移秧至三錢 京城府櫻下町 振京六八番 富農社

早熟耐虫害 無耕畓 好 致富大利 一穗粒着五百餘

當る廿九日堂堂大公開 午前十一時半上映開始
階下席 (大人四十錢 學生三十錢 小人二十錢)
待望の新興が發表した探偵映畫!! 春館に燦たり矣!本格的探偵怪奇劇と新春以來の巨彈!嵐寬壽郎の右門捕物帖十八番劇登場す!!
新興キネマ東京現代劇部特作 原作 水谷準「傀儡師」より 脚色 上島量 監督 久松靜兒 技師 中井朝一 オール・サウンド版
女流探訪記者
霧立のぼる、河津清三郎主演
奇奇怪怪な探偵映畫が求めんとして得られざりし未踏の境地!血みどろな强迫感が貴方の心臟を押しつぶす!キリモト映畫配給者提供
佐佐木味津三原作 竹井諒 脚色 說明オール・トーキー
むっつり右門 仁念寺奇談
嵐寬壽郎十八番劇演 頭山桂之介、尾上紋彌、嵐德三郎 外寬プロ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新興京都時代劇部超特作 原作 民州敏夫 監督 押本七之助 オール・サウンド版
元祿村雨笠
大谷日出夫 主演 森靜子、杉山昌三九特別出演
永樂町 電本三二 中央館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NEOTONE
虛弱에!
네오톤토닉
柳韓洋行
TONIC

다만두가지뿐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들 둘이 잇섯스니 하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벨』이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인』이엿섯스며 『노아』때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데 다만 두가지가 잇섯스니 一은 방주 속에잇는 사람이오 一은 방주 밧게 잇는 사람이엿스며 『예수』의 가르치신 그물 비유중에도 두가지 물고기가 잇섯스니 조흔 고기와 조치못한 고기며 신랑을 맛는 十처녀 비유에도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잇는 처녀이며 심판하는 날에도 두가지가 잇스니 오른편에 잇는 양과 왼편에 잇는 염소이며 심판한 후에 잇슬곳도 두가지가 잇스니 천당과 지옥이다
천당—『이 흰 옷을 닙은자들이 누구며 또 어데서 왓느뇨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온자인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엿는지라 그런고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압헤 잇서 저희들이 다시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묵시七장十三―十六절)
지옥—『따의 임군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권세잇는자들과 자유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를 불너 갈아대 우리 우에 떠러저 가리워 보좌에 안즈신이의 낫과 어린양의 진노하신것을 피하게 하라』(묵시六장十五、十六절)


斷然燃料界를리-드할
日の丸號 專賣特許
瓦斯の素器出現!!
한時間燃料代僅二錢
한되밥이七分이면된다
斷然燃料界의驚異의的
カソリン瓦斯時代가왓다!
一家一臺期必備
特約店、代理店急募
型錄請求次第送呈
京城府古市町四十三番地
大阪 日の丸工業所京城營業所
長距離電話本局(2)一八一六番 振替京城一三三八六番

交戰六百餘回에 土兵側遺棄死體四千六百餘

一般土兵도漸次赤化傾向

最近三個月、滿洲土兵情況

최근관동군(關東軍)당국의 조사에 의한 만주토병공산군등의정세를보면 그수효가 만주사변직후에는 이십만혹은 삼십만이라고 하엿스나 그후의 토벌로최근에는 약사만내외로 추정되어잇다고한다. 그런데 특히주목되는것은 그들이변변공산주의사상에 물들고잇는점이라고 한다그들의 번거하여잇는 지역은남만철도동편대송화강(大松花江)이남의 산림지대이다 이곳은 지형이험난한데 광대한삼림지대가만히 토병대들이 잠복하여잇기가 장조흔곳이다. 더구나 그곳은아편비밀재배에적당하여 그들의자금원 얻기에 편한것도 근거지가되는유력한리유가되어잇다 그러고 이들을대별하면공산군 일반토병 정치적색채를 가진것등으로 로서아나 중국방면과 밀접한관계를가지고 거액의물적원조와 정식적지도를바드며 무긔탄환등의 공급도 밧고잇는것이 적지아니하다 작구월이래 십일월까지의 토벌상황을보면 약 삼개월간의 토벌전투에 륙백회의전투에 토병측에서는 사천륙백사십륙개의 시체를 내엇다 검거된것은 삼천오백오십사명이고 회수된 무긔도 소총약 일만수천정이엇다 토벌측의 관계통계를보면 다음과갓다

遺棄死體 四、六四六個
逮捕數 一、〇六七
歸順數 三、七一三
人質奪還數 五三五

討伐側도 死傷八百

戰死者만 二六二人

별항삼개월간의 토벌중 토벌군측의피해도 적지안햇다 즉칠개부대가 각히구역을정하고 출동하여 토병들과 륙백회나 교전하는가운데 사망자이백륙십이명 부상자오백칠십이명의다수가 잇섯다 상세한수를보면 다음과갓다

▲日本軍戰死 一三八 負傷 二三九
▲滿洲國軍戰死 二七 負傷 一二二
▲警察隊戰死 七二 負傷 九八
▲自警團戰死 二五 負傷 一一三
累計戰死 二六二 負傷 五七二

京春街道一部 交通을制限

加平郡의治道工事로

경긔도에서는 요사히 경성춘천(春川)간 이등도로 가평군외서면(加平郡外西面)과 가평군내면(郡內面) 이개소의 재해복구공사를 진행중인데 바위돌(岩石)을파쇄하는관게상 위험을 방지키위하야 이월이십오일부터 오월말일까지 다음과가티 교통제한을 하기로되엿다한다

加平郡外西面大成里
自午前五時 至午前九時 四時間
自午前十一時五十分 至午後〇時五十分 一時間
自午後二時五十分 至午後三時五十分 一時間
自午後六時 至午後八時 二時間

加平郡郡內面邑內里
自午前五時 至午前八時四十分 三時三十分
自午前十時四十分 至午前十一時四十分 一時間
自午後二時三十分 至午後三時三十分 一時間十分
自午後六時四十分 至午後八時 一時間十分

漢江의漂着屍는 어린애보는處女

긔보=지난 이십륙일 오후일곱시경 여의도(汝矣島)압 새강 어구에서 닥처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녹은 어름에 떠내려온 젓먹이 어린아이를 업은 처녀의 시체는 소관 룡산서에서 그 신원을 조사중이던바 그는 고양군 룡강면 동막상리(高陽郡龍江面東幕上里) 일백십팔번지

乖候·180度旋廻

立春雨水가 다지난 오늘에 寒波逆襲·漢江再結氷

【京城】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에는 압록강(鴨綠江)과 대동강(大同江)도 풀린다는데 립춘(立春)이 지난지도벌서 한달―우수가지나기도 여드래、또 일주일마잇스면 경칩이다 례년가트면 벌서 양지짝바른곳에는금잔듸의속닙이 파릇파릇하고 산골작엔 개울물소리가 잔잔하게 들엿슬것이다 그러나 금년의치위의 역습으로 한강은 어제밤부터 또다시얼어붓고잇다 서울의 명물인 광주(廣州)의 달내(山蒜)장사 녀인들도 대상(隊商)과가티 장사진을처서 장안으로 몰려들드니 이십팔일에는 봄다운 이풍경도그림자를감추고 마럿다 한강을 생명선으로 삼고 잇는 사공들도 어름장을 치밧는잉어의 조약을보고 를원간생명선이 열리리라고 강언덕모래우에서 코노래를 부르드니 다시 밤강물을 얼린 치위로 종업은 긔후만을 원망하고잇다

春雪紛紛裡에 東京市中의戒嚴色

大正十二年大震災以來처음뵈이는風景

市民은安堵·遮斷線만混雜

【東京電話電通】 어마어마한 긴장속에서 사건셋재날인 이십팔일을마지는동경은 오늘아츰도 또 부슬부슬나리는 싸락눈 밟이전시에비하게 내렷다 계엄선(戒嚴線)은 이십팔일아츰 차차완비되여서 구두발자국소리 요란한 병사들의 자태는큰길 골목장이네거리네거리마다 마치동경시민들의신뢰의심볼처럼 서잇고경관들도이에 협력하여서 눈날리는 속에「카ー키빗」들이 얼룩얼룩하고잇다 방축(防柵)이곳곳마다 싸히고잇서 어름과가튼 총검의뿌리가 번득이고잇는것도 지난대정십이년 대진재이후 처음보는광경이다 계엄령아래잇는 눈나리는 동경시는 넘칠듯한 사람들로 싸혀잇서서 교통차단 구역결로 에가까운 얼대는 특별히 사람들이 뒤끌고잇다。

哀愁에싸인 故齋藤子邸

近親들이모혀納棺式

【東京電話電通】 재등내부(齋藤內府)의 유해는 이십칠일오후다섯시반 흉변이 버려진 그저택이층에잇는 일본방안 림시빈소실(殯所)로부터 아래층 넓은응접실로 옴기여 유족、근친、연고자들과 및 지청송사(芝靑松寺)의 관주(貫主)서촌철부사(西村哲夫師)등의 손으로 납관식(納棺式)이 거행되엿다 실상원전인충영수거사(實相院殿仁忠榮水居士)라는 계명(戒名)은 다만 무한한 애수를 위패거테 흐르게하고잇서 고인의 과거를 추억케한다 고인의위급을 피하게하려다가닷친 춘자(春子)부인은 원면팔을 목줄에 걸치고서 애수와 피로속에 심ㅇ업시 잠겨잇고 또사자(嗣子)재(齊)씨와 정자(靜子)부인들은 부부도 모다애수속에 잠겨잇다 대궁어소(大宮御所)와 북백천궁가(北白川宮家)로 부터 어조문의 어사를 보냅시엿고 생전관게가 기펏든 굴절(堀切)、시전(柴田)、환산(丸山)、백근(白根)、가등(加藤)、산리(山梨)대장등 제씨를 비롯하여 각방면으로부터의조문을 밧고 등각한속에서도 바쁜처흥야를하엿다 그리고장의날은 아즉 정하지안헛다

東京市內電車 運轉中止個所

【東京電話同盟】 계엄령에의하야 이십팔일 운전중지되는 시전(市電)구간은 다음과갓다

一、築地四谷見付間
一、九段에서 三宅坂을 經由하야 赤坂見付에 일으는線
一、市役所前으로부터 日本橋室町三丁目間
一、大手町日比谷을 經由하야田村町에 일으는사이
一、永代橋로부터 市役所前을지나 馬場先門에 일으는사이
一、櫻田門、虎之門間
一、赤坂見付로부터 三宅坂을지나 三原橋에 일으는사이 運轉中止
一、「뻐스」는 外濠를 迂回하는것外一切 運轉中止
一、이外例外로서 銀座通의「뻐스」 運轉中止

品川新橋驛을 東京驛으로代用

【東京電話電通】 계엄령실시에 의하야 철도성(鐵道省)에서는 동경철도국과 타합한결과 등곤부사(富士)행 상하선(上下線)함께 특별히 품천(品川)신교(新橋)에서 손님에게는 될수잇는대로 두역에서 승강을 주의하고 또이 동해도선(東海道線)의 장거리렬차의 승강도 품천、신교 두역으로 이동식히기로되엿다

治安狀況委曲上奏

【東京電話電通】 향정(香椎)계엄사령관은 이십팔일 정오 궁중에 참내하야 천황폐하께 배알하고 계엄령이 편이후의 치안상황을 자세히 주상하고 여러가지로 어하문에 봉답한후 어전을 물려나다

鍾路大路에 晝火

一棟二戶全燒코鎭火

◇…사진은 종로일정목 불난집

이십팔일오후한시십분경에 시내종로(鍾路)일정목 삼십일번지평전충길(平田忠吉)의 장명당(長明堂)안경포 이층에서 불이나서삽시간에 불길이 맹렬하게타올라린접한 장삼현(張三鉉)의 삼현약방(三鉉藥房)까지 타드러갓스나 소방대의 노력에의하야 이십분만에 전긔일동이호만 전소한채진화되엿다 원인은 실화인듯하며 손해는 약이천원가량이며 자세한것을 방금 종로서에서 조사중이다 원유상회(源油商會)라는 간게가잇서 이 잇서불붓는순간크게 우려되엿스며 종로한복판이라 한참동안 대혼잡을 이루엇다

西氷庫에 小火

이십팔일 오전 열두시반경에 고양군 한지면 서빙고역전(漢芝面西氷庫驛前) 석유창고에서 불이일어나 장소가 장소인만큼 불이커질까 넘려되엿스나 불이일어난것을 곳발견되여 진화에노력한결과열두시십분경에 꺼젓는데 장작에불을 피워노코 그것을 잘끄지안코 엽헤둔것이 석유통에 불이연소되여 불이난것으로 손해는 근소하다고한다

川島陸相參內

本庄侍從武官長과相議

【東京電話電通】 천도(川島)륙상은 이십팔일 오후한시사십분 참내하여 본장(本庄)시종무관장과 여러가지 협의를 하엿다 그리고 황목(荒木)대장은 헌병사령부에서 중요회의를 마추고 령시사오분 해행사(偕行社)로갓다.

巨金詐取한郵便局員

京城市內에潛入?

고지현 고강군좌천정(高知縣高岡郡佐川町)우좌우편국(宇佐郵便局)에 통신수로 잇든 □成男(三○)은 지난 십륙일아츰 자긔가근무하는 우편국에서 위체증서(爲替證書)와 현금을 리용해 서강산(瑞山)우편국으로 이천팔백원을 보낸것처럼 꾸미여 그 돈을자긔가 차저가지고 자최를 감추어 바렷는데 서울에드러와 피무처잇는 혐의가 잇다하여서 내각서에서는 지금 이사나이를 찻는중이라한다。

朴炳成氏出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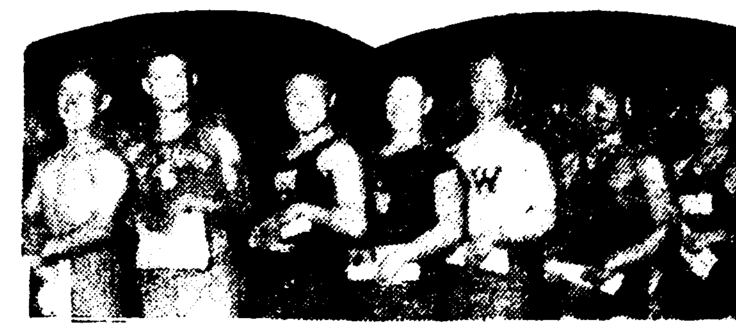
【榮州】 소화칠년칠월에 검거된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榮州共產主義者協議會事件)의 박병성(朴炳成)(三○)은 지난 십륙일아츰 대구형무소에서 사년반의 형기를 지내고 출옥되야 동일오후에 향제인 영주면하망리로 도라왓다는데 건강엔 다행이 큰영향이 업다한다

故齋藤子僞筆로 巨額詐欺타被捉

지난이십륙일 발생한 이、이륙사건발생을 기회로 사기를 하다가 필경 법망에걸린이야기!!―본적을 산구현풍포군(山口縣豊浦郡)에둔 하전위(河田衛)(三○)는 만주로표랑하며 일홈을 장관규(張寬圭)로 곳치어가지고 만치자기가 군부(軍部)관게가 잇는것가티하야 여러가지로 사기를 해먹은후 수일전에 서울로 들어와 다시일홈을 다하화방(多賀華芳)으로 개명한후 본정어느려관에잇든중 이십륙일동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고재등자작(故齋藤子爵)이 장서하자 그는 고재등자작의 필적과 락관(落款)을 위조하여가지고 자긔가쓴글씨를 고재등자작의친필이라하여 여러사람들의 소개장을가지고 부내대화정(大和町)에 잇는 괴사로가서 이글이 고재등의필적이니 사라고 하여 이일간에 열네장을 팔엇다는데 벌서 이천여원을 바덧다한다 이이야기를들은 소관룡산서는 이사기범을 체포코저 노력하든중 이십칠일오후 일곱시경 본정이목에서 필경룡산서원에게 체포되엿다는데 서원이 가택수색한결과 려관에도 지메등지가잇는것을보면 피해가 상당히크리라고한다

朴完植上告

칼부시 사건의 관게자로 오축 혼자 실형(實刑)의 판결을 바든 박완식(朴完植)은 수일전에 고등법원에 불복상고하엿다



★…昨年度力技[illegible]의 [illegible]

明夜로迫頭한 世界올림픽力技豫選

元山、平壤、開城、白川等地力士群入京

興味津津한當夜의"푸로"

대망의 세계올림픽력기예선대회는 조선체육협회주최와 본사후원아래 명이십구일오후여섯시부터 본사대강당에서 성대히열리게되엿다 이에출장하는 지방대표로 멀리평양(平壤)、원산(元山)、개성(開城)、배천(白川)등지의 거명력사들이속속입경하야 대기중에잇다 이들이중앙의력사군과어울려비저낼초인적괴력은 과연어데까지 세계기록에 육박할것인가 하로밤을압둔 동대회의 인긔는 절정에 달하야잇다 이날은 번외로 『쌀가마니들기』 팔씨름등의 현상경기와 중앙체육연구소원의 갖은 체조의 실연등이잇서 만장의 흥미를 더욱 이끌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추리고 추려 뽑힌 열네명선수인데 그중의 경경체급(輕輕級)、경체급(輕體級)、중체급(中體級)에서 각일명식 삼명의 대표를 선발하기로되엿는데 출전선수는 다음과갓호며 금이십팔일오후여섯시부터 화동중앙체육연구소에서 체중을 다르기로 되엿다

◇輕輕體級…石壽鳳(東崇洞) 南濟俊(京電) 朴明濬(開城) 趙命夏(開城) 李德基(開城) 李世詠(忠信洞) 趙永煥(元山) 李昌華
◇輕體級…金容萬(體研) 朴東晃(平壤) 劉學根(白川) 李丙壇(苑洞)
◇中體級…金成集(徽文) 金榮植(勇體)

住宅地의選定은 昌信洞安養臺住宅地로! 文化的設備와衛生的住宅地 昌信洞一三〇八番地 安養臺事務所 電光二九一二

最初의農學博士

林浩植氏의赫赫學譽

養正出身으로北大助敎授까지 農本朝鮮의새光輝

멀리북해도농과대학(北海道農大)에까지 스승을차저 연구를거듭한결과 드듸여 조선인으로 최초의 농학박사의 학위를어더 조선학계에 새로운길을 열어준청년학자가잇다 그는 경성출생림호식(林浩植)(三○)씨로 그간그 대학교수회에 학위론문을 제출중이든바 지난이십사일 그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론문이통과되엿다는 통지가 이십팔일 그모교인 부내양정고등보통학교(養正高普)로 드려왓다한다 그는대정칠년에 양정고보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한후 수원고농농학과를 거처 대정십년에 북해도농과대학에 입학하야 십사년봄에 졸업후 그대학조수(助手)로잇스면서 연구를거듭하여오든이며 한편 학위론문을제출하고 그학교조교수(助敎授)가되며 작년에 지금은 동경삼병구아좌곡(東京杉並區阿佐谷)동경원등제약소(遠藤製藥所)에서 일을보는한편 연구를계속중이라한다 (사진은 중학시대의림씨)

李在天에懲役五年

어릴때에 아버지를따라 상해(上海)에 건너가서 소년시대부터 청년시대에 이르기까지 화랑사(花郞社)혹은 소년동맹을 조직하고 또는 남경군관학교 락양분교(洛陽分校)에서 공부도하고 조선××운동에 종사하엿다는 작년시월에 인천(仁川)에상륙하든길로 경찰서에 붓잡힌 리재천(李在天)(三○)은 이십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으로부터 징역오년(검사구형오년)의 판결을 바덧다

壯漢三名이侵入 白晝、金品을强要

돈을안내면放火를하겟다고 格鬪後一名만逮捕

이십칠일 오후세시경에 시외아현리(阿峴里)리명만(李明萬)의 집에 세명의장한이 침입하야 돈을내라고 협박하면서 돈을안주면 집에다 불을노켓다고 강박을하엿는데 마츰 서대문서(西大門署)원이 탐지하고 달려가서 일장격투를한결과 그중한명만을 겨우 체포하엿다는데 본서에서엄중취조한결과 그는 일정한주소가업는 최금쇠(崔今釗)(二○)로 판명되고 도망간 두명도 그신원이 들어나서 각방면에서 수배하야 수사중이다

金堤郡下에 大膽한强盜

이십육일오전안시 전라북도 김제군황산면 오정리(金堤郡黃山面梧井里) 삼십이번지 김정국(金正局)(三○)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야 회중전등을 비치며 돈을내라고 전긔김정국을 위협한후 돈이업다고하매 노끈으로 그를 결박하여노코 그의주머니에서 돈일원이전을 끄내너은후 집안을 뒤지다가 그의안해 리성녀(李姓女)가 자는방으로가서 그를 협박하다가 이불로 그를둘러씌운다음 장문을 열고 의복을 끄내가지고 경찰에 일르면 가만두지안흘터이라는 말을 남긴후 어데로 자최를감추엇다 이보고를 접한김제경찰서에서는 방금 비상선을느리고 각경찰서와 련락하야 엄중수사중이라한다

天氣豫報

槪況 低氣壓은 日本海와琉球小笠原島東海上에잇고 高氣壓은 蒙古로부터 滿洲와朝鮮과에 擴大되고잇다 滿洲와北朝鮮은 개이고 其他는 흐리어 湖南地方에는 若干 눈이 왓다 朝鮮의氣溫은 昨朝보다 二度內外내려섯다

豫報 京城地方은 개엿다흐렷다하며 溫度가내린다 明日도갓다
京畿全區도同一하다

昨日最高 零下二度三分
最低 零下八度六分
今朝最低 零下八度四分
今日正午 零下四度

世界올림픽陸上競技日程(下)

마라손은八月九日

◇第五日(八月六日木曜日) 午前十時半 四百米第一豫選(申請人數가적을때에는省略함) 三段跳豫選(最低記錄一四米) 投槍豫選(最低記錄六〇米) 午後三時 高障碍準決勝 同三時十五分 四百米第二豫選 投槍決勝 同四時十五分 千五百米決勝 同四時半 三段跳決勝 同五時半 女子八十米障碍決勝 同五時四十五分 高障碍決勝

◇第六日(八月七日金曜日) 午前十時 十種百米決勝 午前十一時半 同走幅決勝 午後三時 四百米準決勝 同三時 十種投砲丸決勝 同三時十五分 五千米決勝 同四時 十種走高跳決勝 同五時半 四百米決勝 同五時四十五分 十種四百米決勝

◇第七日(八月八日土曜日) 午前十時 十種高障碍決勝 同十一時 投圓盤決勝 午後三時 棒高跳決勝 四百米繼走第一豫選 同二時 三千米障碍決勝 同四時半 十種投槍決勝 四百米繼走第二豫選 同五時半 十種千五百米決勝 同本時半 四百米繼走準決勝

◇第八日(八月九日日曜日) 午後三時 마라손出發 女子走高跳決勝 同三時十五分 四百米繼走決勝 同三時半 女子四百米繼走決勝 同三時四十五分 千六百米繼走決勝 同四時半 獨逸體操公開競技 同五時半 마라손歸還

運動界人事

▲趙命夏君(開城力技選手)入京次 本社來訪
▲李昌華(平壤力技選手)同上
▲李德基(開城力技選手)同上
▲朴明濬(同上)同上
▲趙永煥(元山力技選手)同上

中等卒業選手 歡迎蹴球

三月七日培材球場

今春蹴球씨ー슨의序幕! 癸酉蹴球團主催의 第三回中等校卒業選手歡迎蹴球戰은 來三月七日午後三時부터 培材球場에서 열릴터인데 出場할選手의 陣容은 다음과갓다

◇中等卒業軍 車容濬(培材) 宋基柱(培材) 安孝燮(培材) 金鎔九(儆新) 金容一(徽文) 許仁道(培材) 李仁源(光高) 金容武(徽文) 石彩松(養正) 李範來(培材) 李中鎬(普成) 李英徹(一高) 黃義老(徽文) 金榮濬(徽文) 宋基命(培材) 車淳鎬(培材) 車淳玉(崇實) 康洛洙(崇實) 玄中鳳(普成) 李圭男(徽文) 孫永國(一高)

◇癸酉蹴球團 李惠遂 金成玕 鄭龍洙 崔成琛 朴奎禎 李鍚演 金炳禧 金景漢 金容植 金日培 李裕奎 金寅泰 李鍾九 李奉鎬 朴孝濟 卞洪錫 金永根 裴宗鎬 韓仲錫

基靑柔道賞狀授與式

朝鮮中央基靑 柔道部에서는 去一月六日부터 三週間에 亘하는 今年度冒寒練習을 完了하엿는데 此日勤者賞牌及 賞狀授與式을 明二十九日 午後七時半부터 同部道場에서 擧行할터인데 皆勤者氏名은 다음과갓다

▲七年皆勤者=三段李淸晃 ▲六年皆勤者=三段李元榮 ▲五年皆勤者=二段洪基英 孔錫潤 ▲四年皆勤者=三段柳德吉 金商榮 方泳準 ▲二年皆勤者=二段千奎興 段外柳南壽 張漢甲 金完鎬 金鍾穆 ▲一年皆勤者=初段候補高德文外二十五人

蔘茸精 高速度血液補給補陰補陽强壯新藥

이라고하는 가장理想的이요 또效力이광장히빠른補血强壯劑이다。 녯날秦始皇과 漢나라武帝도 不老長生을원하야 三神山에 不老不死藥인人蔘을求하엿스는데 더욱現代人과가티衰弱하야 神經衰弱이니 陽氣不足이니元氣不足이니하는 所謂現代文明病이만허서血色이업고 活動코자하여도 實行하고 또타고난壽命을 다살지못하는人士에게는 本劑가唯一無二한神藥이다。元氣가 旺盛하여야 複雜한이社會에서 競爭하야 勝利者가될것이니 먼저는대로 補陰補血로老人도 元氣가旺盛하야 老衰를防止하고 靑年과가티될수가잇는 强壯劑이다。

藥價 一五〇瓦 二五〇瓦 三五圓

淋疾藥界의霸王 トリパリン

人生의가장苦痛을주는淋疾을根治하시라

初期에는 治療에念慮하다가慢性이되면 苦痛이 甚하지안음으로 治療되엇다고 放心하기쉬운病이다 淋疾은 慢性이될시록 안압흐며그다음에는睾丸炎副睾丸炎을 일으키고婦人은 赤白帶下症其他合症이되는것이다 本劑는 最近獨逸에서 最新發明한 高貴藥을直輸入하야 主劑로하고 特히秘藥을 마춰配合하엿슴으로 在來의銀劑나 白檀油劑의作用에 比할것이아니다 淋疾에 別別藥을써도 無效하야 苦痛을바드시는분은 滿蹄지말고 하로밧비トリパリン을服用하시라 トリパリン은 尿道粘膜의 殺菌作用은勿論이요 長服하시는대로 深部淋菌及膿球의 破壞가確實함으로 아모리慢性된淋疾이라도 再發될念慮가 絕對로업고 더구나 淋疾藥界의 大缺點인胃腸의 障碍가업시 完治되는自信잇는 新界의最新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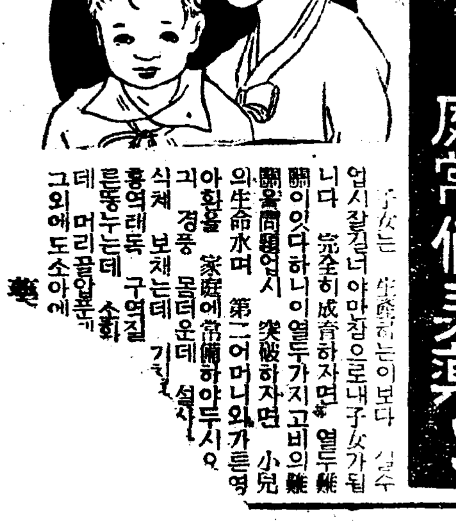
藥價 五二圓

나로ー 고급급만성 위장약 ナロー

조선에서 가장만흔병이속병이다 엇던이의말에의하면 이곱명중에네명은속병환자이다 그러나 이병은 외모로보아 대소롭지안흠으로 그냥두거나 그러치안흐면 갑싼매약쯤으로 일시일시피할뿐이요 근치는못하고 결국은 만성체증에서 헤매게되는것이다 일차체증에 걸리면건강하든사람도 점점쇠약해지고 음식을차차로 못먹게되고 음식맛이업고 조금먹어도잘체하며 껄껄하며 배가압흐거나 명치가압흐고 쓰리고 쥐여뜯고 달리고 내리지안코 무엇이가슴을치밀고신물이 오르고 울렁울렁하고 수족이나른하고 식곤증이나고 껄껄신트름이나고 헛방귀가나고 대변에시간이일정치안코 혹은설사 혹은거품등이보인다 신외무물이니 용긔를다시내시고 신약나로ー를복용하야 근치의광명을 어드시라 단연코특효함것입니다 만일에효력이업스시거든 약을도로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 우송하겟습니다

藥價 一週日分壹圓 十五日分二圓 三十一日分四圓

嬰兒丸 영아환 貴重한어린이病에特效한家庭常備良藥!



子女는 生命보다도 貴重합니다 그들을잘길너야만참으로 내子女가됩니다 完全히成育하자면 열두가지고비의難關이잇다하니 이열두가지고비를 突破하자면 小兒의生命水며 第二어머니인嬰兒丸을 家庭에常備하야두시오 경풍 몸열운데 설사 식체 보채는데 기침 홍역 태독 구역질 소화불량 머리부스럼 其他 그외에도소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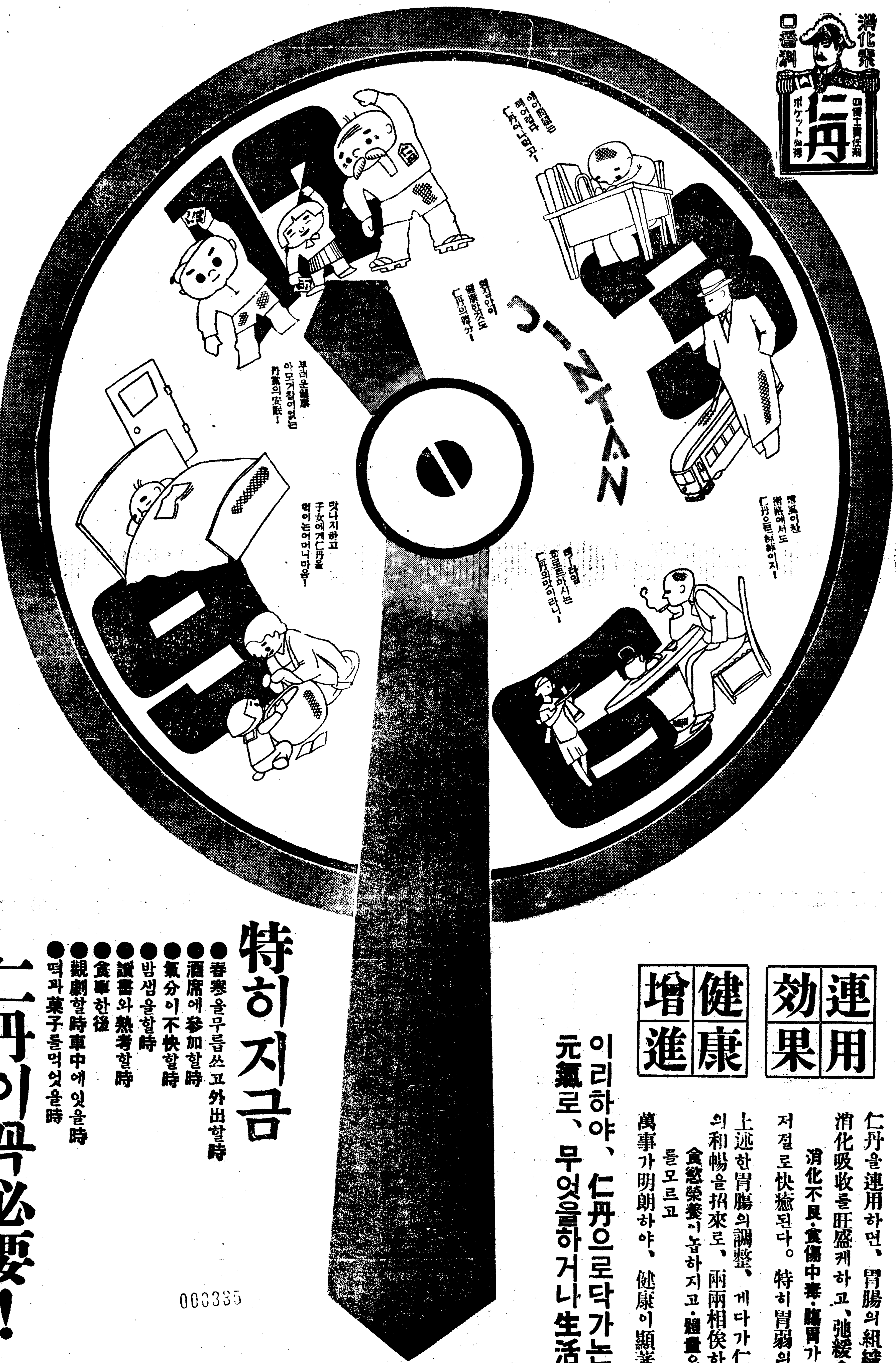
以上藥은 日本全國及滿洲全國有名藥房에 잇슴

京城府授恩洞三二 總發賣元 朝光藥業 電(光)一七八五

春寒인只今! 特히連用할만한

銀粒仁丹

仁丹主劑에高貴藥朝鮮人蔘과
비타민B를 配合한 萬人常
備의救急護身藥



連用 効果 | 健康 增進

仁丹을連用하면、胃腸의組織에作用하야、그活動을促進하며消化吸收를旺盛케하고、弛緩을緊張하며、炎症을消癒하므로써

消化不良·食傷中毒·胸胃가다르·衰弱·貧血等은

저절로快癒된다。特히胃弱의常備藥으로는仁丹이第一!

上述한胃腸의調整、게다가仁丹獨特한爽快한香味는精神作用의和暢을招來로、兩兩相俟하야

食慾榮養이놉하지고·體量은增加하며·活動力은橫溢하야·치위를모르고

萬事가明朗하야、健康이顯著히增進함

이리하야、仁丹으로닥가는健康은、感氣도안들고元氣로、무엇을하거나生活全體가明朗快樂하다

特히지금

- 春寒을무릅쓰고外出할時
- 酒席에參加할時
- 氣分이不快할時
- 밤샘을할時
- 讀書와熱考할時
- 食事한後
- 觀劇할時車中에잇을時
- 떡과菓子를먹엇을時

仁丹이꼭必要!

000335

銀粒仁丹藥價

富士容器附三〇粒 二十錢
滿洲容器附四〇〇粒 三十錢
御德用分一〇〇〇粒 五十錢
日滿ケース七〇〇粒 五十錢
德用瓶入二〇〇〇粒 壹圓

仁丹齒磨と仁丹石鹼の本舖・森下博營業所

家庭

수채가 낫브면 온동리가 더럽다

「구정물 함부로 버리는댁의 살림도 깨끗잔켓지요」

요사이 차차 언것이 풀리어서 수채의 물은 만허지나 아즉도 수채ㅅ속은 언대로 남아 잇기 쉬워서 흔히 물이넘처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수채라고까지 하기는 어렵겟지만은 더럽고 구중중한 풍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장마때의 수채보담도 더 심합니다. 본래 우리네는 집을짓는데 하수도(下水道)를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안습니다. 또 하수도에다가 쓸에기, 검부젹이등속까지 내버리어 하수도를 잘 쓸줄도 아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봄 녀름으로 밧낫 수채ㅅ물의 냄새를 겪지 안습니까? 더럽고 구중중한것보담도 그로 인하야 악병의 전염을 보게 되지는 안습니까. 그것도 결코 적은일이 아닙니다. 금후로 다가티 주의해야 될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재로 수채를 꼭 분명히 맨들어 노코 될수 잇는데까지는 또 그 우를 덥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채가 업시 여긔저긔로 하수가 흘러서는 말할 여부도 업거니와 그 우를 덥지 안는대도 위선 사람이나 마소가 빠지기 쉬운것 그다음 흙이나 돌이 굴러들어가서 수채가 메기 쉬운것 또 그 다음 고약한 냄새며 해로운 독와사며 병균이며 발생하게 되는것등 그 폐해가 한두가지가 아니올씨다. 둘째는 수채는 하수만을 흘리어 내게 하고 것이어니와 그속이 썩어서 그리로부터 독와사와 병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재 일체의 건덕이는 쓸에기통에 너토록 해야 합니다. 건덕이가 섞기어 나가서는 수채가 막히고 수채가 막히서는 물론 불편한것도 불편한 는 물론 안악네의 책임만이 아니오나 둘째는 순연히 안악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덕이와물을 갈러서 처분하는것 도 그당장당장은 섬가신 일이겟지요만 그래도 그러케 안해서는 나종 더큰문제가됩니다.

×

요사이 집장사들은 그저 하수도라고 맨들어 노키위하야 송판때이로 맨들어 놋는수가 만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고만 땅으로 새어 흘러서 못 쓰게 되는것은 물론이요 맥해 안 지나서 고만 썩어서 주저 안습니다. 그런 집장사들은 아모리케나 맨들어 놋습니다 그래서 그하수도가 아래보담 위가 도리어 나즌수도 잇슴으로 물이 모다 괴어 오르게 되고 또 아조 얏게터파 놋는 수도 잇슴으로 겨울 한첨은 얼어 부터서 좋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집을 살때 하수도의 설비를 중요하게 보시지를 안습니까? 그래야 아모리 집장사라도 집을 잘 짤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좀 잘 맨들어 노흘 것이 아닙니까? 또 이왕 그런집을 삿거든 꼭 고치어 버려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두고 지내다가 결국 그 폐해를 당하고 후회한다는것은 과연 우스운 노릇이 아니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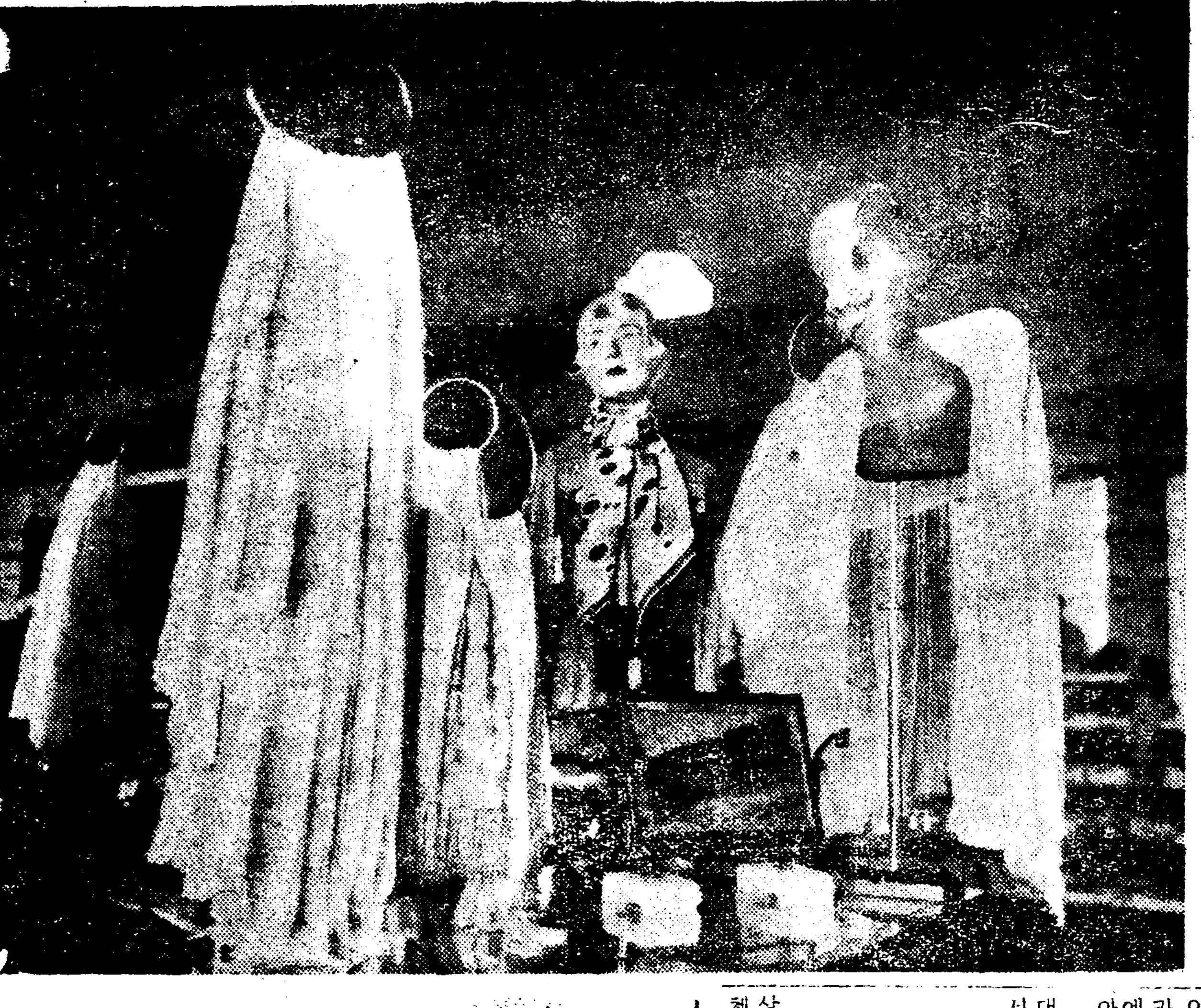
×

첫재로 하수도 어구에다가는 가는 쇠철망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건덕이가 흘러 나가지를 못 합니다.

둘재 하수도는 토관이나 세멘트관으로 못고 또 그 이음새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수가 새지를 안습니다.

셋재 하수도는 다소 기피 무더야 합니다. 그래야 겨울에도 비교적 얼지를 안습니다.

넷재로 그러고도 갈금 갈금 하수도의 소제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고 하면 하수에 섞겨 나가는 기름끼가 하수도 벽에 가서 엉겨부터서도 하수도를 막어 놋는 수가 업지 안한 까닭입니다.



집에서나 학교갈때입을 어린따님의양복 ③

任貞爀

이것으로 볼일은 다되엿스니, 칼라와 소매는 조희가 접히채 베내고 소매는 펼처서 한쪽만 점선대로 뒤소매동만 따로 베바리면 됩니다

(三)옷감마르는법

옷감은 그림가티 먼저 반폭에 접어노코 뒤ㅅ길과 압뒤쪽 치마는 옷감접은데와 본가운데와 주의해서 잘맛추고 압길과 소매와 호주머니를 떠내는데시 접은일선치씩붓치고 옷단은 오센치쯤 붓처서베냄니다 칼라 카우스와 장식단추쌀 것은 따로말느는데 이것은 옷감을 한겹으로 펴노코 그림가튼 위치로 떠냅니다 이것도시점은 일센치식부처서 도라가면서 베냅니다

(四)바느질하는순서

먼저 종합도를 참조해 가지고 베낸 조각들을 서로 맛추어 바느질을 하는것입니다

칼라는 안과 거죽과 맛추어서 달데만 남기고 도라가면서 박아서 시접을 얇전이 베바리고 뒤집어 인두를 천것는데 거죽이좋되너하게 적습니다

소매는 먼저 배래기를 거죽으로 박아서 안으로 박습니다 카우스도 배래기를 박아서 반에접어서 소매부리에 맛추어 박아서 거죽으로 젯겨놉니다

원길은 먼저 압길의 압단을 대고 압길중앙선 끼리 맛추어서 여미되 그림가티 외로 여미여서 대강 싯처 놋습니다

다음은 압쪽치마를 잔주름을 잡아서 다는데 잔주름은 먼저 재봉틀에 느리게 박아서 밋실을 천천히 잡아댕기면 주름이 곱게 잡힙니다 이러케 잡아서 압길허리에 맛추어 잡아노코 압길을 꺽거서 우에덧노코 싯친 다음 곱게 뚝바로 박습니다 뒤ㅅ길도 펴노코 뒤치마가 뒤길허리통에 맛게 주름을 잡아서 뒤길을 달아박습니다

다음은 호주머니를 다는데 압치마의 적당한위치에 두개를 박아 달고 억개와 엽솔기를 박아서 놋습니다 억개와 엽솔기는 거죽으로 박아서 안으로 박는것이좃습니다

그리고 칼라를 다는데 먼저 칼라를목둘네에 도라가면서 싯치고 우로 어슨조각을 대처 꺼박아 바이아스만 넘기여 박으면 됩니다

다음은 소매를 다는데 원길은 안으로 뒤집고 소매는 거죽으로 뒤집어서 압소매동은압쪽에 뒤소매동은 뒤쪽에 잘맛추어자게소매를 소매구녁에넛코 싯칩니다 싯칠때주의할것은 소매배래기가 압쪽으로 이센치쯤 오게 싯처서 박아답니다

옷단을 한다음에 스냅을 압여미는데 달고 장식단추는 우에 닥아서 잘대려서 입혀보십시요.

先發隊

봄은 부드럽다드니만—

주둥이리가 뾰죽하고 눈알맹이 노ㅡ라코 꼬리가 긴 무서운여호를 아씨들목에서 쪼차버렷습니다

이눈치를 벌서알어채인『마텡카』『링』『은모ㅡ르』가튼 폭신한 비털에 갸색화초모형올녀흔 쇼ㅡ르들은 쇼ㅡ윈도안에서 오고가는 새아씨들의 목덜미만 엿보지요

유리안흐리게하는법과 유리의때빼는법

상점 진렬창이나, 유리창이나, 체경이나, 안경……등 겨울에찬기운 또 더운김을 갑작이 쏘이면 흐려지 기작하는것은 유리량쪽면에『그리세린』을살짝발라두면 결코 그러일이업게됩니다 그런데 안경알에는 광선의굴절(屈折)상 그리세린을 바를수업스니까 비누를 약간문댄뒤에 헝겁으로 닥그면 결코더운김, 찬김을쏘여도 흐려지지 안습니다

◇

만약 유리창이나 유리그릇이 더러워술때는 먼저 더거운물에 당것다가 짜낸수건으로 잘 닥습니다 그런뒤에 마른헝겁에『메리야스』쪽에『알콜』이나 먹는초를 약간 찍어가지고 닥그면 깨끗해집니다.

대단히 더러워 우에말한방법으로 잘안질때, 그때는『침강성탄산칼슘』(沈降性炭酸칼슘) 또는『암모니아수』를 수건에무처 닥그십시요 그래도 안슷거든 공업용염산(工業用鹽酸)을 다섯배의물에 타레다가 유리를닥그면수어시 빼저버립니다. 차가른것은 물에서 빼야함

"털목도리""털목도리""털목도리" 귀찬타

날이 차차 따뜻해지니 잘간수햇다 또 씁시요

잘못하면버립니다

이러케 날이 차차 따뜻해지니 여호목도리며, 그외의 즘생털목도리도 소용이 업게됩니다 잘간수해 두엇다가 래년에 또 둘러야하지 안켓습니까?

그런데 모피종류는 여간 잘 간수하지 안해서는 못처럼큰돈드려 장만한것이 아주 못쓰게됩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간수하기전에 손질을 잘해둘 필요가잇습니다

먼저 장속에 너허두기전하로 종일쯤 그늘에 잘 말립니다 그런뒤에는 과히 굵지안흔회차리로 털이 상하지안케둑둑 두드려서 털속에 파무친몬지를 털어버립니다 온겨우내두르고 다닌것이라 몬지가 여간 만켓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을 드려 잘 털어업새야만 좀가튼 버래가 잘붓지안케됩니다.

―○―

만약 털목도리에 머리ㅅ기름이나 살의 기름때가 무더 더러웟슬 경우에는『벤진』을 수건에 축여 털의 결을 따라 살살 문지른다음 다시한번 말립니다.『벤진』이 무든것을 그대로 접어두면 털이 맛붓거나 자죽이날뿐더러 딱딱해지며 물론 털의성질도 납버집니다

양복다리미(아이롱)로 잘펴린다면 먼지가 쏙빠질수가잇기는합니다만 섯불은 송씨를 가지고 달려드럿다가는 털이 오그려드러 광중모소해지거나 고 또는 가죽이 쭈글쭈글해저서 생가죽은 실패와손해를 보게됩니다

이러케 따뜻하게되면, 오그러드럿든 세상없는짓을 해도 고칠수업게됩니다 그럼으로다리진하는것은 점문으로하는사람이외에 가정에서함부로안함이 좃습니다.

―○―

궤ㅅ작에 너허간수할때는 솔질을잘해서 털의결을 잘쓰다듬어 모양을 곱게해서 너허둡니다 그런데 될수잇는대로 한가지면한가지식 따로따로보관해야조흔데 궤ㅅ작은 생철과ㅅ작이 제일 조코 그다음이 나무 괴짝입니다. 궤짝에 너흔뒤에는『나푸타린』이나장뇌(樟腦)를 적당히 너코뚜껑을닷고, 틈사구니를 조희로봉해서(종이로부처서) 습기업는곳에두어두면 그만입니다

―○―

습기는 털에대해서는 절ㅅ대금물이니 이점을특히주의하셔야되고또모피보존용보호기(保護器)라는것이 잇는데이것을 사서 그속에모피를너허두는경우에는 악가말한『나푸타린』이나장뇌가튼 방충제(防虫劑)를 너허둘필요가업습니다 더구나 장뇌를 너흐면 입ㅅ작에갈린칠판게로해서 모피의 빗헤 변해지고맙니다.

날마늘먹는법 냄새가안난다

마늘이 여러가지병에 약이되고 몸을보하게하는것이라고해서 요건래 외국사람들까지도『마늘마늘!』하게되엇습니다

그러나 마늘 먹는데 대해서한가지탈은 먹고나서 냄새가 몸시나는것입니다 먹은당자는 례사겟지만 엽헤 각가히 가는사람에게는 무척 고약한 냄새가 끼칩니다 그래서들 약되는줄은뻔히알면서도 박게 나다니는 사람은 자연 못먹게되는것입니다 마늘을 구어서도먹고 쪄도먹는다하지만 그러면 효력이 적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날마늘을 잘게 써러가지고 우유에다 타서 둘러마시면 거이냄새가 나지안타십히합니다 그러고도 효력에도 아모영향이업다니 안심할일이겟지요

양의(洋醫)가본『풍』이란병 (二)

大學病院伊藤內科敎室 朴秉來

이런『풍』『중』『한열』의상대변의 변화로서 여러가지 질병이생기게된다고 설명하며 천지의 음양(陰陽)과 지상의사기(邪氣)에 몸상하도록케하면 예방할수잇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섭생(攝生)이 불충분한점으로써 발생하는질병은 육체를 너머편안케하고 정신을 과로케하면 근맥이 병이되고 정신과 육체를 너머 편안케하면 살(肉)에병이되고 몸체를과로하고 정신을너머편안케하면 근(筋)에 병이생기고 몸체와 정신을 과로하게하면 인후에 발병이되고 자조 놀내는자는 경맥불통(經脉不通)이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상말한것은 한방의학의 질병설명에 원리가되며 만가지병을 대개는 이런원리에 적합하게하여 설명하고잇슴니다

이로써 생각하면『풍』이란칭하는병은 한방의학의 사긔(邪氣)가 오장 즉 폐장, 심장, 비장, 신장긔간장을 침범한것을말하는거신고로『풍』의종류가 만흘것을알수잇스며 또한 장부(臟腑)의『풍』이 그침해하는곳에따러 편풍(偏風)、뇌풍(腦風)、안풍(眼風)、루풍(漏風)、내풍(內風)、수풍(首風)、설풍(泄風)등으로하얏스며『풍』은 백병지장(百病之長)이라고 칭한것으로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한질병의 지위를가진것을 알수가잇습니다

그런고로 이『풍』을현대서양의학상의의미로써 해석하기는 불가능할것이며 또는단순하게 병명만을 한방의사의칭하는『풍』으로써 지적한다하더라도그수가 여간 만치안흘것입니다. 서양의학이 현금에는 각과로 나누어저서 구별되여잇스나 각과에 소위『풍』으로서 한방의학의명칭이 잇슴것임니다 즉 내ㅅ과,소아ㅅ과,안ㅅ과, 이비인후ㅅ과, 치ㅅ과, 부인ㅅ과, 산ㅅ과, 정신ㅅ병과, 신경ㅅ과, 치ㅅ과, 피부ㅅ과, 외ㅅ과등에 만흔『풍』을발견할수잇습니다 그중에몃가지 례를드러말습하면 피부과에속한 뇌병(癩)도『풍』이라하며 습진(濕疹)、복행진(匐行疹)도『풍』이라하며 치과에속한우치(齲齒—벌레먹은니)이외에오는 치통(齒痛)은 전부가『풍』치로하며 안ㅅ과에 속한결막염(結膜炎)은『풍』아니라하며 소아ㅅ과에 속한 소아마비(小兒痲痺)、소아심마진(小兒蕁麻疹)、뇌막염(腦膜炎)등도『풍』이라하며 정신ㅅ과에속한 조발성치보(早發性痴呆) 마비성치보(痲痺性痴呆)、조조증(早躁症)도『풍』이라하며 기타 여러가지속한 한방 의학상의『풍』과할수잇는병이 만흘것입니다

또는 한방의학상으로『풍』으로칭하는외에『바람』이라고도하여 한갑분적의 증세를 말하기도하나니 즉 경련(痙攣), 항부강직(項部强直), 몸을 쓰지 못게 굿는것, 지각마비(知覺痲痺)등일것입니다 또는『풍이 세다』하여 체질을 말하는 일도 잇스니 즉 가튼 피부병 또는 신경병등을 자조알케되면 그리말하는일도 잇슬줄드릅니다 흑은 마신적의미로 말하는지난 모르겟스나 정신병자의 발양상태(發揚狀態)를『바람마자다』고도 말하게됩니다 이와가치『풍』『바람』등의진단을 한의학상에 만하게 드릅도 그병의백병지장이 되는것을 말하는것일것입니다

우리차지

등잔ㅅ불 엽헤서 어머니가 얘기책을 보십니다.

이웃집 아지머니들이 온방안에 꽉찻지요. 치환이할머니는 각금 우시기도 합니다.

엇던때는 모두 웃기도 하구요.

어머니 목소리가 조흐신지, 얘기가 재미잇는지.

누나 애기가 깨나부.

또닥 또닥해주.

(글쓴사람 최창선)

즘생사람 (一)

成俊德

——옛날에도 또 옛날 아조 짭ㅡ한때에——

동으로 동으로 작고만가면갈매갈이 사람이가러 치는 넙드란바다가 잇섯답니다 이바다가에는 또 경치가 퍽도 조흔곳이 여덟군데나되는데 그일흠은 이럿습니다.

一、통천—총석정(通川—叢石亭)
二、고성—삼일포(高城—三日浦)
三、간성—청간정(杆城—淸澗亭)
四、양양—락산사(襄陽—洛山寺)
五、강릉—경포대(江陵—鏡浦臺)
六、삼척—죽서루(三陟—竹西樓)
七、울진—망양정(蔚珍—望洋亭)
八、평해—월송정(平海—越松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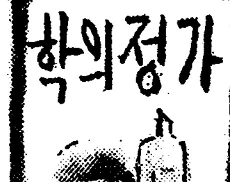
이런경치조흔데를 멀리떠러저 동동떠잇는 바다한가운데에는조고마한 섬 하나가 동그라니 솟아잇는데 이섬속에는 즘생도 아니오사람도아닌 이상한 즘생사람이 살고잇섯습니다 그온몸에는 털이나서 멀리고 손과발은 또 곰에발과가하엿습니다 얼골은 사람의 얼골인데도 혈이나 덤허서 큰성성이와도갓고 말은 새소리와 즘승의소리밧게는 할줄몰낫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괴상한 즘생사람은 벌서 누구였든가요? 이즘생사람이 나오기전 저동해바다가에잇는 엇던큰 항구엿답니다 그리고 그어진안은 또 이큰 항구안에서도 엇지손꼽는 큰 장자집이엿는데 그집의 외아들로래여낫답니다 금지옥엽가티 곱게곱게자라서 세상이되든해 바다가에잇는 큰항구마다풀아다니며 도둑질을하는무서운 해적(海賊)이 그의집을처드러와서 그집에잇는것이라고는 하나도남겨놋치안코 전부집어갓고 또그의집안식구들까지 모다 죽여버리고는다시어린그몸만 배에도실피 다른항구로 도적질을 하려가다가 그가배속에서 너무도우니까 죽는지 말는지하라고 이섬에다 내버린것이엿습니다 그가오놀날까지 죽지도 안코 제마음대로도라다니며 배가곱흐면 풀열매를따먹고 나무납잔갈흔것도 훌터먹어가면서 이즘생사람게 자랏든것이랍니다 이러케크엇지도 기운이세인지 큰바위를 공기돌놋듯하며 큰나무가튼것도죽죽 뽑아서 팔매질을치엿습니다 또이섬에 들내에는 거처로운파도가 어느때든지 무섭게치건만 히엄을 또잘처서 상어가튼것도 쪼처가 주먹으로 때려 잡기와 때로는 고래를 잡어타고 갓업시바다를 도라 다니기도 하엿습니다 이는 참으로 동해의왕자 이엿습니다 그의몸에는 험이나고 말은 할줄을모르지 마는 그는 또날마다 새벽이면 이러나서 바다너머 저쪽하날에 연붉게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괴도를 올니는것이엿습니다 그가 괴도를 올릴때에는 또바다를에다 그럴난 얼골을 씻고 그섬안에서도 제일놉다란 바위팍대이에 올라 두무릅을 꿀코 한창올하고 해에다 절을 하는것입니다 무엇을 축원하는지는 모르겟스나하여간 날마다 날마다 이러케그도를 올이고 잇섯습니다 그어느날이엿습니다 즘생사람은 전과 가티 새벽에 이러나 해에다가 절을하고 잇슬때 무엇인가 등뒤에서 찍찍 히는 소리가낫습니다 그때 그는 고개를 휘둘리고 보앗습니다 그런즉 갈매기한마리가 죽지를땅에다 질질끌며 허동거리고와서 이즘생사람압헤와 서는 고개찟만 연성 히고 잇섯습니다 즘생사람은 한편이상도해서 그갈매기를 어르만즈려하니 그갈매기는작고 고개찟만하며 압흐로 깡충깡충 뛰여가고 잇섯습니다 즘생사람은 엇더한영문인지도 모르고그 갈매기의 뒤만 쪼처서갓습니다 아ㅡ그런데 참으로 놀날일이엿습니다 바위여름나려서 보라낫가 다른 갈매기한마리가 알(卵)을품고 안젓는데 아모른 큰전보선대만한 징글징글한 큰구렁이가 혀를 눌롱거리며 알을품고잇는 그갈매기를 자바먹으려고 몸을 끄아드리오고잇섯습니다 이때즘생사람은

『오냐 그럼 이갈매기가저것을구해달나고나를청한것이로구나』

하고는 그보기만해도 징글징글한 구렁이를 목아지를 두손으로 밧작쥐고 그엽 바위에다 여러번태질을 처죽여버렷습니다 그때갈매기들은 고마움을 참지 못하는듯이즘생사람에게머리우를여러번이나떨썰춤을추고잇섯습니다

학의정가



치핵(痔核)

問 삼십세의 남자이온대 지금으로부터 일년전부터인데 변을볼때마다 무엇이홍문에서 나옵니다 무슨병이며 치료방법을 하교하시요(고민生)

二、사개월전부터 대변시에ㅅ드며 놀때는홍문이대단히 입호고 뒤지에조곰식 피가무더니옴니다 흔은 이것이 치질이안인가합니다 병명과약명을아르켜주시요 (市內 一讀者)

答 치질그중에도 내치핵(內痔核)인듯합니다

약국에서 좌약을구하야 아침대변본후와 밤자기전에 한개식삽입하십시오。그러나 이것은 일시적료법에 지나지못하오니 필경은 근치수술을 바더서 완전히 치료하야바리는것이 가장안전합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醫學博士 金晟鎭)

공포심이만소

問 이십일세미혼남자인데 오륙년전부터 돌연히공포심이나며 마음이불쾌하야지고 그후로부터 실업과 가사외 여러가지 사정이 잇슨후로부터는 두통이심할때가 만습니다 두통이심할때에는 공포심이 더한것갓습니다 신체는건강하고 운동도적당히합니다 공포심으로 인하야 신체에해는업슬까요 (市外苦悶生)

答 공포심이심하고 두통이심할때에 더하다하오니 다소간이라도 정신병에 걸리기쉬운 소질이 잇는것갓습니다 심하게되기전에 얼른 직업을차저 일을보게하시고 규측적생활을 하시며 운동도 규측적으로하시고 각금정신 수양도하야보십시오 적당합니다 공포심이 난다하야도 어느틈간이던지 말이든이 그근본이잇슬것이오니 그것을잘피하도록하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두부절종(頭部癤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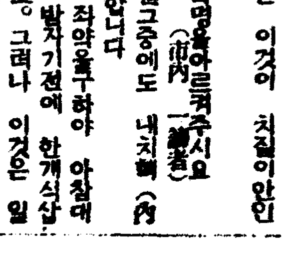
問 저는 금년십칠세된 농촌소년이온대 약이개월전부터 머리에 종기가 나기시작하야『바치루』고약을 사용하얏드니 일주일간내에 낫기는하얏스나 련속하야 다른곳에 나는일도 잇섯고 낫는자리에 또나는일도 잇서서 현재는 병원고약을 사용중이온대 작고련속하야 나는고로심히 고통중이오니 예방법과 주의사건을 하교하여주시요 (忠北 BS生)

答 위선머리를 박삭 깍고서 붕산수나 과산화수소물로 깨끗하게씻스신후에 붕산연고를바르십시오 별로예방법은 업스오며 생기는대로 위에말한것과 가튼 치료를하십시오 (大學病院 醫學博士金晟鎭)

관절류마치스

問 만성관절류마치스에 소피를 매조석 복용함이 조흡니까 불리하겟습니까? 소피는엇더한데조흐며 만성관절류마치스에효과는도모지업습니까?(昌信洞金)

答 소피에대한 자세한연구는 업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유효성분이 잇슬것은 용이히 알수잇습니다. 그러나『류마치스』에말습과가티 특효가잇는지 업는지 확적한 판단은 경험이 업서말할수업습니다『류마치스』에는『사리치ㅡ루산』이 특효약 이오니 이것을 위선써보시는것이 안전할가합니다。소피는 소화긔불상하며 또 결핵긔타의 병균의전염을바들념려가 잇습니다 (大學病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月波

宋金

선생은 두눈이 번쩍하여젓다

『인』저절로 입모습이 앙을어젓다

『이여석들이 건너학교로갓구난』

사랑하는 애인을 빼긴이상으로 분하고 미웁생각이 낫다

그리고 선생의머리속에는 몃칠천의일이 언뜻떠올랏다

×

젊은박선생은 동리젊은패몃사람과 포스터와 풀통가지고 동리마다 돌아다니엇다

시중의속 울타리밧 거는편 회나무밋까지 그의일행은 와다리 나무그늘미테는 동리노인몃사람이 담배를피우고서 한담들을 하고 안저잇섯다

그들은 공손이 노인들에게인사를하고 가젓든 포스터ㅡ한장을 고목나무에다 척척 부치엿다

『그건 뭐요』

그중에 한노인이 물어보왓다

『네, 오는 보름날저녁에 구경오시라는겁니다』

『학교에서 뭐하오』

『네, 학예회를한답니다』

『학예회, 응 작년처럼말요』

노인들도 인제는 학예회가 뭔지를 대개짐작들을햇다

박선생이 처음학교를 설시한뒤에 이근처의사람들이 처음보는 체조와창가를 가르키엿다

동리사람들은

『학교라고 미친지랄만가르키고 광대소리나 가르키는 곳이라고 반대들을햇다

그러나 박선생은 밤마다 동리노인들을 차저다니면서 열심스러히 그러치안타는 설명을햇다

한편으로 젊은패들을 기피사귀엿다

그래서 한때는 어쭙진情은녀석이 모히는곳이라는 비난도바닷다

그러나 박선생은 더 열심으로 그들을깨워주려고애를썻다

한편으로 농민강좌(農民講座)를 열어서 일반의 초보지식을일깨주엇다

한편으로는 학예회가튼 모임을열어서 학부형들의 완고스런『학교의대한태도』를깨트리엿다

제일첫번 학예회때에는 거운야단이 일어날번햇다 첫재 여학생들에게 유희를시키는것이 큰 문제가되엿다

『괴생춤가르키엿다』는 오해를 바든까닭이다

딸들을 학교만으로보낸것도 그들에게잇서서는 큰 용단이엿는데 게다가『서양춤』(유희)까지 가르키엿스니 그들이 가만히 잇슬리가업섯다

……리 아다 월파……

……장, 농감들의 ……들이 이론의 본 고장이엿든것이다

더욱히 월파선생에게는 사상적으로밧는 영향보다도 경제적으로밧는 타격이 더 커갓든것이다

의례히 이런 학예회가 잇는날 글방아이들은 건너편학교로 갓너가버린다

또 대개 이 건너가는아이들의 부형은『농민강좌』에를 열심으로다니는 젊은패들이며 혹은 이 패들의 일가들이엿든것이다

이래서 자연히 월파선생은 농민강좌와학예회를 원수가티미워하게되엿든것이다

×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이들의 비란은 적어갓다 보담도 그네들은 일부의호평으로바귀엿다

제일반대자가만흔 이 중농리 노인패들도 인제는 비란도아니하고 호평도아니하는 중립태도를울가젓다

그들은 월파선생을 맛날때는 월파선생의 말이 올코 박선생을 맛나면 박선생의 하는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고들잇섯다

박선생의 일행가운대의 젊은패가 여러 로인들을 보고

『그날밤에 만히들오십쇼 퍽 재미잇는것도 만코 유익한 이약이도 만흘니다』

『어, 그러케』

『고참 작년에 보니까 아이들이 잘들도하데』

『그러니까 엇더튼지 사람이란 가르켜야하는것이야』

로인들은 줄대여서 수선수선햇다

그럼판에 월파선생은 나와다

박선생은 역시 공손히 례를한다

『선생님 요사히 얼마나 건엽하십니까?』

월파선생은 귀분이 낫벗스나 억지로 화색을지엿다.

迎春記

벽철

例年가트면 음력정초와함께추위는 가버리는것이나 今年은立春이 지나가도록 그추위는 조곰도 풀니려고하지안헛다! 지독한추위속에 잇다금 日氣가조곰풀리는때면 우리들은이젠추위도 가겟지!하고 생각햇다하나 그豫想에反하야 추위는 곳다시

逆襲 해왓다 大地를獨主과 겨울은 永遠히天地를 차지한다는듯이 맹렬이고 逆襲을 거듭해와다—이번겨울의 추위는그와가티 例年에 업는 酷寒이엇다

그酷寒가운데서 우리들은 항상 저주하듯이 부르지젓다「에이! 이놈의 추위가언제나 업서가나!」

추위가 심하면 심할사록우리들에게는 그추위가 더욱저주되고 憎惡가되고 나중은 그것이 不可抗抗의 自然의힘인줄도 모르고그것에反逆해갈 精神까지일어나게되다—어듸 네가 못견듸나 내가 못견듸나 싸워보자! 그리고 그때의 그精神이란忽然히 無力한것은 아니다! 왜그러냐하면 그精神을 가지는 人間의압헤는 반듯이 오는그봄의光景을

前提 로하고잇는까닭에! 사랑어란萬一그주위의모든敍景에對하야 다만 眼睛과渺漠한 가지고 아무期待와 希望이 업다면 이地上에는 人間의 자취가 꺼지지이무그時日이 오랫슬것이다!

하야 多幸히 人間은 엇더한條件하가운데서도 希望과 理想을 일지안코 언제나幸福을 追求하야 쉬이지안는 動物이다 스탕달은 말한다 人間은 아츰마다 幸福의 산양을떠난다! 보라! 이번겨울의 그추위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언제나 봄이 오는것을 밋고 希望하고 期待하고 또그것을마지할날을 손꼽아 기다리지안헛는가? 이제 봄이올것이다 오고야마를 그봄은 오고야만다??

모저 日曜日날 午後엇다 묵업은 머리를 쉬일겸 우울한 마음을 收拾하려고 나는下宿에서 가갑은

秘苑 뒷산에 올너갓다 얼마동안 거려가다가 나는 無意識中에 外套단추를 벗겨노으면서 주위를 둘너보앗다 「왜 이러케 떠웃까?」 그때는 人間의直感이 飛躍하는宇宙의 神秘에 接하는 瞬間이엇다 꼭절모를 기쁨과 감격 아지못할흥분이 가슴에 차오는 愉快상태에서 나는 다시 주위를 둘너보앗다! 눈압헤 宇宙는 벌서 어제그추위의世界는 아닌것이 분명하얏다 모든것이 나에게 그추위의몰니감을 告하는듯하고 봄의香氣가 찬大氣가운데서 모든것은 飛躍하는빗을보여주고잇섯다! 마른나무가지에귀를 기우리면 확실히 오삭오삭하고 얼르는소래가 들니는듯하고 썩은나무닙을 손으로헤치고 보면 거기에는 파릇파릇한 嫩삭이 돗아오고잇다 그리고 눈압헤 보이는모든 眞像! 헌눈에덥힌 北岳山의 雪景까지가 무슨총출의 고개가티 보엿다 보라 이大地우에는 밋濁가티 흘너오는

陽光 이넘처보지아니한다? 그러한眞像은 모도가 한데어우러저서 봄의前奏曲을 울우고 잇섯다 그前奏曲은 우리들의바로엽까지와잇는 봄의凱旋의수래바휘소리일것이다!

…期待는! 그것을웃는나 눈압헤는 완연히 봄의光景이 떠올낫다 눈이녹아가는모양 어름석긴물이 誇耀하게되여 개천을 넘처 흘느는 光景그 뒤에 들과독이 녹어가는 것같로해 사이에 꼿 봉아리가 터저 웃는 그 아츰 즐거게 새가 노래를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人間이 希望과 歡喜가운데 生活하는그 봄! 그봄은 지금 우리들의 바로압헤와잇다!

나는 그런光景을 눈압헤 그려보면서 얼마동안 망연자실한듯이 서서잇섯다 眞紅저고리를 입은 젊은女人하나가 鳳衣는빗어 팔에걸은데로 나의바로압을 거려가면서 무엇을 혼자 빙글빙글 웃는것이엇다! 처음에나는 혹시 그 女子가나의 모양을보고 웃지나 안는가하야

모자 를 벗어 곳처쓰고넥타이를바르게매고 옷깃을 단속해보앗다 혼자서 얼굴은 붉엇다 혹시 나의 얼골에 무엇이 못지나 아녓나?」

하나 그女子는 결코 나때문에 웃고잇는모양은 아니엿하얏다 그는 먼거리를 잠깨까지도 그대로 하늘을바라보면서 微笑를滿面에떠우고가다 그제야 나는 나의어리석음을 씻고 다시 그가 微笑하는理由를까닭엇다 — 봄이다!

人生의 봄을憧憬하고잇는그가 다시 新春의봄을 마지할때에 좋와한은 어떠케 기쁨과 歡笑를참을수잇스랴!

봄이온다! 나는 그봄의소식을 혼자서 알고잇는것이 愉快하엿다 나는 그기쁜 소식을 따뜻한후들과 모든사람에게알려주고 그들과함께 그봄을차지하고 싶엇다

그대로 산을나려서서 나는바로 시가를향하얏다 八判洞에서 瀚洞의긴담을 바른편에끼고헐수잇는데로 가상을내밀고 발거름을놉혀서 유쾌히거려갓다 오래간만에 나우 우울한 가슴을헤치고 明朗한 휘파람소리가흘러나왓다。(二十日)

高麗圖書館附屬 11.2.29 CCC LIBRARY

朝鮮歷史學의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批判 (一)

洪起文

한편으로 申丹齋는 家親의 가장 가까운親友요 또 나의 가장 敬慕하는 先輩다。그러타고 區區한 私情으로서 이분을 굽히어 그에게 맛지 안는 稱讚과 쓸때업는 榮譽를 올리지는 안하리라。다른한편을 나는申丹齋의

◇…**思想에** 對하야同感을 表하지 못하는 사람이다。그러타고 내 또한 偏頗한 感情으로써 抑說과誹謗을 가저 그의業績을 毁謗치는 안 하리라。一言으로 말하건댄 나는 오즉 申丹齋가 끼친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를 批評코자 한다。學徒로서 나의態度는 恒常 여긔에 終始코자努力하야 왓거니와 이제 새삼스러운 變함이 잇슬리는 萬無하다。아니 地下로 돌아가신 申丹齋도 저주실것이요 方今 親友의 喪事로 病患을 더치신家親도 不肖의 放恣를 구태어 責望치는 안 하실것이다。設使幽明으로 갈리신 그 두분이 다한께 未安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나의 學徒的良心만은 어대까지滿足함을 告白한다。申丹齋의

◇…**著書는** 槪括的으로李舜臣傳、乙支文德、崔都統、朝鮮史硏究草 이잇고 未刊으로 朝鮮史가 잇슬뿐이다。그中에도 李舜臣傳、乙支文德、崔都統은 그의 初期著作인만큼 歷史家로서 自己의 硏究結果를 發表하기 爲한 著作이 되지 못하니 오즉 나의 批判對象을 이루는것은 朝鮮史硏究草와 朝鮮史에 지나지 못 한다。朝鮮史硏究草는 家親이 그의 原稿를 請하야 온것인바 나도 일즉이 그原稿까지 보앗이 잇고 朝鮮史는 그가 抄하다가 던지고 간 原稿를 某氏가 整理하야 本報에 連載하든것이란는데 그조차 끗을 막지못하고 말앗다。그럼으로 朝鮮史는 某氏의 加減이 어느程度에 미치엇슬까 筆者의 本意를 果然損傷함이업섯슬까等 疑問이떠 오르는딕로 그의著作中 完全히 信憑할만한 것은 朝鮮史硏究草一卷에 限한다고 보아서 無妨하다 그러나

◇…**先輩의** 글을 整理하는분으로서 그에 對한 敬意로라도 根本的으로까지 任意의 加減을行햇슬리는 업슬것이다。直接 그 분으로부터 整理에 對한經過를 듯지못한것은 섭섭한 일로 남겨두고 그만치만 信憑해서는 無妨하지 안 할까 생각한다。

家親의 이야기로 드르면 申丹齋는 自己가 일껏 著作을 해가다가 말고 갈작이 업새 버리는 버릇이 잇다고 한다。

그래서 朝鮮史硏究草도 그 出刊에 同意하야 原稿까지 보내든를 그나마 上梓을 보게되지 못하얏슬는지도 모른다。家親은 그 序文에잇서 그를 멘 노코서는 突然 中止를 宣言하얏더라는 것이다。그것은 家親의 序文에 詳細히 적히어 잇다。萬一 家親의 激勵이 아니 멀리로 比하야 가면서 그의帳簿을 못내 整理하얏스나 그래도 그로서 멧番의 著作을 끼치어 잇다는것은 不幸中多幸한 일이다。그著作을 뒤에 끼치어 주도록 努力하야주신 家親이라든지 또는

◇…**朝鮮史** 를整理한 분이라든지는 朝鮮歷史學을 爲하야 한께 고마운뜻을 表하지 안흘수 업다。

最近의 讀書심아 家親에게 보낸 申丹齋의 私信으로 보건대 그에게는 大佛頂首楞嚴經과 弘公略傳이 腦中에 감추어 잇든 모양으로 永永 發表치못하고 말것은 자못 慨嘆로 녀기엇다。그個人의恨보다는 우리後生의 損失이 더 한層 크지안 까할한다。

何如튼 申丹齋는 近年에잇서 朝鮮歷史學의 硏究를 振興시킨 先驅者니 어느意味로 보아서는 朝鮮歷史學의 開祖라고까지 말할수 잇다。

朝鮮語에 잇서 周時經氏와 가치 朝鮮歷史에 잇서 그의 功績은 실로 巨大한바라 그業績은 그는 後輩學者의 推重을 밧을 資格이 넉넉하다。더구나 그의 天才的眼光이 個人未踏의

◇…**前轍을** 비칠 적은 그의著作으로써도 우리에게 多數의 暗示를 賜給시키어 줄이라? 不幸히 그는 歷史硏究의 科學的 方法을 아지못하얏고 또 不幸히 그는 海外로 遊離하야 文獻을 만히 參考치 못하얏고 그래서 그의 天才에 비치어서는 그의 著述이 오히려 疏漏치못하얏다。이 論文을 抄하기 爲하야 나는 다시 한번 그의 著作을 通讀하다가 中間에 책장을 덥고 길이 嘆息함을 禁치 못하얏다。歷史硏究에 冷靜하여야 할 學徒의 態度로서 지금까지 나의 論調는 넘어나 激昂해지지 안헷는가? 不運한 朝鮮의 學界요 不運한 그의 先驅者이니 나도 뜨거운 情熱을 禁하랴? 諸君이여! 용서하라。이로부터 못갓을 차게 가다듬어 그 學說의 眞髓을 論評하겟다。嚴格한 筆는 내이미 覺悟한바니 구태어 來日의 是非를 가리고자 안는다

漢詩

春雪—押風

選外佳作之二

桐崗考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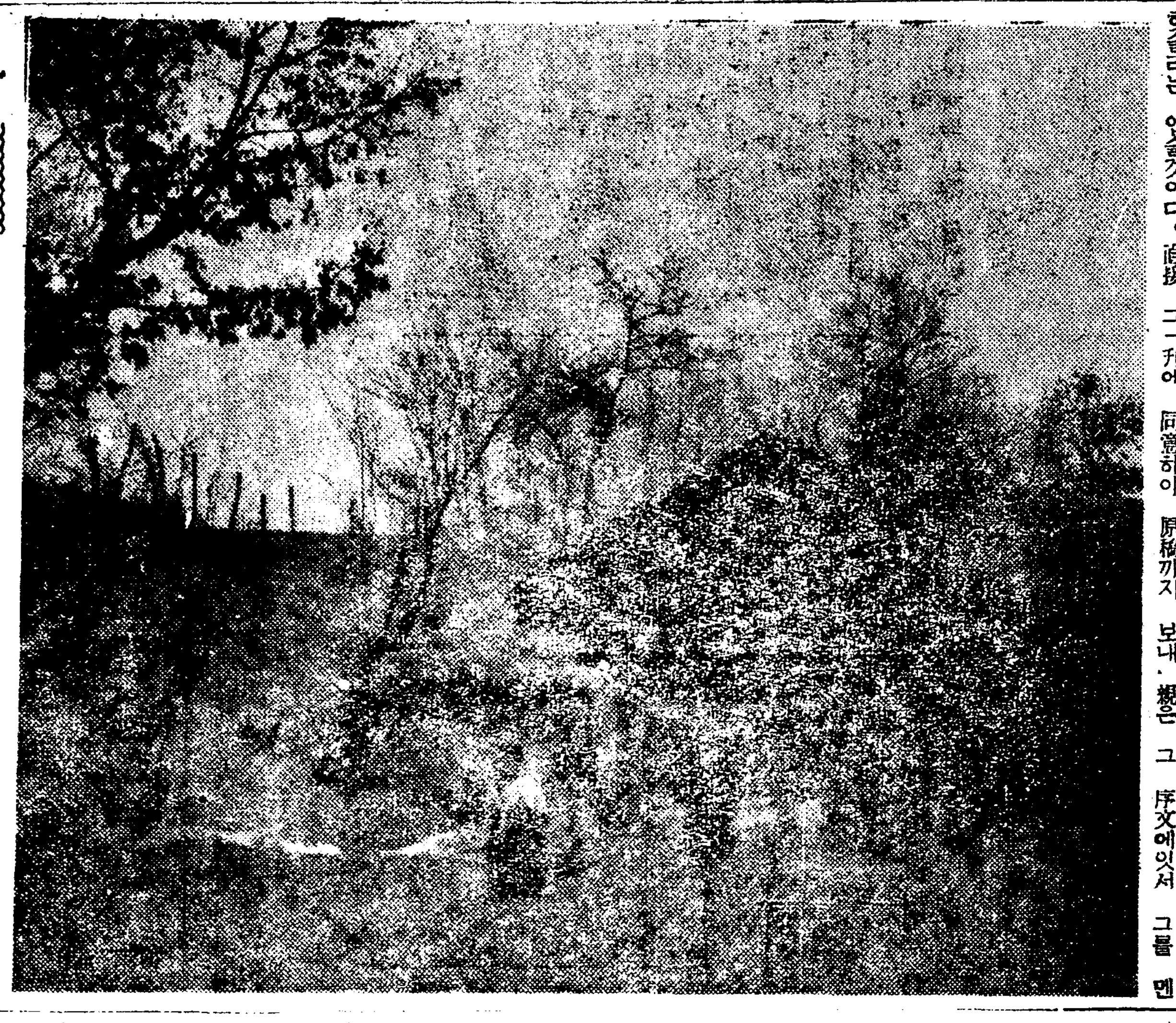
京義線 桂智淳

餘寒釀雪到春宮
瑞氣玲瓏銀海中
恐損梅花並落地
誤疑抑絮不禁風
乳鶴排巢鰊淵着
賓鴻留瓜入消融
自從臘後逢三白
定是來秋稿事豐

時調 書帖 (其九)

山家에 봄이오니 自然이 일이하다
압내에 살도매며 울미테 외도심고
來日은 구룸것거든 藥을 캐러가리라

(李鼎輔)



能動的人間의探求

—哲學과文學의接觸面—

⑥

金午星

그러나 對立物의統一은 언제나 外部的不安 分離되고야 만다。이때에는 環境과 人間의生存은 서로 抗爭하지안할수업게된다。人間은 지금까지 環境에 順應하든 受動的生活을 그대로持續할수 업게된다。여기에서 人間生存에 不安과 苦惱가생긴다 不安과 苦惱의精神은 人間의生存이 外部的環境때문에 威脅을바들때에 생기는 意識狀態의하나이다。그러나 이러한

外 部的不安은 人間에게어떤主體的인決意를 갓게된다。人間의生存이 外部的不安을 克服치안코는 發展될수업음을 自覺하게 될때에 거기에서 어떤 主體的決意가 생긴다。그러하야 지금까지의 不安과 苦惱의意識은 能動的精神에로 高昇하게된다。이러한 能動的精神만이 人間의生存을 威脅하는 外部的不安을 克服하고 나아가 明日의 새로운 生存條件을 創造할수 잇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同一한 歷史的社會에서도 能動的精神의所有層과 受動的精神의 所有層이 잇슴을 차저볼수잇다。그것은두말할것도업시 同一한社會의內部에도 그生活態度를 各自달리하는까닭이다。今日現實에는 身體的 感性的努力으로서만 그生存을 維持하는 實踐的인 生活層과 利潤과 智識的活動으로서만 生活하는 觀想的인 生活層이 갈녀저잇다。그런대 能動的精神은能動的인 生活實踐에서만 나타난다。그러므로 今日과가튼 外部的不安을 身體的 感性的으로體驗하고잇는 人間層에게만 그것을實踐的으로

超 克하려는 能動的精神이 發揮될것이요 外部的不安을 單히觀念的으로 맛보는 人間層에게는 그것을 實踐的으로 超克할能力이 缺乏되여 잇슴으로 오직 恐怖 不安 憂鬱 絶望 悲哀 斷念등의 受動的精神에 支配될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또한가지 看過할수업는것은 同一한 實踐的生活層이면서도 그實 全部가 能動的精神을 發揮치못하는것이다。그것은 主로 傳統에의束縛 環境에의重壓 慣性的意識等에 그原因이 잇슬것이다。더구나 今日가튼 混亂期에잇서서 能動的精神이 容易하게 發揮될수는 업는것이다。여기에 今日의 能動主義의 啓蒙的役割이잇다。能動主義가單히 哲學的인人間性의 解明에 끈치지안코 文學的創作과 協力結合함으로서 能動的人間타입을 發見 宣揚 創造하지안코면 안된다는 나의本意는 이러한啓蒙的役割을 考慮한까닭이다。傳統과 環境의 重壓때문에 埋沒 壓縮되여잇는 그들의 能動的精神을 살니는대는 百萬言의 理論보담 人類의 明日을

創 建할만한 生生한 能動的人間타입을 그들에게 提示하는것이 가장効果的일것임으로써이다。

今日의 行動主義등이 歷史的限界性을 自覺한 知性的인데리들에게서 提唱되고 잇음은 반가운現象이다。그러나 그들이 과연 現實的不安을 感性的實踐的으로 克服하는 能動的行動에 나갈수잇는가는 疑問일것이다。그러므로 우리能動主義가 不安으로부터 再建에의目標를 達成하려면 今日의 克服을 通하야 明日의 人類를 代表할 主體的인 人間層과 結合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끗

『디켄스』의餘榮

—『픽크윅크페ー퍼ー스』百年祭—

【론돈(倫敦)同盟郵信】文豪『듸켄스』의일홈으로하여금 百世에남도록한例의『픽크위크페ー퍼ー스』의第一號가 發行된것이今年으로서 正히百年째되는 때문에『론돈』서는 오는三月에 그發行 百年祭가 盛大히 擧行되기로 되여잇다。

百年祭에는 全世界의『듸켄스』崇拜者가 모혀서 매우 盛況을 呈하리라고 豫想되는데、英國서는『듸켄스』의뒤를 이은『피크위크』派들은 大挺身하로서『론돈서로체스타ー』까지行列을하고『듸켄스』의生地로서 알녀진『보ー쓰마스』에서는市長主催의午餐會及晩餐會가 열니며 特히晩餐會에서는『刼트』殿下가 故『듸켄스』를爲해서 祝盃를 들기로되여잇다 祭日前後 一週間은『듸켄스』의 原稿거의 全部를모아 有名한『포ー르스타ー코레숀』의 展覽會가『론돈』의『빅토리아、알버ー트』博物館에서 열니며 一方『모ー듸ー』街에서는『픽크위크페ー퍼ー스』特別展覽會가 開催되여 千點以上의 記念品이 陳列되기로되여잇고 英國文壇에서는 그準備에 忙殺되여잇다。

戲曲 春香傳 (三)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房子 춘향이 죽겟소。참으시오

月梅 ……에그 원통하고 절통해라。웨내가 고놈의 코라도 안물어떼고 그냥 보냇슬까? (소리친다)요 리가놈아、내딸 버려주고 내돈 따먹고간 리가놈아 네놈이 오늘 안쫘으로 배가 갈라저 죽살을 할터이니 정신차려라 요놈아……

春香 어머니、그것이 무슨 당치못한 악담이오。도련님은제 남편이자 어머니 사위아니오

寡婦 이런 키질변이 또 그놈의 두던을하네。

月梅 아서라 춘향아 너청한체 마러라。아즉네가 서방맛난을 못해서 그런소리를하지마는남자의마음이란 천하에못미들래라

月梅 아우님그러치안소? 고놈이 고 나이어린놈이 전깨정이놈이 아니고 무어이니? 이 늙은년이 준 일년동안을 더우나 치우나 밤이면 밤참 차린다、낫이면 술시상을 본다 이래서 내 시재시돈 수천냥을 모조리 업새거든 어쩌면 고놈의자식이이러케도 우리모녀를 망처노코 새장가를 든단말이오? 그래도 나는 차차 조흔 인연잇는대로 논섬마지기 매보냅을만 아렷소그려。

寡婦 ……앗다 성님 한집 떤심치고 그만두오。성님이 고놈을 좀 더 귀에햇더면 정녕 고놈은 이집까지 팔어먹고 마럿슬것이오。

月梅 (春香에게) 이년아 인제 이러니저러니 할것업다。두말말고 네 팔자나 고치자。아우님 서문안에 그 누구래소? 이년을 부실로 다려가겟다는집 말이오。아우님、얼른 그집에가서 그만 구정을지어주소。

春香 아니 어머니 내가 못제 비록하여서 죽는것을 보시랴으로 그런 말슴을 하시오?

寡婦 춘향아 자식한테 무정한 에미는 업느니라 너 그러케 악지를 피지말고 어머니 하라는대로 시집을 가거라 그 리도령은 네 첫서방이 되어서 니줄래야 줄처럼 니줄수는 업슬것이다。누구나 첫서방적에는 다 그러타。그서방 죽으면 따라 죽을것도 갓지 그러치마는 또 새서방 어더보면 첫서방만 못하지 안느니라。

月梅 이년아 너만 서방리별해보고 다른사람은 못해본줄아니? 우리는 젊엇슬제 하로 밤 서방 리별 쉬도하고 백도하고 그러고도 능수능대하게 살만 살엇다。그리고 이년아네가 아모테나 시집을가야네병도 나을것이고 그리가놈한테 떼인 미끼도 도로보충해낼수가 잇지안니? 이년아 생각하여보아라。사람이돈 먹고살지 사랑먹고 산다더냐?

寡婦 그러치。돈이 제일이지。더구나 게집이란 절엇슬제철랑 만드러야지 내 청랑 못 만들고 이러저렁 늙어지면빗고랑 메다 죽는단다。

春香 웨 이리 성화야요! 그만 나는죽어 버릴테야! (春香이 房으로 뛰어 들어간다 뒤문까지 다친다)

月梅 아니 저년이 미첫서!정녕 미첫서!

房子 춘향이가 약은줄 아럿더니 웨 저러케 소견이 업나

月梅 이놈아 나가거라。너도내 원수다。그때 그천하 도적놈을 우리집으로 끄을고 온놈이네놈이지!

房子 웨 애꾸즌 나를 가지고 야단이오。내가 무얼 잘못햇소

寡婦 그러기에 뚜쟁이 노릇이란 함부로 못하는것이다 이놈아。

房子 제ー미할것! 여태나를 잘 부려먹고 이게무슨소리야? 이제 춘향이 신부름하는놈 개아들놈이다。뭐! 이집에 다시 안오겟다。(退場)

寡婦 성님도 고생이오。이래전 만해도 우리남원고을통옥처서 성님가티 복만흔 사람은 업서보이더니 인제는 나보다도 더팔자가 사나워젓구려。

月梅 아우님、아우님은 자식업서 만혀이오。아여자식 나을 생각 마오。자식은 애물이여 악、애물이고 말고。조선팔도에 자식못나어 애쓰는 년은내 남할것업서 모두 개딸년이다!

寡婦 성님、인제 두고보오。리가놈이 장가를 들엇다니 차츰 춘향이 생각도 달러질터이니 그러거든 달내서 시집 보내지。부대서문안 그신참봉댁 잇지마소。

月梅 인제 그년이야 죽든살든 나는 참견안하겟서! 에그 망할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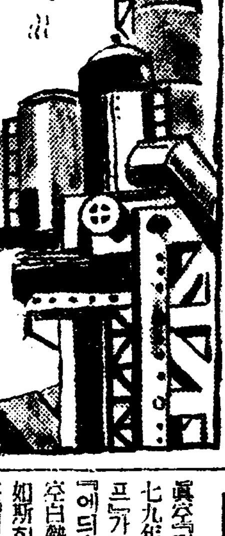
寡婦 걱정말라니까。걱정말고 성님은 무꾸리라도해보고。정성이나 좀 드려보소。그러면 차차풀리지。나는그만가겟소。(寡婦退場)

月梅 (가만히 안젓더니 香丹이에게 분부한다) 향단아 여기 정한수좀 떠오너라。칠성님께 기도를 좀 드려야지。저년을 저냥 두엇다가는 정녕 상사병이 더처서 죽고말겟다。

(香丹이 床에다가 물을 떠온다。月梅 그床을 花階에다 노코 중얼거리며손을비빈다。)

巨大한望遠鏡

米國오하요ー州『크리ー브란드』의 老科學者『앙브로ー즈·스와시ー』氏는 最近八十二歲의 誕日을期해서 八十二吋의 新望遠鏡을 完成하엿다。이것은『텍사스州立大學』의『맥드날드』觀測所에 設置되엿다 ☆……寫眞은『스』氏와 望遠鏡의 模型……



現代文明과 電燈의發達 (三)

東電技術部 兪完昌

七、電球와眞空『펌프』

一八二〇年『드·라·루ー』(De La Rue)氏가 眞空電燈球를 發明한以後 이것은 金白線을 空氣中에서 熱하는理由에 不過하엿다 其後一八四一年『프레데릭크·또·모ー린』氏가 처음으로白金線을 眞空中에서 熱함을 考案하엿고 一八四五年『G·W·스타ー』氏는 炭素條을『토리체리ー』眞空中에서 熱하는電燈球를 製作하엿스니 이것이 眞空電灯球의 始祖일것이다 그러나 當時는 眞空을 所得할裝置가 甚히不完全한까닭에 이卓越한考案도 實現치못하고 水泡로歸하엿다 그럼으로

電 燈硏究者가 무엇보다 渴望한것은 優秀한眞空『펌프』의發明이엿다 이것이 眞空『펌프』發明을 促進한 一大動機일것이다 따라서眞空『펌프』發達의經史는 急速度로展開되엿다 一八五五年『가이스레르』氏가 眞空『펌프』發明을爲始하야 一八七九年『스프렝겔』氏의 眞空『펌프』가 自動的으로 改良되엿슬때『에듸손』翁은 이를利用하야 眞空白熱電灯球를 完成함이엿다 如斯히 電球가發達하기에는 眞空『펌프』의發達이 絶對必要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電球와眞空『펌프』와는 相互相助今日의躍進을 完成하엿스니 卽眞空『펌프』는『에듸손』翁을도와서 白熱電燈球를 完成케하고 一步進하야『렌첸』氏로하여곰 ×光線을發見케하엿다

一八九五年이를 完成한『렌트겐』敎授의 功績은 科學史上大書特筆할 價値가잇슬것이다 따라서 內外科醫術의發達 齒科醫術及其他諸般工業의發達에 重大啓示를주엇고 이에서 우리人類에게 一大幸福을

享 受케하엿스며 乃至今日의 文化를完成케한것은 實로 이眞空『펌프』의 威力이 드려함것이다

一九一六年『랑그미어ー』(Langmuir)氏의 水銀擴散眞空『펌프』가 發明되자 高眞空製作도 極致에達하게되엿다 그러나 아즉도 自然은 우리에게 絶對完全한 眞空을 許하지안는것이다 今日우리가 어들수잇는 最高眞空度는 水銀柱10^{-8}mm 卽一億分의一이니 이眞空中에는 每立方糎에 地球上全人口와 大略同數個의 氣體分子가 아즉도存在해잇는것이다

그러나 電球製造業者는 이高度眞空電燈에도 滿足지안코 改良前進의速步를 또다시 急히하엿다「能率이 良好한電燈」이것이그들의 目標이엿다 그러나 能率을 良好케하려면『탕구스텐』纖條의 溫度를 놉히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難關이 잇다 纖條의 溫度를놉히면 纖條의蒸發이 激烈할것이요 따라서 電球의硝子壁面이短時間에 黑化할것이다『랑그미어ー』氏는 이難問題를解決하엿다 氏는

發 明한眞空『펌프』로도 到底히 이問題를 解決치 못함을 일즉이 自覺하고 硏究方針의 變更을 決意하엿다 그리고 氏는 다음과 如한 優秀한着眼點을 發見하엿다 卽電球의 能率을 良好케하기에는 纖條의 蒸發을減少하고 溫度를놉힐것이니 이러케하려면『탕구스텐』의蒸發分子가 電球硝子壁에 飛着지못하도록 防害物을 球內에封入하면 如何할가」함이엿스니 이것이 이難問題解決함에 唯一의曙光이엿고 氏의 이着想點은 眞空電燈球에서 瓦斯電燈球로 變遷하려는 一大革命이엿다 一九一三年 氏의理想은 實現하엿다 氏는 여러가지로 實驗한結果 窒素瓦斯가 가장優秀함을 發見하야 이難問題를 一擧에解決해버리고마럿다 氏는 또다시 稀有瓦斯『아르곤』을 電球內에封入한結果 一層더優秀함을 發見하엿다 그리하야 今日의瓦斯入電球를 完成한것이다 現在市場에 出沒하는瓦斯入電球는『아르곤』瓦斯에 若干의窒素를 混合한것이다

眞 空電球에서 瓦斯入電球로 進展한 過去를 가지고 改良進步하야 今日에는 照明界의 王座를 完全히 占領하게 되것이다 그러나 아즉도 改良의 進步는 쉬지안코 前進함을 우리는 볼수가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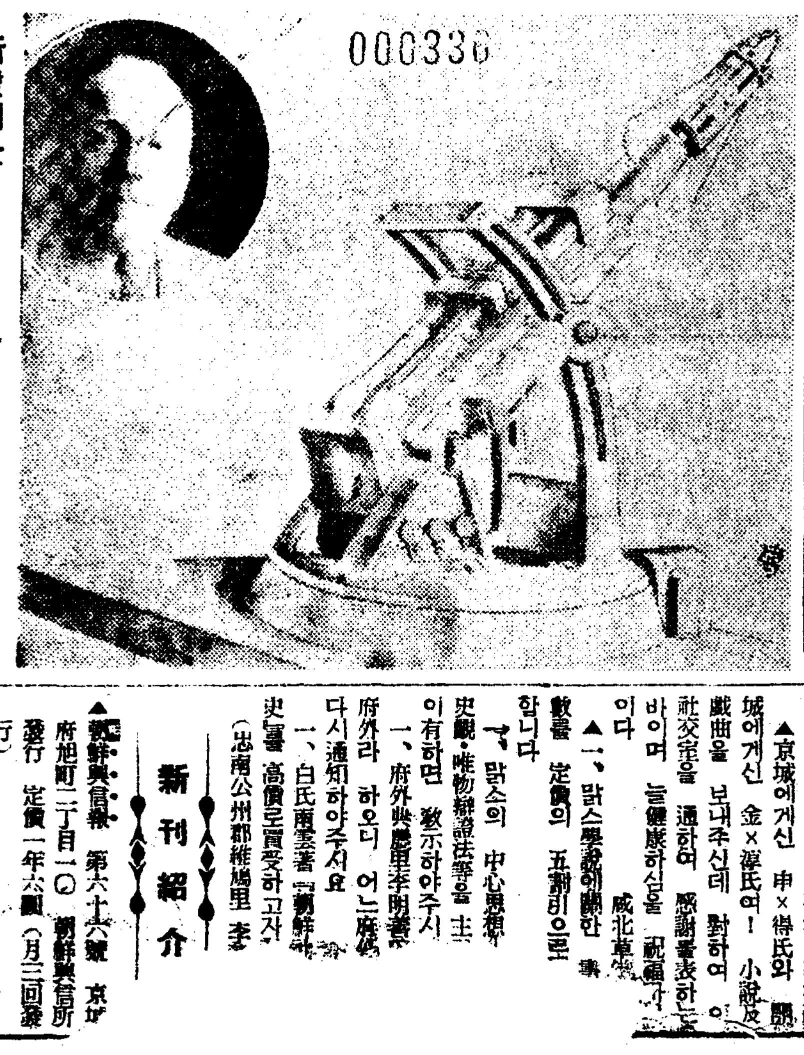
科學雜錄

蘇聯邦의建製計畫

【모스크바發同盟郵信】『쏘베트』政府今年度의 建築計畫은『쏘베트』政府에서 ... 巨費를投資하기로 되여잇다고한다。이巨費는 主로工場住宅、文化的施設에 充當하기로 行되기로 되여잇다。

『모스크바』의 建築計畫은 一個年間의 建築費의 半分以上이되고 第一次五個年計畫에 됴여잇는데 第一次五個年計畫 以來 처음보는 高額이라고한다。建築設計는『쏘베트』聯邦創始以來 것이나 現代『쏘베트』의 最高技術을 動員식혀 作製한것인데 特히 注目할것은 例의鑛山業에 잇서서의『스타하노프』運動의 精神이 새로히 建築計畫에 加味되여잇다는것과 新建築計畫이 主로 重工業의 利益을爲하야 實行되기로 되여잇다。

新發明한郵便物發射砲



佛蘭西에서『로켓트』硏究의權威이인『루이·당브랑』氏는 今番國立科學硏究所의 協力下에서 射程距離大의 自働的 郵便物發射砲를 完成하엿는데 이것은 郵便物을一定한 遠距離에 送達하는것이라고하니 萬若이것이 完全히 實用化된다면 通信界에서는 一大劃時期的 現象이 되리라고한다

(寫眞은 機械와 發明者『루이·당브랑氏』)

閑話數題

—科學隨筆—

❶

鄭樺勝

×

最近 自然科學의進境은 實로 놀라울만하다。特히 理化學方面에잇서서 더욱이러한느김이크다 最近 理學의 發達은 아인슈타인의相對性原理等도 어느듯 古典物理學이라는 合籠의속에 모라너어버리고 量子論아니 不確定性原理니、因果性의 對한疑義 甚至於 法則性의 存立까지도疑心하게쯤되여오고잇다。그影響은 決코 物理學에만限定되여잇지아니하고 哲學에 文學에까지 미치고잇다 이는 自然認識에對한 생각을 變革하라하며 世界觀에 새로운色彩를 띄여주고잇스며文學에 잇서서는 偶然文學論을 持식하기爲한 道具로까지 引用되고잇다。自然은 偶然이 支配한다 必然이라는槪念은 옛날에서나 通用되엿든것이요、世上은偶然이다、不確定이다。이리하야文學圈內에서까지 最近物理學은더할수업는 寵愛를 밧고잇다。생각하면 世上이 바귀엿다。참으로 隔世의 感이 잇다고나할가。

生物學에 잇서서도、相對的終局性等、部分과 全體와의關聯乃至、相互關係等이、論議되여잇는터이다。至今까지의 自然科學은 唯一의硏究方法이라고생각되여와든 分析的方法에依하야 斷片的으로 彪大한事實이 싸여저잇다。單只 事實을 우리는 늣키만한다고 이것을 우리는 眞正한科學이라고는 할수업것다。系統잇는 엇던目標를向하야 그事實을整理하고 綜合하야 비로소 科學으로서의 面目을나타낼수잇슬것이겟다。그리고 眞正한方法論과 認識論업시는 우리는 이어려운課題를 풀수는업것다。이러한指導原理는 우리는哲學에 求하지 안흘수업다。哲學을無視 乃至 蔑視하는自然科學者의 무리들은 單只 事實의蒐集에으로도滿足할수잇는 泰平한 樂天家이안이면 意識的으로 이를 避하려는敗北者에 不過한 道德이겟다。

나는 한個의眞摯한科學者로 終하기에는 나의學的良心이 許하지안니한다。다른 自然科學部門의知識도 어더보랴고 애써야하겟다。이러한努力이單只 그部門에知識을 提供하야줄뿐만이 아니라 그생각하는道程과 硏究動機와 態度等은 直接우리의 硏究途上에잇서서 여러가지暗示만흔示唆를 주고잇다。

讀者室

▲鄭孝子。慶南晉州出生 鄭孝鷁은二十年前 七月二十四日에出家하야 至今까지 行方不明이오니 露西亞或은 中國方面에서 右人을 맛낫이가잇거든 京城府齋洞 洞九八番地에 居住하는 其母에게로 通知하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二月廿五日 鄭孝鷁母

▲李光五氏에게『ㅇㅁ스』에對하야 怪奇항상하는것은 바보가남을 옷기는것 가르나 새로운意見은 또다른世界가됩니다。마하원고 짓고 아름답고 귀여움을培養하여라 훌륭한지식을나키전에 몬저 훌륭한 자식을배(孕)어라 (統營 安 生)

▲本人은彫刻具를 求하오니印材及彫刻刀、고무等의 販賣所를 下敎하여주시오 販賣所에서 直接本人으로 目錄一切을 下送하여주시압 咸南定平邑 裴太鎬

▲二月四日字所載「市內樓下洞河生의게告함 兄의要求하는民法、憲法、民事訴訟法이잇고以外도잇사오니 直接本人에게로 물어주옵소서 二月十六日 野町金在植氏와 二月十八日『所載』의 熱求生에게告함 右兩氏에게서 求하고잇는古貨幣價錄이 本人의게잇사오니 直接通知어주세요 蔚山邑內北亭洞 李

▲京城에게신 申×得氏와 開城에게신 金×淳氏여! 小說及戲曲을 보내주신데 對하여 이社交室을 通하여 感謝를表하는바이며 늘健康하시옵 祝禱하나이다 咸北富寧

▲一、맑스學說에關한 書籍을 定價의 五割引으로 할니다
一、맑스의 中心思想 史觀·唯物辨證法等을 主로한 書籍을 다시 通知하야주서요
一、府外典農里李明善 이有하면 敎示하야주시면 府外라 하오니 어느府外
一、白氏南雲著『朝鮮社會經濟史』를 高價로買受하고자 (忠南公州郡維鳩里 李

新刊紹介

▲朝鮮與信報 第六十六號 京城府旭町二丁目一〇 朝鮮與信所發行 定價一年六圓(月三回發行)

▲普成 第三號 京城府惠化洞一 普成高等普通學校發行 非賣品

▲前線 第二十六號 京城府慶雲洞八八 天道敎靑年同盟本部發行 振替京城一六九四七番 定價一部三十錢

▲月刊ロシヤ 三月號 東京市麴町區丸の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發行 振替東京六五〇八番 定價三十錢 郵稅二錢

▲時代像 三月合號 京城府○動洞一三〇 時代像社 振替京城一二

黃昏 【24】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취직 (五)

『요새는 신문도 신문이지만책자라구는 별로 살만한것이업서요。잡지도 역시 그렇고』하며 경재는 려순의책상우를 몃番 살펴보앗다。

그의 책상은 학생시대의 그것이나 별로 다를것이 업섯다 다만 금시 보다가노흔듯한 전문학교 수험(受驗)준비서가 특히 그의 눈을끌엇다 려순은 아직도 상급학교에들어갈수 면하는 간절한 희망을 버리지안헛다。혹 의외로 그런기회가 차저올것가티도 그는 생각하는것이엇다

해서 그는 갈금 거게대한준비서를 뒤저보군하엿다。

허나 그것이 한공상인것을깨닷는때마다 하욤업는 생각을하며 경재가 주든 책으로 손을 옮기기도하엿다。

『모처럼 빌여주신 책도 다보지못하고……그러나 인제부터 좀 읽어야겟서요』

학교도 다니지못하는대신 학교에서 배우는이상의 지식을어드랴는 려순의 동정을 경재는 꼭 살펴볼수 잇섯다——

『만히 읽으십시요。학교가튼데서는 배울수업는거니까요』

『해도 모를것이 만아서 책을보다가도 어떠케 갑갑한지몰르겟서요。선생님헌테 배우면는잘 알려지는데……』

『뭐 저도 그럿치요。하지만모를데라도 두고두고 읽노라면제절로 알려지는수가 잇서요』

『압흐로도 만히 가르처 주서요。……참 어되로 가실듯하다드니 어떠케되엇서요?』

『뭐 어찌될지 알수업습니다。독일로나 가볼가햇드니 히틀러가한사람이 어찌야단을 하는판이니 갈수업지요。재작년에 동무한사람이 갓는데 백림에서 몰려나서 지금『위인』에 가잇대요』

경재는 담배한대를 부치라다가 석냥도업고 또 녀자의방이고해서 그만두고

『그리구 미국은 멀청한사람도 가기만하면 병신이돼오고 로서아는 갈수업고 간다면 영국이나 어떨른지모르나 그도형편이 되어야지요』

『그맘칩 공부하섯스면 조선선틈 연구못하시겟서요』

『뭐 아무것두 아는거업습니다 그리구 또 아는게잇스면 뭘합니까。대학이니 양행이니 하고와도 빈둥빈둥 노는게 일인데。왜 요전신문에도 나지안헛[illegible]중 일흔인가 박[illegible]한다구……허니까 나가든 벼면서생이야 말할것두 업지요』

『천만예요……』

려순은 그의말이 천연 겸손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햇다。취직하라고하면 아모 문제업스리라는것을 그는 알기때문이다

『선생님일은 저도잘알어요』

하고 려순은 우섯다。

『뭐 아실거라구 잇서야죠』

『사장도 놀 말듣하고 또』

하며 려순은 의미잇는드시 우스며

『현옥씨도…』

『현옥씨요? 현옥씨가 내취직에 무슨 관계 잇서요』

『아니 글세…』

『괜이 려순씨 추측이겟지요。그들이 나를 이러니저러니 말할리유는 하나도업스니까요』

하면서도 경재가 싱글싱글웃는바람에 려순은 제가 섯뿌리 속못차린듯한 생각이나서

『번연히 아시면서 공연히…』

『아니에요。아다니 뭐 알거잇서야지요』

『글세 저도 대강 압니다』

하다가 려순은 말이 지나가지안헛나하고 경재의 동정을 살피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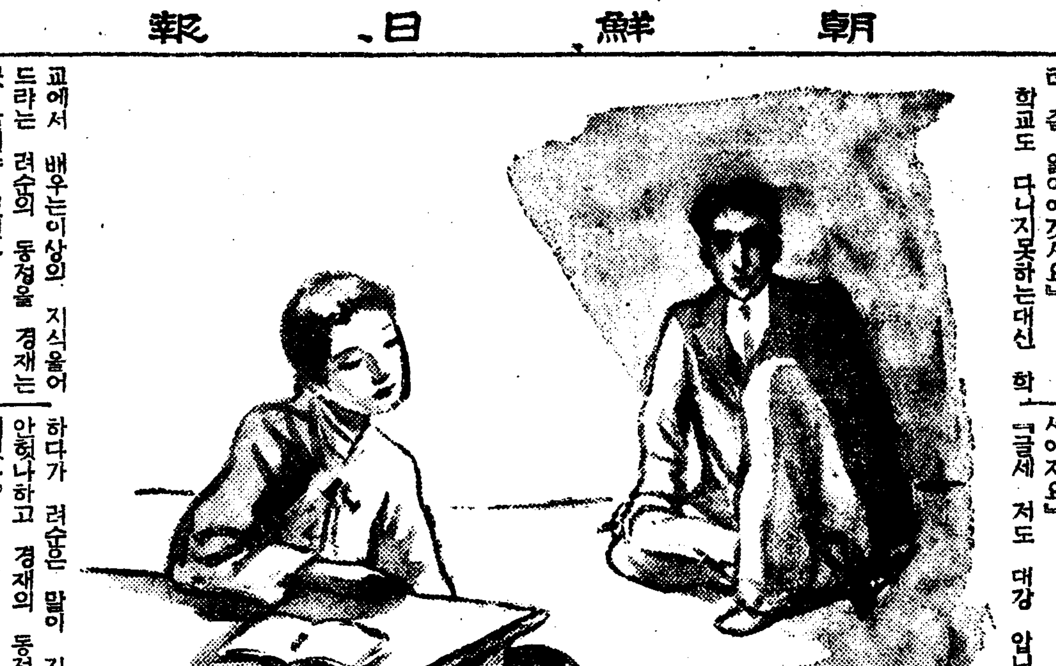
경재는 속으로 깃버하는것갓기도하고 또 별안간 점잔어진것가튼 기색이 자긔의 그말을 꺼리는것갓기도하엿다。그의 진정은 결국 알아낼길이 업섯다

려순은 경재와 현옥의 래력을 자서히는 알지 못한다。그들이 정식으로 약혼한것까지도 알지 못한다。그러나 두사람 다 서루 리해하는사이고 또 압흐로 약혼、또는 결혼까지라도 하게될만한 사이인듯 한것은 그도 어슴프레 눈치차리고잇섯다。

허나 한가지 의문이되는것은 경재의 태도엿다。아모리보아도 사랑하는사람의태도는 아니엇다。

그러나 기우려지기시작한 경재의집은 현옥의아버지로해서 서게되고 그래서 경재의전가족은 현옥을 기꺼시 밧드러올리는것을 려순은 보아왓다。뿐만아니라 안사장이나 현옥이가 경재를 극진히 생각하고잇는동정도 보아왓다。

그럼으로 경재는 결국 현옥에게로 가고말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햇다。그리면서도 그리로가지안흘 경재인것가티도 그는생각하엿다。이것은 오직 려순의 헛감(虛感)만이 늣길수잇는 예감(豫感)이 아닐까?



演藝

☆曆☆ 二月廿九日(土) 二月[illegible]小 (七日) 辛巳·金·柳·平 ●祭祀에宜함 ●驚蟄六日(第十三日) ●春分十八日(第二十一日)

朝鮮映畫十五年

初創期에서現在까지 走馬燈에비친記憶 ⑦

白夜生

안종화씨는 연극영화를 하는동안에 사생활까지파괴되엿다 그의부인은 가난한안씨에게서떠낫다 그래서 지금은 그의 어머님과가티 외로운 생애를하고잇다

그러면 안씨는 얼마나 신산한 세월을보냇는가를알수잇다 그러나안씨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심오한 그림자가 업는것이 이상한일이다 그는화려한장면을 조화해서 어느때는 현실에서볼수업는것을꾸며내는때가잇다 그리고 화면의련락을무시하는것갓다 그것은『은하에흐르는정열』에서보히는바다 그럿치만 안씨가 영화를제작할때에 이러타저러타 간섭하는사람이업스면 조흔것을 내노흘이라고 나는본다 그러나 그는 시야(視野)를 넓게잡지안흐면——하는 생각을견저할수박게업다

◇

『임자업는 나룻배』는 라운규씨 주연으로 문예봉조연으로 리규환(李圭煥)씨가 감독한작품이다 이것이 경도의 영화인들에게 보혀서 호평을 바덧다지만 리규환씨의 처녀작으로서 큰실패가업는작품이다

리씨는 이영화를 맨드러노코 쓰라린 면해를 지내다가『바다여말하라』와『그뒤의리도령』을제작하고 지금은 대구(大邱)의령남영화사의 첫작품을 촬영한다고 서울와서 경성촬영소의량해를어더 거기서 전속인 문예봉을데리고갓다

그런데 리씨는 경도신흥키네마에서 조감독으로잇섯스나 영목중길(鈴木重吉)감독의 미테서 곤신노력한이인데 이리씨는 열이잇고 또는 섬칠이잇는이이지만 너무도 굴근선(線)을 찾고 섬세한것을 버리는늣김이잇다

리씨의 과거생애를보아서 인간의 여러가지 복잡다단한 사물을 잘표현할수잇스련만 리씨는 큰것에서 큰것을 발견하라는데서 적은데서 큰것을발견할수잇슬것인것을 생각지안는듯한 늣김이엇다

그러나 어느곳에서는 재래의 영화에서 볼수업는 리씨만맛다 큰것을 보여주는 때가잇스나 그것은 아모런인과 관계가업는장면에서 흔이볼수잇는때가잇다

그러나『임자업는나룻배』와『바다여말하라』에서보혀 글바로는 리씨는 압날이 만히보히는이다 그런데 씨의인물에 대한것보담 다른것을 말하는것이 흥미가잇슬것이다

×

『임자업는나룻배』가 리규환씨 감독、라운규씨주연인데 영화에 경헌이업는 자본주에다가 일본내지에도 장연시히고자한 목적도잇섯고 하엿스나 여러가지 따란을면치못한 모양이다 여기에 고등을겪근 리규환씨는 몹시고궁한생활을하다가『바다여말하라』를제작하자 흥행상으로 손해를보아 또우울한날을 보내게되엿다 그러나 자긔의 고향인 대구에서 상영을하엿슬때 철이철이라 극한이엿고 또다르능행에 눌리여 그마실패를 보앗스나 금번에 다시대구에서 재상영을하엿슬때 공전의 대성황을일웟다한다 여기서 관객을 무엇을가지고 표준하겟는나 가 문제다

의『바다여말하라』를제작한시긔는 십이월이라는 제일추운때엿고더구나 해금파한한바다 물에 빠지고 헤여치는중에서 려운장면이잇서서 출연자들의 고심이 대단햇든모양으로 너무도 빨리모라친 관계도잇스려니와 극한으로 그틈이 애초에예산햇든 장면이빠지게되엇스나『서월영、심영』과라 명문의 연극가를마한데가잇섯다

『그뒤에 리도령』에 실패한리씨는 자금제작중인영화를 어떠한 걸작을맨들지 주목되는바다

△

그런데 분도(分島)씨의 경영으로 경성촬영소가생기자 리필우(李弼雨)씨와 송지회로 토ー키ー 제작에까지 이르럿다

맨처음 이천여원이가 얼마를드려 전과자(前科者)를 맨드는것이시초로 대도전、홍길동전등후성영화를 제작하야 흥행이조하지자 토ー키ー기계를 구입하야 토ー키ー춘향전을 제작하엿스니 감독을 리명우씨가하엿고 화면구성을 리긔세(李基世)씨、감색을 리구영(李龜永)씨등 처음으로 토ー키ー를제작하야 흥행계에 [illegible]화배금소[illegible]하든 리창용(李創用)씨가 봉회적 조선영화 배급외기관을 부치고나서 이춘향전의흥행권을 사가지고 효과를 보자『아리랑고개』를 또 배급하게되엿다

訂正 六回分 第一行以下六十行은 맛당이 挿入되얏슬것[illegible]에訂正함

罪와罰

◇…市內서封切

요셉·폰·스탄바의監督과 페타、로레의主演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不朽名著 罪와罰을 映畫化하얏다함은 旣報한바와 갓거니와 近日中 市內團成社에서 上映키로 되얏다。

라스콜니코프는 天才的大學生으로 怪異한 怪癖으로 貧困한 生活을 하야간다。그런中不幸한 女性 쏘니아와 알게되얏다。그의누의 아소로니아는 돈으로해서 마음에 맛당치 안한 一官吏와 結婚케되자 그누의를 救코자 典當舖의 老婆를 죽이고 돈을빼앗엇다。그는 良心의 苦悶을 참지못하야 쏘니아에게모든것을 告白한다。쏘니아는 自首를 勸하는데 처음에 反對하든 그도 究竟 쏘니아의 사랑에 同化되야 自首하고말앗다。그는 시베리아로 流刑을 當한다。쏘니아도 그를 딸아 시베리아로 向한다。

發聲映畫小考

—特히올·토ー키에關하야— (一)

林唯

映畫藝術의發生을 可能케한技術은 運動의機械的再現으로서의 寫眞術이엿다。

一般的인 所謂外界를 光學的機械에依하야 機械的으로正確히 再現하는寫眞에서부터 發展한것이다

即 알기쉽게말하면『活動寫眞』은 그것이 움즉이는點에서 새로운맛이잇섯든것이다。

寫眞으로부터 活動寫眞에로飛躍的進展을可能케한것은 하나의 새로운 技術이며 따라서方法이라할수잇다。

그러므로 無聲映畫로부터 發聲映畫에로 發展에可能케한것도 하나의새로운技術임에틀님업다。새로운技術은 새로운藝術을生産한것이다。

우리가 寫眞으로부터 映畫發展에對하야 飛躍的進展을 認定하는바와 가티 無聲映畫로부터 發聲映畫에로 進展도勿論 飛躍的임에 틀님업는것이다。

그러나 寫眞藝術과 映畫藝術사이에 本質的差異가 存在한다는것을 認定하는바와가티 映畫藝術과 藝術로서의 發聲映畫사이에도 또한 本質的差異를 認定하지안어서는 안될것이다。

寫眞으로부터 映畫에 이르기까지에는 勿論 機械的인 視覺藝術이 하나의 새로운 附段을獲得한것이다。

그러므로 無聲映畫로부터 發聲映畫에 이르기까지에도 機械的描寫藝術이 또한 새로운 附段을 獲得하엿다고 아니할수업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注意할點은 다른것이아니라 寫眞에서 映畫에로 進展이 視覺的領域에 잇서서 한階段을 獲得하엿다고 할것가트면 映畫에서 發聲映畫에로 進展은 視覺的領域을 超超하야 聽覺的領域에까지 機械的再現의 技術이 進展되엿다는點이다。

前者에 잇서서 進展의 結果를 階段의 獲得이라 할것가트면後者의 進展은 새로운世界를 獲得하엿다고도 할수잇슬것이다。

發聲映畫는 映畫技術우에다 音響의同時的在現의 技術的結合에서 生産된것이다。한거름더나가 알기쉽게말하자면 物體運動의機械及寫眞的再現의技術인映畫에 그物體運動에依하야 發聲되는音響을 機械的으로 同時에再現하는 技術的結合이 即發聲映畫라는것이다。

運動及音響의再現的技術은勿論 以前부터存在하여잇섯든것이다。그러나 發聲映畫發生의 根本的인것은 即映畫와音響의同時化所謂『싱크로니제슌』에 잇는것이다

그럼으로 外界의視覺的再現뿐만아니고 同時에聽覺的으로도再現함이 技術的으로 可能하게된것이다。

即換言하면 視覺的世界의時間的變化가 現實的再現이可能性우에 聽覺이無限히 豐富한世界의 再現的可能性이 結合되엿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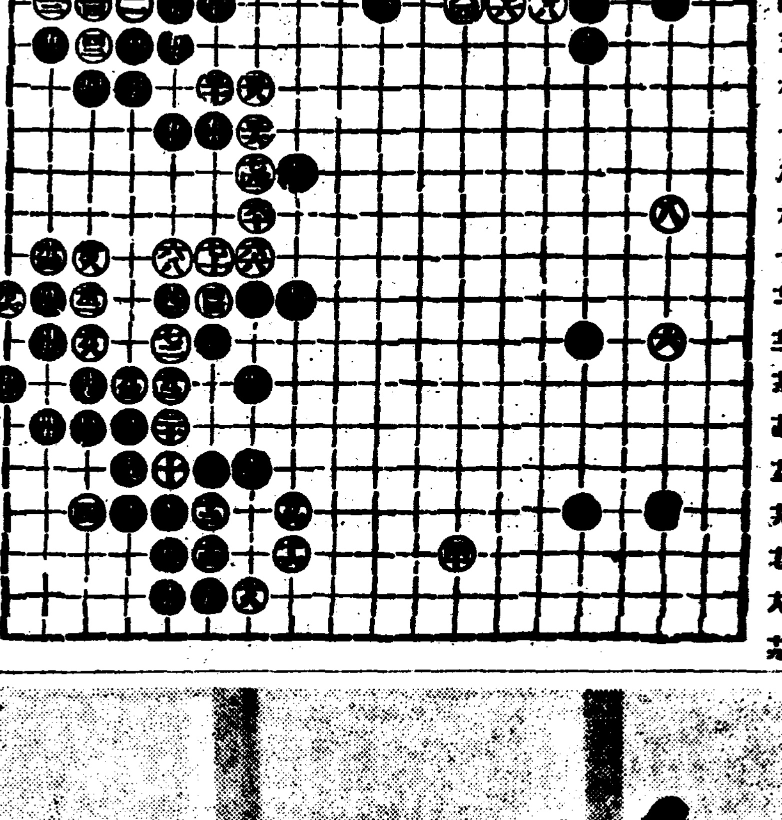
活動寫眞과가티 單只 機械的再現技術노서 끄처잇는것이다。그것은 勿論 純技術的事實이며 따라서 藝術以前에 속하는問題인것이다。그러므로 發聲映畫는 아즉 映畫가 活動寫眞으로잇든 그時代와가티 거진無藝術的에끄처잇다고아니할수업다。

그러나 映畫가 沈默中에서視覺的再現을高尙한技術로부터 漸漸發展하야 그自身의特殊한內容과形式을가지고 創造藝術에까지進步한바와가티 發聲映畫도 再現의技術로부터 豐富한內容과 形式을가지고 藝術에까지 發展하지못하리라고는 斷言치못할것이다。

圍碁對局譜 =5=

本社主催

●	寅의十一
○	寅의十
●	卯의十二
○	辰의十
●	辰의十一
○	卯의十
●	丑의十一
○	辰의十二
●	丑의八
○	寅의八
●	辰의三
○	庚의四
●	己의四
○	己의三
●	戊의四
○	辛의三



◆觀戰奇談 黑白이 互相間에 保守維護과 秘密待機는 未來의 攻取侵略의 紛爭을胚胎한感이 有하나 傍觀者의 淺慮愚見으로는 窺底히容喙키 難하니 同好人士의 高見에 質코저하노라

佛映畫界의三名物

眞摯하 드라마티스트 『미모자館』監督페ー데君

『미모자』館을 본 엇던사람이 말하기를 그作品의 最後에 紙幣를 흐러버리는場面은『페ー데』로서는 뜻하지아니한 큰失手이라고하엿다 그러니까 다른 한사람은 말하기를 그런것이아니다『페ー데』는 일부러 그場面을 보히기위해서 映畫를 製作한것이아니냐하엿다。그러나 우리가『페ー데』의 映畫를볼때 그最後의場面만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하는것은『페ー데』의 眞價를 理解하지못한말이다。

『페ー데』는 眞摯한『드라마티스트』이다 劇作家的才能이 豐富한사람이다 그럼으로 그는 무엇보담도 우선『시나리오』의構成에잇서서 所謂 劇的『시츄에ー슌』을 極度로 貴重視한다。

다시말하면 劇的인『카타스트로프』가 미리想定되여서 그想定下에 모든 劇的要因이 周到하게 計畫되고 整然히 配列된다 그래서 用意되여은 모든 劇的要因은 서로서로 交互作用을하다가 映畫의終末에 나타나는『카타스트로프』에 이르러서는 壯大한『피나아레』의 一曲을奏하는것이다。勿論 이것이 恒常 그의 映畫의『클라이막스』이다。

이『피나아레』에 이르러 映畫의緊張『페ー데』의 緊張이 一時에 解體된다 긴緊張의뒤에오는 疲困한 嘆息과 不快한 哀愁이『피나아레』의旋律을 짜내다 그러나 우리들觀察者의緊張은 이『피나아레』를 듣는바同時에 다시緊張의度가 더하야진다 이終末의極度로 疲困한 哀愁에 우리들은 識實히 여러가지의말을 듣는다 即이一瞬에 벌서다보고지난 여[illegible]個의劇의이마ー쥬가 全然새로운 命脈을엇고 우리들의眼前에 蘇生하여온다 그리하야 그곳에서 딱 作者『페ー데』의어둠에 마주치는 셈이되다

그의映畫의『카타스트로프』의劇的트릭이 異常한『스토ー리』를 緊張하게하는 裝飾이 아닌것은以上과가다『헤레ー즈·라캉』과 라스느도『外人部隊』의그것도 亦是되는대로의 極히 疲困한 沈默이다 陰鬱하고 救助할수업는 嘆息이다 그러나 이곳에 作者의脉搏이 들린다 적지안케 뽑내脉搏이……白玉一瑕셀이다 그러나 五十되는사나히가 이얼마나 젊어잇는가?

海外映畫消息

『蘇聯篇』

▲모스크바映畫工場에서 製作되는『太陽을차저서』는 水原에서 춤을추고자하는 太陽이 몸고기들과 놀고 잇슬때 不意에 도 바다의怪物이 나타나서 바다미트로 太陽을 빼앗어 가버리엇다。極地는 우조 어둡게되얏다。獵人잇챠가 太陽을 차즈려 나서서冒險에冒險을 거듭한後 怪物을죽이고겨오 太陽을 救해 내엇다。極地에도 봄이 와서 꼿이피고 바다의 고기며 김성들이 춤을춘다 축치族의 傳說을 베、포렘키나女史가 脚色한것으로오리가오다라ー에와女史監督。잇챠는아靑年의 사내아히 太陽은 여덜살의 純眞한 게집아이로맨든것

▲一九三七年푸시킨死後百年祭는 藝術界뿐이 아니라 全國을 들어 盛大히 準備하고 잇는바 映畫界에서 記念으로 準備한作品은 다음과가다。

『驛使푸쉬킨』 脚色은유·토우이니야노프와 유·옥스마아이요監督은 나로뎃키다。푸쉬킨의思想과 詩가 燎原의勢와가치帝政露西亞、農奴의露西亞로 퍼지어가는 一方으로 그詩人의 運命은 漸漸 漂泊으로 떨어진다

메드로그라드에서는『赤銅의騎士』의 레ー마로 洪水中詩人의 滅亡을 듯고 다시混亂하다

『알조롬의旅行』일리야·로벨그의 監督이다。푸쉬킨의 티푸리스旅行으로부터 始作되는데 間諜 푸조ー린의 追跡을 가지고 舞臺는 戰線으로 옴기어간다。戰線에 잇서 詩人과 十二月黨員들의 邂逅。詩人의 脫走運動의失敗。알조롬의 陷落。파스케이취는 푸쉬킨에게 勝利의 詩書付托하게된다。壯麗한 祝宴에 波瀾이 일어난다。니콜라이一世의命令아래 一兵卒로 떨어진 푸루체프는 파스케취의 命令으로 다시 죽엄의 길을 나간다。그는 詩人과 訣別한다。그는 죽는다。푸쉬킨이 메드로그라드로 돌아온데서 끗난다。

『도우브롭스키』이 바놉스키의監督

以上三本은 렌필름에서 製作하는것이요 모스필름에서는 엘·로무로하야금 푸쉬킨의著名作『스페ー드女王』을 長篇音響畫로 製作케하고 또監督 세라·모키女史로하야금 漁師와小魚의이야기를彩色人形漫畫로 製作할 豫定이라고한다

▲第七回全聯邦 映畫大會는 만흔收穫을 엇고 閉會되엇다。모스코의『中央映畫의집』을大會場으로 하고 中央映畫局 長 베·슈밋스키氏를 議長으로하야 一九三六年度 映畫製作 計畫을 討議한結果 具體的 計畫을 確立하기에 이르렷다고한다

▲(쏘유스제꼬필림)專門技術映畫製作所) 모스코工場에서는敎材映畫『알비니옹』이完成되얏다。그것은 氷壁으로나 바위로 올라가는 技術等을 가르치려는것이다

▲『고스킨포름、굴ー지(쿨자國映)에서는 太古의 武士道를 그린『카제리』를 製作하얏다。그것은 코가사스가 나흔 名詩人 쇼타·루스라베리(十二世紀)의詩『虎皮를입은騎士』로부터 카제리城의 包圍와 그城에 監禁된 美人네스탄을라리엘及아우타치의두武士가 救出하는光景을 取扱한 것이다

▲키에프大演習의映畫가完成되야 公開되얏다。소유스키노프로니카及쏘유스추프필림의 共同作品이다。그作名은『一九三五年키에프機動演習』으로 八卷이다。키에프市를 中心으로 우크라이나平野에서 一九三五年 九月十五日로부터 十七日까지 赤軍이靑赤軍으로 난호이어 大演習을 한때의光景。三十六名의 撮影技師가 空中과 地上으로부터 백이것。

페ー데가監督한『미모자館』의한場面

라디오

二十八日(金曜)

◇午後六時 童話 "우애깁흔공주" 金奉仁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漢語』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 (第二回)『民謠童謠篇』(二) 崔南善

◇同八時 室內樂(絃樂四重奏) 一、아단테…뒤터스드르프作曲 二、리ー르…빠하作曲 三、안단테 칸타빌레…하이[illegible]우스키作曲 四、야상곡(夜曲)…하이든作曲 五、[illegible]隊行進曲…슈ー버트作曲 東京絃樂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 永口幸麿 第二빠이올린 靑川仙三 비올라 森乙 첼로 龜井愷介

◇同八時三〇分 流州念佛 一、海州念佛 二、자진念佛 三、방아타령 四、月下懷抱 五、노래가락 六、창부타령 張一朶紅

◇同九時 演劇野談『金總宗(一)』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庾秋岡

第一放送

◇午後六時 기타ー獨奏와二重奏

◇同七時三〇分(東) 趣味講座

◇八時 (東) 室內樂

◇同八時三〇分(東) 義太夫

◇同九時(大) 大衆物語

二十九日【土曜】

◇午後〇時〇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令 四、개고리打令 李素香 卞眞紅

◇同三時一五分 衛生講座『人體와寄生虫』 李炳南

◇同六時 童謠獨唱 一、고요한 강가 二、자장가 其一 三、자장가 其二 四、순이무덤 五、네눈방울 六、서울구경 七、물새발자욱 朴哲姬 作曲及指揮 柳基興 伴奏 綠星童謠會管絃團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女子專門學校卒業生에게『希望』을 뭇는座談會 司會 黃信德 出席者 京城保育 崔善愛 中央保育 李福童 女子商業 黃善汝 梨專文科 林敬愛 同 家事 方仁道 同 保育 崔徵涉 同 音樂 崔貞姬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길軍樂 洪笑月

◇同九時 演讀古談『金總宗(二)』 庾秋岡

三月一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映畫이야기 成東鎬

◇同一時二〇分(東) 吹奏樂 一、行進曲『祝賀』 二、幻想曲『滿洲의回想』 三、行進曲『祝賀』 陸軍戶山學校軍樂隊作曲 陸軍戶山學校軍樂隊

◇同六時 피아노獨奏 一、即興幻想曲……쇼팡作曲 二、練習曲……作品二五의九 三、헝가리舞曲第五……브람스作曲 四、화려한大圓舞曲……쇼팡作曲 作品十八 金炯佳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記念講演 滿洲國建國記念日을當하야 全聖旭

◇同七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가)진양조(나)중모리(다)자진모리 二、倂唱(가)短歌滄浪歌(나)唱劇調赤壁歌 姜太弘 鼓手 韓成俊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喜劇『장임打鈴』全一景(脚色)林奉[illegible] 配役 朴氏…崔庚善 客甲…李流星 客乙…吉七本 客丙…金錦英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效果 朴斗星

◇同八時四〇分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유산가 三、달거리 李飛鳳 柳開東

◇同九時 宗敎音樂 一、合唱(가) 내主를가까이…윌손作曲 (나) 致賀하세…여셀作曲 二、獨唱『아베마리아』…슈버트作曲(李觀甲) 三、合唱『天主를讚頌하라』…구ー노作曲 四、獨唱『새예루살렘』…아담스作曲(李仁範) 五、合唱『主를讚揚하라』…아다ー드作曲 六、피아노獨奏『즉흥곡』…라흐마니노프作曲 [illegible]門內聖堂聖歌隊 指揮 金亨俊 피아노伴奏 金信福

◇午後一〇時 朝鮮交換放送 朝鮮으로부터 雅樂—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 一、萬年長歡之曲(歌樂)(가)界面三數大葉 (나)言樂 (다)編樂 二、壽天靈日之曲(細樂)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雅樂師長 咸和鎭

第一放送

◇正午(東) 記念講演

◇午後一時一〇分(東) 琵琶

◇同二時一〇分(東) 라디오[illegible]

◇同六時(大) 라디오講座

◇同七時三〇分(滿) 滿洲音樂

◇同八時二〇分(東) [illegible]

◇同八時五〇分(東) 사랑의法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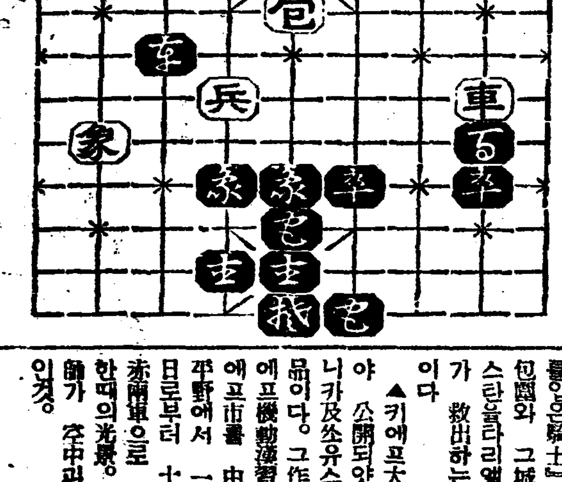
將棋名手對局譜 (八)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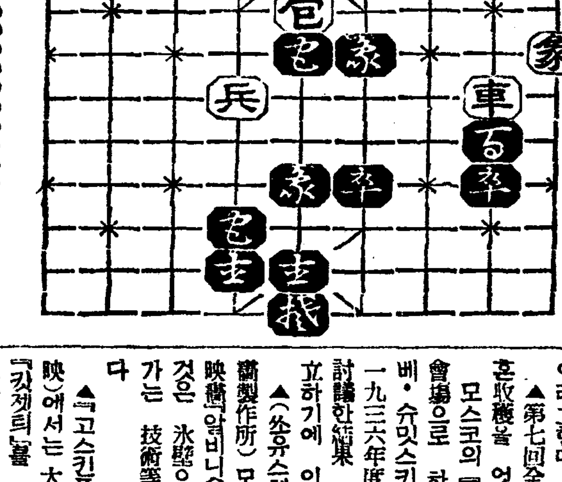
手先漢 李在鳳 對 金漢榮

◀第十八手圖▶

己二漢—戊一 / 辛一[illegible]—庚一打包 呼將 / 己三士—己二 / 戊[illegible]—戊六 / 甲[illegible]—丙一 / 己八[illegible]—丁十 / 丙一[illegible]—戊[illegible] / 庚一[illegible]—庚[illegible] / 戊[illegible]—辛六 / 丁[illegible]—己[illegible]



◀第十七手圖▶



二月廿八日[illegible] 每日二回 [illegible]

◆콜럼비아社超特作映畫 巨匠요셉·폰·스탄벅監督 文豪떠스토이에푸스키ー原作 罪와罰 페타로레이 主演 안나자 主演

◆콜럼비아社特作映畫 로서光榮잇는神品이誕生되다! 名作!그리고다시映畫藝術의勝利다!

珍優나포레온

◆P·C·L·超特作映畫 輕快한짜스에실니는淸新한[illegible] 成瀨巳喜男監督作 千葉早智子主演 妻よ薔薇のやうに 昨年度優秀映畫第一位當選映畫 萬丈氣焰을吐하고잇는日本映畫의最高作

(火曜封切) 따이야몬드、짐 陸非常線、わたしがお嫁になら

全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二月二十七日밤부터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 上映日曜祭日은晝夜二回 낫一時밤七時十五分始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 探偵劇 正邪의兄弟 主演 파ー도라이데르 名作으로서눈물의名篇!!

◇J·O·스타지오日本빅타ー! 發聲版 歌劇 百萬人의合唱 監督 富岡敦雄氏 빅타ー專屬歌手總出演

◇京都撮影所超特作品 大活劇 虎狼의巷 監督 井手錦光之助氏 活劇王 高田稔氏

▲豫告…朝鮮映畫 薔花紅蓮傳…三月一日부터晝夜六日間

▲乞期待…太平洋攻防戰…

映畫演劇 桃花劇場

左記の如く變更に成り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御願致します。

二月二十六日より三月三日まで 上映時間表

噫 薄情 二·四五 六·四〇 / 新婚三壘打 三·一〇 七·二三 / 雪之丞變化 解決篇 三·五一 八·〇五

一、蒲田超ナンセンス映畫 △噫 薄情 山口勇、小倉繁、瀧川玲子

二、蒲田超ナンセンス映畫 △新婚三壘打 小倉繁、出雲八重子

連續一ケ年波瀾曲折の物語り愈々解決!! △雪之丞變化解決篇 衣笠貞之助監督作品 林長二郎主演

三月四日より封切の二大待望篇 △花嫁くらべ △め組の喧嘩

洋劃專門 浪花館

二月二十八日ヨリ三月三日迄 名畫摘ひの御家族週間 階下席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プログラム

ロイドが日本語でペラペラとまくしたてヤンヤと笑はせます!! 言ふ事爲すことお腹がデングリかへる面白さ!! パラマウント提供P·C·L專屬スター一擧の總出演誰にもわかる日本語トーキー

名喜劇 ロイドの足が第一 ハロルド·ロイド 主演 クライド·ブラックマン 監督

RKO社超特作 ウイーダ女史原作 世界的名小說の映畫化 畵家と愛犬の淚の物語 名篇フランダースの犬 天才少年 少年名優フランキー·トマス 名犬ライトニング號主演 監督エドワード·スローマン

時代劇 風流上州男 大都映畫特作 益田晴夫監督 海江田譲二·月宮乙女主演

安くて面白い 漫畫·パラマウント特作發聲漫畫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三四番

安岳初有의盛事 高普期成會發會

各界名士參列下에盛大히擧行 各部委員選定散會

【安岳】 긔보=황해도 안악고등보통학교를 긔성하기위하야 벌서부터 발긔인회를 조직하고 발긔인회에서 신안의 준비위원을 선거하야 일체준비를 모다 마치고 저간 열반준비에 몰두하더니 지난이십륙일오후한시에 안악공회당에서 긔성회발회식을 거행하엿는데 정각전부터 군내 각처유지인사 累가리 모여드는 로 인산인해를 일우어 전에업는 대성황중에 안악면긔회 음악부 관현악으로개회하고 의장리시복(李始馥)씨사회를 비롯하야 정남연(丁南淵)씨의 규측랑독과 임원선정이 잇슨후 원정표(元楨杓)씨의 의연금회자 발표가 잇서서 일반의긔대를 촉감흥주엇고 본사 사장방응모(本社長方應謨)씨의 축사를 본사주필서춘(徐椿)선생이 대독하여 축감을주엇스며 평양에서는 김성업(金性業)씨의축사와 본군군수원종긔씨의 축전축문의 랑독이잇슨후 대성황리에 종막을 마치엇는데 금번이집회가 안악에서는 개벽이래 처성황이라하며 선거된임원은 아래와갓다

議長李始馥 副會長金秉寬 書記張熙文 安益三 會計張興致 許弘謨 常務執行委員李泰學 元楨杓 許弘謨 丁一善 金庸壯 丁南淵 金善亮 張熙文 金元亮 楊明恒 安益三 田承根 姜

周錫 鄭弘涉 白南激 宋泰璘 金在濬 鄭容植 李璇球 林昌益 李始馥 金秉寬 大遠面 金善直 文山面張斗華 龍門面 宋興植 安谷面林貞憲 西河面 姜能熙 大杏面元順路 銀紅面 金應石 龍順面 文龍 金潤亮 金庸雨 金庸禧 元炳謨 崔昌林 元楨 安岳郡守 警長 各面長

◇……安岳高普期成會發會式 (上)超滿員일운 發會式場 (下)本社方社長의 祝辭를代讀하는 本社主筆 徐椿氏

六萬餘圓豫算으로 平澤普校改築計畫

平澤有志積極活動

【平澤】 평택공립보통학교(平澤公立普通學校)는 대정륙년봄에 신축하여 현재 륙백여명 아동을 수용하고잇는대 이십여년이나되는 구옥일뿐아니라 지대를 충분히 못한관계로 한편교실이 다쓰러지게되여 학부형측에는 늘 신축문제를 거듭토의 하여왓스나 실현을 못보고오던중 지방발전됨을따라 매년입학지원아동이 모집자의 삼사배식 초과됨에 감하야 학부형측가부들은 매일 토의한결과 지난 이월십팔일에 평택면사무소에서 면협의원과타협하여신축긔성회(期成會)를조직하고 맹렬활동을 하여오던중 지난이월 이십륙일 오후한시에 평택공회당(平澤公會堂)에서 면내유지 오십사명을 초대하여다 협하자 누구나 이구동성으로아동의장내를위하여 하로밧비 개축증급(改築增級)식히자는 의견이 일치되여 그경비는 평택면민의 호세등급으로하되 일등일천오백원부터 이십오등까지 이십오원으로 일백팔호에다 계산하면 삼만삼백구십원이되나 이층건물로 오백륙평을 다시신축하자면 륙만칠백 팔십원이됨으로 부족되는 삼만여원은 도의 보조를바다 금년사월부터 공사를 하리라하며 전부일천이백명아동을 수용할대교사가 된다면 입학아동외 여간한 행복이아니리라한다 당일피선된 상임위원(常任委員)씨명은 다음과갓다

成周漢 安鋼浩 李敏恒 安鋼 申彝浩 李河善

私財四百餘圓을 商工會에提供

由子淵氏特志

【興南】 본적을 산동성등주부복산현(山東省登州府福山縣)에두고 거금삼십사년전에 조선에 건너와 현재 흥남읍천긔리(興南邑天機里)에서 중화료리(中華料理)를 경영하고잇는 유자연(由子淵)씨 …조흔호한래도와 …중국인간에서는 물론 …사이에도 칭찬이자자한 …에도 그중은독지가 …지난삼일에 전여회원을 …흥남읍회상공협회가 생기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회원 …초와 무-든설비 사백여원을 자진부담하엿다하야 일반중국인간에 큰충동을 주고잇다한다

第三次共靑事件 今月中送局無望

【咸興】 작년四월일일을 긔하야 함남경찰부와 함흥서의 련합대활동으로 함주군내에 농촌청년 일백오십여명을 대탁검거하여세상의간담을 서늘케하든 제삼차공청(第三次共靑)사건은 그동안 이해에난오아 륙십여명이나 남겨잇서 취조가 끗나고 루차검사국에 송치하리라고 전하여오든바 검사국의관계로 또다시이월중으로는 송국될 희망이 업다고하며 삼월초에는어김업시송국되리라는데구속으로송국한피의자는사십명내외가되리라고한다

新興校講堂竣工

【全州】 삼만여원을드려 작년(昨年)부터 기공중이든 전주신흥학교강당은 저간공사가완료되엿슴으로 오는 삼월삼일에 강당겸체육관(講堂兼體育館)락성식을거행하리라고한다

官公署銀行員等을相對로 十數萬圓을橫領

魔의"福泉社"社長田中稔被逮

江陵初有大詐欺事件

【江陵】 각관공서 은행 도립병원직원과 기타조부녀자등을 상대로 소위복천사리식회(福泉社利殖會)라는 유령회사를 조직하야가지고 십이만여원을 사긔횡령한 사실이 강릉검사국 정원검사(井原檢事)의손에 발각되어 목하엄중한 취조를밧고 잇는사실이잇다 이제그내용을 가장신빙할만한 곳으로서 탐지한바에의하면 본적을 일본내지 화가산현나하군상야촌(和歌山縣那賀郡上野村)에두고 현주를 강원도강릉군강릉읍금정(江陵邑錦町)에둔 전중염(田中稔)이라는자인대 일즉이 조선내에서 공립보통학교장의 직을가저 그성적등도월등하야 훈팔등까지 타가지고며 해전은금도 붓고하야 관직을사면하고 소화팔년 십일월경 현주지에와서 소위복천사리식회(福泉社利殖會)라는간판을걸고 중왕서의중요인물들에게 자긔의 중왕경력을밋기삼아가지고 일구백원의출자를하면 매월륙、칠부의리자를부저준다고하야 그는그바든돈을가지고 대판주식취인소 취인원모를 중개에느어주식과 미두에 손을대여 이래 삼년동안내려와섯는데 주식과 미두는 매양손실을 보앗고 단지 금년일월에만 다소간리익을 보앗슬뿐으로 신가입자를 엇지못하면출자한자들에게 매월 륙、칠부의 리자 수천원을 계속하야 내어줄수업스니 그는 읍내에서만회원을 모집하든것을 점차 군부에까지 손을뻐치어 드디어 리식회가입금이란 명목으로 바든돈이 륙칭 십이만원에 달하게되엇다한다 전긔와가티 당초에 …주마하든 리자를 신사들에게서바든 액을 도저히 지불할수업게되자 사부내지 삼부로 … 여긔에 … 잇는 자들은 … 하게되어 원체 그돈이 미두와 주식으로 손실을 바든 터이라서 덜무니엇는 돈을 내줄수 업슴으로 여긔서부터 일반가입자들은 외아를 품게가되어 소문이떠돌지게되자 정원검사는 그를강제처분으로 구속하야 주밀한취조를 한결과 전긔와가튼 사긔횡령의사실이탄로되엇는데 그피해자들은 수로백십여명에달하며 금액으로는 실로 십이만여원에달한다는바 그피해자계급을 볼것가트면 관공서의 갑부급 은행원 회사중역 공직자 촌부녀자들로서 한사람으로 가장만히가입한액수는 일만이천원이고 최하가 오십원이라한다 특히 이번이일로인하야 가산을 탕진하게된 불상한자도 만치만 특히 가엽슨것은 강릉어채시장에서 배추와 무등속을 수변존 발을 엄겨가면서 푼푼히 모혼 돈 오십원을 갓다가맥기고 불과 일원팔십전여의 리자를 바들뿐으로 몽땅본전을 이러버린 리씨라는 중늘근이는 거지십신 하다십히 애통하는양은 실로목불인견이엇다하며 상처에 모일 본내지인은 싼빗을 어뎌가지고 여긔에너허 중간에서 리자를밥겨먹으려다가 가엽게도 가산을 탕진하고 울며불며 검사에게 살여달라는 애원을 하는등 가즌 희비극이 검사국내에 연출되엿는데 원체사건관계자가 백수십명이여서 그긔록만도 수천매에 달할모양으로 이일이 이러케까지 광범위로 피해가 널여진것은 소위강릉읍내 모유력자라는 자들이 그내용도 자서히 아지못하고 경거맹동적행동을 감행하자 일반은 무의식적으로 피동되여 『아모게도 가입하얏스니 안심된다』는농의 막연한 행동이 이런회단을 당하게되것이라하야 그들의 도의상책임문제가 을의되는터이라하며 그에견아측이 만여원의 잔금이잇슴이 발각되엇슴으로 이것을가지고 적당히 배당을하려고 목하 세밀한 분배사무도 개시되엿다는데 여하튼 강릉유사이래 대사긔사건으로 일반에게비상한 충동을 주엇다하며 불원간 공판에 회부되리라한다

◇寫眞……犯人田中稔

閨房侵入한男子 매맞고病臥死亡

─加害者被檢送局─

【牙山】 지난이월십오일밤에 충남아산군 염티면 방현리(牙山郡鹽峙面方峴里) 황모(黃某)의 처 김성녀(金姓女假名)(一七)가 혼자 자는방에 동리 사는 양재문(梁在文)(二九)이가 침입 하여 폭행을 하랴함으로 김성녀는 소리를 질으자 양모는 목적을 달치못하고 도주하엿는데 그의일에 김성녀의 시삼촌되는 황철준(黃哲俊)이가 집에 돌아와서 사실을알고 전긔 양재문을 다려다가 동바로 결박하여 방에다가두고 무수 구타하엿슴으로 양재문은 그날부터 병이들어십오일만에 사망되엿슴으로 전긔 양씨의 집에서는 황모에게 구타당한후에 중상되여 죽엇다하여 당지경찰서에 고소를제긔하엿슴으로 당서에서는 홍사법주임이 공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시체를 해부까지 하고 불법감금과 상해치사의죄명으로 지난이십오일 공주검사국에 송치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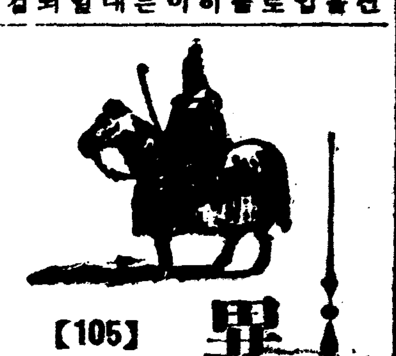
公普校改築費로 金五百圓式寄附

─扶餘三有志의盛擧─

【扶餘】 부여공보교교사가 퇴락하야 비록장마가지면 비가새여 공부를 정지하게되는 형편임으로 아동교육상 막대한 지장이될듯기고 현재교사를 개축하기로하고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의원을 선정하야 맹렬활동하던중 긔보한바어니와 이소식을들은 부여면 정동리(井洞里)김삼현(金三鉉)씨와 동면구아리(舊衙里)우수만(禹壽萬)씨와 장암면석동리(場岩面石東里)임달순(任達淳)씨등 유지들은 각각오백원식 긔성회당국자에게 자진 기증하엿다한다

地方人事

▲竹石鎌太郞氏(京城地方法院水原支廳上席判事)新任人事次本報水原支局來訪



異次頓의死 【105】

李光洙 作 金奎澤 畵

『아이 부끄러워라』
하고 별님은 달님에게 손을끌리면서 두주먹을 세워서 낫을 가리운다。
『이바』
하고 달님은 별님의 희고 부드러운 손을 만져만져하면서、
『이방。어듸 어듸 산ㅅ골작이라도조호니、어듸 바다ㅅ가라도 조호니 다 쓰러저가는 오막사리라도 조호니、그 속에서 몸에누더기를 감고 하로한때 죽만먹어도 조흐니 그 어듸하고 단둘이서 한 열흘이라도 조호니 세상 사람들모양으로 살아보고십허』
하고 몸을 떨며 안까님을 쓴다。
『이몸도』
하고 별님은 고개를 번적 들어서 달님의 빗나는 눈과 상긔된 얼굴을 보며、
『이몸도 아가씨와 이차돈서방님과 내외가 되서서 질겁게사시는 양을 뵈옵고십흔 마음은 간절하오나、그래도 인제는 서방님은 인생의 모든번뇌를 다 떼어버리시고 중생을 건지시라고 도를 닥그시는몸。아가씨도 불ㅅ도에 몸을바치서 닥그시는 몸이시니 이생에서는 부부되시기는 어려우시니。이러케 하로 두번씩 아침예불 때와 저녁 예불 때에 서로 만나뵈옵는것만 깃붐으로 아시게 되시엇스니』
하고 말 끗흘 맺지못한다。
『그도 그러치마는』
하고 달님은 쌍등 잘라서 등 절반쯤까지만 나려온 까만 머리를 끈으로 질근 졸라매면서
『하로 두번 뵈옵는것도 고마운 일이지마는 하로에 열번을 뵈옵더라도 차지아니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나。마음에 생각하는것만도 고맙게 알아야 하겟다、하면서도、하로 두번 뵈옵는것만으로 싱차지아니하여서、삼백예순날 하로 열두시 꼭 그 어른 겻헤 떠나지아니하고 잇서도 차지못할듯한 이 그리움 별님아 이 그리움을 안고 어떠케나 살아가나?』
하고 머리 졸라매던 손을 멈추고 멍거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찰하리 죽어버렷스면。죽어서 혼이 잇스면 마음대로 그 어른 겻헤 따라다니고 만일 죽어서 아모것도 업다면 이러케 애틋하게 그리운 생각을 떠나니 조코。별님아、이몸은 찰하리 죽어버릴까?』
하고 한손으로 쥐엇던 머리를 놋는다。검은 머리가 두 귀와 뺨을 가리운다。
『왜 그런 숭한 생각을 하시오?』
하고 별님은 달님의 등뒤로둘아가 달님의 머리를 아프지안케 곱게 빗겨서 보기조케 느슨하게 비단 헌겁으로 졸라매어주며、
『인제 검스다리(金橋)절 짓는 역사가 다 끗나고 우리도 그 절에 가서 살게 되면 서방님을 더 자조 만나뵈올 길도잇슬것이옵。관세음보살님께서 아가씨 마음을 잘 위로하여들일것을。검스다리ㅅ절도 별서 법당에 개와를 올리고 벽도 거의 되엇다는데。하눌ㅅ것을 어라는 곰목이 한술에 다흔 수풀속에 날라갈듯이 지어노핫다는데。평양 이블락사보다도 더 조케짓는다는데──』
하고는 머리를 졸라맨 끈을 이스발로 조르며、
『아가씨 그런 숭헌 생각 마시오』
하고 제 자리에 돌아와 안는다。
『그러더라도』
하고 달님은 매다가 이저버린 저고리 고름을 매면서、
『이몸은 이러케 타죽고 말라마는 그 어른을 그리워하건 죽도록 그 어른의 마음에는 이 몸의 그림자도 업슬것을 생각하니 설어워』
하고 휘유 한숨을 쉰다。
『왜 그러켓소?』
하고 별님은 이번에는 제 머리를 빗으면서、
『서방님께서 아가씨를 생각하시지아니하시면 누구를 생각하시겟소? 이몸의 생각에는 서방님께서 밤이면 잠을 잘 일우지못하시고 아가씨를 생각하고 겨오실것만 갓소。시방도 아가씨께서 이러케 애타게 그리워하시는 모양으로 아가씨를그리워하실것만 갓소』
하고 별님은 제 속이 타는것은 말도 못하는것이 슬퍼서 나오는 한숨을 머리 졸라매노라고 힘쓰는것에 얼버무려버렷다。

三好化粧料

三好化粧品은 斯界에當當權威!

香、色、質은現代的!

三好化粧品은 硏究와 實驗에 盡力하고 實際에 苦心한 結果로나날이 其實과 質이가장 進步的이오現代的이오實用的인化粧品입니다

그래서 外來品을 壓倒하는結果에잇스니 이것은 남달리 獨特한성질을가진 朝鮮婦人의 皮膚를硏究한는까닭입니다

本社主要製品 (其他五十餘種)
三好クリーム 三好水白粉 三好煉白粉 三好粉白粉 三好化粧水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ポマード
三好固煉白粉 三好ベラーム 三好頰紅 三好コンパクト 三好張粉白粉 コリア石鹼(코리아) 鷄林石鹼 三一石鹼

京城府昭格洞一五九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二七 振替京城一五九五八

000337

タン・セキ(담 기 칠)에 呼吸器散 服用하면 良くなる 樂になる

●感嘆!!感嘆!! 정말頭痛에써조흔 ノーシン(노ー신)이다●

淋疾에……ネオヂリン(네오지린) 먹고첫小便부터안압흐다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はれやか 먹으는氣分天下 장은 氣分 頭腦의藥養劑 ¥0.30 ¥0.5 ¥1.00 ¥2.00

맛나고·자양이되는·음료수

カルピス 카루피스

씩씩하고사랑스러운 꼭두각씨와 꼭가튼 우리집 꼭두각씨! 카루피스 마시고 원기좃케 공부즐겨하는 꼭두각씨!

꼭두각씨에小甁카루피쓰(20錢)컵에가득히一三杯分

販賣所 百貨店·食料品店 製造元 カルピス製造株

優美館 寶銀洞 電光三九五

大都映畵特作現代劇 戰慄陰險!乾坤一擲的大探偵大活劇 吉村操氏監督 お好み串差おでん完結篇 佐久間妙子、伴淳三郎 大岡怪童 大共演

猛進突進!亂飛突擊!骨肉相爭 新進活劇王 大猛演 유社特作全發聲日本版 에드우인마ー린氏大作品 鋪道의銃彈 미리아로바ー1孃助演 感星벼라로고시氏主演

한도의復讐 레이대이라ー氏監督 米國유니버ー살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第一回始映時刻은 午前十一時二十分부터 自二月二十三日至三月六日 興行時刻을左記時間에變更하나이다

成均司成密陽孫公鳳祥氏以宿患今月二十五日下午三時(陰二月初三日申時)於開城府北本町四四一番地自宅別世謹玆告訃

發靷 三月五日(陰二月十二日)午前九時
永訣式場 開城公設運動場
永訣式 三月五日午前十一時
葬地 開豐郡嶺南面照陵里先塋下
下棺 三月五日午後三時

昭和十一年二月二十五日

嗣子 孫 從孫 姪 孫婿 親族總代 友人總代 護喪
秦 秦 李 加 神 金 禹 林 李
洪亨 洪傳 敎世 宗基 藤田實重 晉錫 光寶
駿來 重來 永源 夏枋 貞夫 豐亨 潤根

弊社長 孫鳳祥氏以宿患今月二十五日別世謹玆告訃

昭和十一年二月二十六日

開城府北本町 京城府高金町 合資會社高麗蔘業社 同 京城支店

弊組合長 孫鳳祥氏以宿患今月二十五日別世謹玆告訃

昭和十一年二月二十六日

開城蔘業組合

英國經濟界好況
前途樂觀이나警戒

現下의 世界經濟界를 보아 가장 繁華한것은 米國이나 이와對蹠的으로 極히 興味地味한『復興』을 謳歌하고잇는것이 卽 英國이다。이英國景氣의『前途如何?』英紙『에코노미스트』의 論하는『今年의經濟界展望』은 그基調에잇서서 行外樂觀이지만 그中에 相當히警戒的不安을 含코잇는바 이제그要領을 示하면 如左하다。

×

英國이 金本位를離脫한지 四年有半、所謂復興이라는말이否端에올른지 이미 三年有半이 된다。생각컨대 一九三二年九月부터 翌年九月까지의 一個年은『復興』의 準備期間의 一年이엇다。이期時代에의 一年間에『廉價金』의 惡質的諸傾向에는 一切除去하고 資本市場에잇서서는 對外貸付를 禁하고 如斯하야 金利低落、更히 一九三二年六月의 戰時公債大借換부터는 一層低金利時代를 出現하야 今日에 至하얏다。

商工業에잇서서는 이一年間은 英國의 新經濟政策을 誘致하고 英國產業界에對하야 國內市場의 優越性을 確保케한 一年間이엇다。

此等모든 要因의 合流는 一九三三年 第二期에잇서서 顯著한 復興의 스타-트를하얏다。

如斯하야 一九三三年은 年頭부터 急速한 經濟復興이엇스나 一九三三年 十一月부터 一九三四年 三月까지의間에 英國의 景氣指數(一九二四年을 基準一〇〇으로함)는 九四、五로부터 一〇九에 上昇되엇다。一九三四年 第二四半期及第三四半期間은 모든 景氣指標에 停頓期가왓다。同年十月로부터 一九三五年三月까지는 景氣指數가 一一〇、五의 水準에 釘付되엇고 昨春에 至하야 復興의 波紋은 再次勢를 得하야 指數는 三月의 一〇五、五로부터 十一月의 一一五、五로 躍進되엇다。

如斯하야 一九三六年은 大藏省、諸銀行、株式取引所、其他商工業 全體의 當事者의 確信에 如左한 一課題를 提供하얏스니 卽

英國의 復興은 一般의 豫期와同樣 將來挫折할 運命에잇나 或은 繼續하야 堅實한 上昇을보일것인가

이課題에 對하야 妥當한解答을 與키爲하야서는 今日의 復興에 寄與한 幾多의 諸原因의 重要性을 再檢討할 必要가잇다 第一로 金融인데 低金利가演한 役割이 如何히 大하얏섯나 하는것은 今日에잇서 넘우나 明瞭하다。지금까지의 英國의 復興이라는것은 主로 國內的通貨及信用의 影響에 그基礎를 置한것이라고 보아도 大差업다。

一九三二年十一月以來 英蘭銀行의 金保有高、紙幣流通高及銀行預金은 大激增되엇고 交換所加盟銀行의 預金도 激增되엇스며 現金保有高도 增加하얏다。이結果로서 此等銀行은 一九三一年十一月과 昨年十一月의 間에 四億九百萬磅에達하는 證券을 所有케되고 그外에 九千百萬磅을 割引市場에、三億二千百萬磅은 優等證券市場에의 投資로 向하얏섯다。

第二로 看過치못할것은 世界全體로서의 復興過程이다。米國은 루스벨트政府의 復興政策이 米國의 物價를 吊上하고 延하야 小麥、棉花、鑛物其他商品의 世界市價吊騰을 誘致하얏다。이와同時에 米國株式市價도 吊騰케하얏다。各國의 貿易은 그爲替制限關係와 自由라도 增加傾向을 示하얏스며 各國의 產業은 世界的再軍備 원인이란 原因도잇스나 何如間 그生產을 增加케하게되엇다。

그리고 高關稅、輸入制限及諸協定 制限等의 諸政策이 國際的交易을 妨害하는 事實이나 世界大勢가 國際的交易의 復舊를 復活할수잇는 狀態에 漸次接近하는中임은 明瞭하다。

×

그러면 一九三六年의 英國經濟界는如何?

우리는 英國의『復興』은 消費財의 商工業에 去益依賴하고 若干의 資本財工業의 復興은 若干 緩慢하리라고 觀測코저한다。

資本財의 集積이 一九三三年 乃至三五年間의 比例와 同樣의 比例로 無制限하게 進行되리라고 期待키는 不可能하고 今後若干의 復興이잇다드래도 그것은 英國內의 資本的膨脹에는 限度가잇다。

그리고 現在의모든 指針으로보아 英國의復興은 今後는 그範圍는 擴大되리라고생각하나 그速度에잇서는 比較的緩慢하리라고보고저한다。

右와如히 內外諸情勢가 惡化되지안는한 條件으로한것으로 그脈絡은 同國의 純資源의 待遇할것은 勿論이다。

第一은 世界各地에 戰爭의 危險이 가잇고 또 佛國의 財政上의 難局이 起할것은 勿論이다 第一로 通貨의 安定으로 各國貨가 相當히 不安하다 金輸出이라 通貨安定의 하니오 通貨安定에關한 國際的 協調가 되지안흘때는 一層 陳弊한 通貨戰爭 招來될것은 明白하다 가장 重要한問題는 爲替切下競爭과 招來할 危險性이다。即今年英國의 外國에잇서 重要關心事이다。

要컨대 今年의 英國經濟의 前途는 반드시 悲觀할 必要가업스나 新年의 諸情勢를 同時에 英國의 自身으로 制御할수업는 만흔 危險과不安을 包藏코잇슴도 等閑히 못할수업는터이다。(完)

各取引所休業으로 受渡決濟困難狀態
朝鮮內銀行資金變調

朝鮮內各銀行에서는 期米、證券各取引市場이모다 二十六日來休業하고 잇슴으로 月末受渡關係證券의受取와 諸受渡資金關係에 大支障을 招來하얏스며 特히 證券額는 一切의 決濟杜絕狀態이라한다

米取再開를 總督府希望

取引所의 立會中止는 依然繼續中인데 證券取引은 不得已하나 米穀取引은 米價變動을 招來할原因이업고 이미 當限總解合도 成立되엇슴으로 急히 立會開始가 要望되며 總督府에서도 日本內地市場은 別로하고 獨自的으로 立會케하자는 意向이라하나 二十九日은 月末임으로 新市場의 立會開始될모양이라한다

株式再開至難?
東京에서解合안되어

【大阪電話商通】東京株式取引所는 總取組二百五十六萬株(其中當限七十三萬株)와 短期百十萬株가잇스며 特히 當限은 現株提供三十四萬株의 代金二千百萬圓에對하야 早受三萬四千株(百七十萬圓)을 除하고 約二千萬圓의 早渡手形의 處置가 잘못 困難함으로 如斯한 東京의 事情과相俟하야 大阪도 立會再開可望이 업는모양이라한다

東京手形交換所와 金融市場休會
나쇼낼씨틔ㅣ、香港、上海銀行과 三菱銀行도臨時休業

【東京電話電通】東京手形交換所는 二十八日 臨時休業하엿고 딸해서 금市場도 取引을 臨時休止키로되엇다 그리고 三菱銀行本店 나쇼낼씨틔 香港上海銀行도 休業하엿다고한다

倫敦도續落

【倫敦二十七日發同盟】東京事件의 報道를듯고 二十六日의 倫敦株式市場의 日本公社債는 二〇 [illegible]

米日爲替 反撥出現
廿九弗臺로

【紐育二十七日發電通】東京事件으로 二十六日 二十七仙이 暴落하야 二十九弗臺가 깨어진 米日爲替는 二十八日 午後三時까지 二十八弗九十五仙이 反撥하야 二十八弗九十五仙으로 回復하고 同五時半에는 다시 五仙高의結果 前日보다 十仙高인 二十九弗에 일흐고 그中에는 二十九弗二仙을 唱하는사람도 잇서서 完全히 二十九弗臺를 回復하엿다고

【紐育廿七日發同盟】米日爲替는 前日에比하면 廿九弗 九仙高 買廿八弗九十六仙으로 八仙高

▲東京爲替(廿八日)
對米 賣廿八弗八分七 買廿九弗
對英 賣一志一片八分七 買一志二片

東京市中金價 "十二圓賣唱"
建值決定은못보고

【東京二十八日發同盟】東京의 市中金地金市勢는 賣買가업섯음으로 建値의決定을보지못하엿스나 名目市勢는 一匁十二圓을 唱하고 前日에比하야 七十錢이 暴騰하엿는데 買值는 目下에 十一圓八十錢으로 不變이엇다

京城에서도 發表中止
德力商店에서

京城市中金價는 市勢暴騰으로 實際賣買가 업고 德力에서는 市勢를 正式發表치안코잇다。

米貨公社債續崩
◇…廿七日뉴욕에서

【紐育二十七日發電通】二十六日 東京電으로 二弗乃至三弗가량이 急落하엿든 米貨日本公社債는 二十七日 續落하야 六分半 政府公債는 二分一弗低 五分半은 二弗低에止하고 社債類中에 日本電力은 四弗四分一低 臺灣電力은 三弗低等 全然顯著히 暴落하엿다

【紐育二十七日發同盟】廿七日의 紐育株式市場의 日本公債附屬附市勢는 東京電燈六分八十二弗 大同電力五分半은 八十六弗二分一로 모두 昨日에 不變이며 大同電力七分 九十弗四分一로 二弗低되엇고 四分三이 急落하엿다 그뒤 各公社債에亘하야 賣買가되엇스나 市勢가 低落步調를呈하야 米貨公債六分 九十四弗二分一로 一分一弗低 [illegible]

正金銀行에서 圓貨下落을防止
暗氣配로"노미날"

【東京電話電通】日本內地爲替市場은 二十六日來 暗氣配에 轉하야 市勢는"노미날"化하고 繼續하야 朝來 全氣配混亂하야 唱은 區區이오 不定이엇스며 今後形勢를 注目하기에 至하얏다 正金銀行은 二十六、七兩日에亘하야 繼續하야『악센푸단스레ㅣ트』를 對米二十九弗、對英一志二片으로 據置하고 어듸까지든지 圓貨의 下落을 防止하고저하는 態度를 示하고잇슴으로 暗氣配도 軟調에 推移되는 中이다 更히 市中一般의 唱은 對英米共히 正金레ㅣ트를 完全히 下廻하야 期近物은 對米二十八弗八分의七、賣十六分의五 買 對英一志一片八分의七、賣一志一片十六分의五 [illegible]

【東京二十八日發同盟】二十八日의 爲替市場은 紐育市場의 情報待이오 圓세라"로 對米二十九弗寄에 一方 正金도 二十九弗寄를 報한 [illegible] 米英크로스는(四弗九仙八分의 一 前電比較 八分의 三仙低)로 均衡上 十仙引 正金도 繼續하야 對米廿九弗 對英一志二片으로『악센스푸단스레ㅣ트』의 完全據置를 發表하얏슴으로『레ㅣ트』는"노미날"이며 서도 大勢는 前日과 不變、一時弱氣이던 輸入業者、商社側 一般도 實需仕手와 一巡하야 相俟하야 安定을 恢復코잇다。即 賣唱은 對英米共히 正金레ㅣ트를 下廻하야 對米 近二十八弗八分七賣、九弗買、對英一志一片八分七 一志二片買로 되어잇는 [illegible]

朝銀爲替建値
比前日不變發表

朝銀對外爲替建値는 前日不變이나 對英은 一志一片八分七로 前日보다 八分一의 引下이엇다

【倫敦廿七日發電通】英貨日本公社債는 日本人電의 二十六日 急落하야 그뒤 保持하고 二十七日 寄付時 低落하야 一磅內外가 오르고 五分半利公債만 前日에比하야 거의안떠러지고 만흔 公社債의 步調를 가리키기爲하야 二磅四分一低를 示하엿다

事業五分의 少高外는 四分利一磅乃至二磅二分一이 各各暴落、特히 廿七日 五分利公債는 大阪市電五分과 滿鐵十九回五分利 各一磅이 前日보다 二磅四分一及二磅二分一 低落한것은 注目을끄은다고한다

【倫敦廿七日發同盟】英貨日本公債는 二十六日 砂四分一低를 示하엿는데 二十七日 落調不息으로 日本政府英貨公債는 前日에比하야 二分一乃至一磅低落 五分半利附公債는 一磅低의 八十二磅二分一로 報하엿다 市社債도 東京 [illegible]

▲大阪爲替(廿八日)
對米 買廿八弗八分七 賣廿九弗
對英 賣一志一片八分七 買一志一片十六分十五

英日爲替不變

【倫敦廿七日發電通】廿六日 英日爲替는 一、一片低를 나타내엇든 그대로安定을 保持하고 二十七日도 終日不變의 一志一片卅二分廿九로 保勢이엇다

日印條約改訂
總領事가交涉

【東京電話同盟】明年三月로써 期間이 滿了될 日印通商條約及附屬綿布棉花協定의 更新에對하야는 目下歸任途中에잇는 米澤 콜캇타總領事는 三月同地에 到着하야 심라에서 同國政府間에 豫備交涉을 行할터인데 右結果 印度政府의 意向을 大略察知後 本國政府의 指令을 仰하야 交涉에入키로되엇다 日本側에서는 現行條約及協定이 日本側에 不利하다하야 例하면 綿布輸出制限에對한 棉花百五十萬俵의 印棉輸入의 實情은 年額平均百七十萬俵의 輸入임으로 百五十萬俵의 基準은 無意味하다하고 萬若 綿布輸出制限의 四億碼를 維持하면 棉花輸入數量은 百二十萬俵로 低減하던지 或은 棉花百五十萬俵를 그대로하면 綿布輸出制限을 二千萬碼乃至五千萬碼로 增加할것及 右四億碼의 綿布輸出制限에잇서의 品種別制限에對하야 現行基準四割五分 色物三割四分은 印度의 綿布需給關係와 一致치안흠으로 變更을 必要로하는等 今回의交涉을 機會로 改定키를 要望하고 그結果 右交涉은 相當히 大規模의것임으로 日本側代表로서 大使級의 人物出馬를 政府에要請하고잇스나 政府當局의 方針으로서는 前記대로 米澤總領事로하여금 우선 印度政府의 意向을 探知케하고잇는데 現行條約及協定의 繼續과는 日印兩國政府에 異議업시 問題는 大體그更正交涉에入하야 特히 民間代表等의 參加를 求치안코 米澤總領事를 中心으로 當케하리라한다

朝滿郵便爲替受拂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 一月中의 滿洲國郵便爲替振出金額은 四十八萬七千六百七十九圓이고 滿洲로부터 朝鮮으로 拂出金額은 一百五萬四千百四十四圓이고 差額五十六萬六千四百二十五圓이 一月中에 朝鮮에서 滿洲로 流入한셈이다

朝運會社人事異動

朝鮮運送會社에서는 廿七日附로 人事異動이잇섯는데 그中支店長異動은 다음과갓다 ▲命本社勤務仁川駐在 太田忍 ▲命仁川支店長 高橋貞(鎭南浦支店長) ▲命鎭南浦支店長 安永官一(釜山支店助役) ▲命海州出張所長兼東海州營業所主任 [illegible] ▲命元山支店助役 吉山守次(海州出張所長) ▲命大同江營業所主任 增井榮治(平壤支店助役兼大同江營業所主任) ▲命大同江營業所主任兼 日鎭善(平壤支店)

產業調查會設置
準備協議會開催

朝鮮產業經濟調查會 準備委員會 第一回會合은 二十八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殖產、農林、財務、鐵道、遞信等五局의 局課長等 三十五名이 出席하야 今井政務總監 主宰로 開催되어 調查會設置의 準備狀況을 報告하엿다

總督府豫算前途
新規豫算은容認難?

不意의 事件으로 政局의 明日을 判定키 極難한 今日에 財界와 一般經濟界의 今後도 豫測키어려운것은 勿論이나 爲先은 後繼內閣의 成立如何가 가장注目할것인데 朝鮮方面으로보아도 日本內地의 經濟界가 安定되지 안는以上 一般的으로 不安한 氣色이 떠돌고잇슴은 勿論일것이다 當地의 問題로는 市場의 休會된것等밧게업스나 問題는 今後 直接影響이잇슬것은 後內閣과 議會關係로 朝鮮豫算이 어떠한 運命에 서게될것이냐 하는것이 크게 注目을 끈다 總選舉의 後 民政黨의 大勝으로 現內閣의 政策이 延長、强化되리라고 보는同時에 朝鮮豫算도 新規事業은 追加豫算으로 大概無難成立될것으로 보고잇섯다 그런데 今日의 難局으로보면 後繼內閣은『擧國一致』下의 特殊味를가진 强力內閣이 出現되리라는것이 一般的 觀測이다 그러케되다면 後繼內閣의 政策도 變함이 만흘것이로 臨時議會의 豫算審議도 一般豫算은 文字그대로 前年度踏襲의 程度에 끄치게 되리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그結果에 이른다면 朝鮮豫算 三億一千餘萬圓中 新規事業額의 三千萬圓은 太半考慮의 餘地가 업서질것은 勿論 前年度의 二億九千萬圓程度에 끄친다면 一般事業界는 影響이 적지안흘것으로 觀測되고잇다

株式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財界方面의歸趨
形勢를靜觀
大藏省과特銀에서 ◇…首腦者會見協議結果

【京城電話商通】津島大藏次官은 二十六日夕刻 赤阪의 藏相官邸에서 深井日銀總裁、兒玉正金銀行頭取等과 會見하고 金融界의 情勢를 聽取한後 同行의 對策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日本內地東西市場의 例에 鑑하야 二十七日中의 模樣을 注視하기로되엇다 다음 爲替管理法에 依하야 資本逃避의 憂慮도업고 動搖하는일도 업스리라는 意見이 一致되어 午後九時 散會하엿다

[illegible] 此際에 急히 對策을 決[illegible]가 업다는 意見을가 [illegible] 情에 依한것이나만 今回의 原因으로서도 財界安定의 方途이라 爲先 見送할 態度를 取[illegible] 가지고 [illegible]

金融對策 講究不要
深井日銀總裁談

【東京電話電通】各地支店으로부터 報告도잇스나 大體全國으로 金融界는 平靜되어 平常과 變함이업고 現狀은 何等金融界의 [illegible]

憂慮될事態는업스며 日銀貸出은 前日一億五六千萬圓의 增加를 示하고 今日도 開店同時에 一時에 前日同樣으로 繼續資金을 借하려오는者가 마치는데 이것은 前日 地方支店으로부터 資金의 準備를 希望한것으로 日銀信用을 求한것이며 決코 事態를 憂慮한때문이아니다 딸허서 二、三日만 지나면 곳 還元될性質의 資金이다 一般이 中央、地方을 通하야 金融界에 異常은 認定되지안흠으로 念慮할必要가업스며 金融對策은 講究할必要를 認定치 안는다 一方 爲替의 暴落을 豫想하는사람도잇스나 爲替管理로 充分히 投機取引은 取締되고잇스며 正金도 安定되야 實需關係에는 一志二片으로 依然取引하고잇다 그實需側도 限이잇슴으로 今後動向을 憂慮할 必要는업슬것갓다

日銀券急膨脹!
十五億圓臺를突破
銀行準備擴張으로

【東京電話電通】民間銀行의 手許準備充實로 二十六日의 日銀貸出은 一億六千餘萬圓의 激增을보엇는데 二十七日도 繼續하야 東京本店、大阪支店을 合하야 合計一億八千餘萬圓의 急增을 示하고 이때문에 兌換券은 드디어 十億臺를 보인 모양이다 이中 約八千萬圓은 그대로 日銀에 民間預金으로 預入되어잇기때문에 預金도 三億臺에 끄첫는데 이結果 兌換券發行高는 約一億을 膨脹하야 一 [illegible] 하게되엇다

爲替管理로 投機取締
兒玉正金頭取談

【東京電話同盟】이번의 事件에 依하야 圓爲替의 將來推移如何는 자못注目되고잇는바 只今까지 正金對米二十九弗、對英은 一志二片으로 各各 應應되고잇슴으로 二十七日午後의『마ㅣ케트』는 對米廿八弗八分七 今月賣同十六分十五買、來月二十八弗十六分十三賣、同八分七賣、對英은 一志一片十六分十五買 同三十二分三十一買로 氣配는 弱含이나마 二十七日의 外國入電이 一擧二分五厘暴落되엇슴에、不拘코 事件前의 二十五日의 對米市勢는 二十九弗八分一賣에 對하야 二포인트의 低落에 止하고 對英에잇서는 一포인트를 보이고잇는 程度로 底意는 意外로 强硬을 示하고잇다 이것은 爲替管理法의 出動과 正金의 爲替統制의 結果인데 [illegible] 七日午後 正金頭取는 爲替에 關한 正金의 [illegible] 正金을 信賴하야 말하고잇다。

朝取證券部
二十九日까지休止
長期乘替付價

朝鮮取引所證券部에서는 二十八日午前九時부터 三十分間에亘하야 商議員會를 開催하고 廿八日以降의 立會問題와 長期當限受渡問題에對하야 協議한結果 日本內地東西市場의 例에鑑하야 二十九日까지 臨時休會하기로 決定하고 長期當限은 二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 前場寄附一本値로 立會하야 右寄附價로 決定하고 長期取引은 豫定대로 十一時부터 立會한結果 左記五銘柄四千七百四十株를 如左値로 先限에 乘替하얏다

朝取	七三圓〇〇	(二〇〇株)
同新	二九、五〇	(三〇五〇株)
大新	九三、〇〇	(一〇〇株)
日產	七五、〇〇	(二〇〇株)
京東新	二一、〇〇	([illegible])

東株當限
廿九日受渡?

【東京電話電通】東株一般取引所員組合에서는 二十八日 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 委員會를 開하고 二十八日이 受渡期限인 當限受渡問題에對하야 協議하얏는데 手形交換所가 休業하고잇슴으로 一日을 延期하야 二十九日 行키로되엇다。

大株短期는 增證徵收
當限强制乘替

【大阪電話商通】大株委員會는 二十九日正午까지에 [illegible] 圓、大株同新、日產、日鐵、鐘紡 [illegible] 各五圓、同新各五圓、經新八圓의 增證據金을 徵收키로하고 또 長期一月限은 棒價(二十五日의 後引)를 만드러 强制的으로 四月限에 乘替키로 決定하얏는데 增證據金이 納入될與否는 疑問이나 第一段의 措置로서 決定된것이다。

日獨經濟提携說所傳
▲英國市場側에

【倫敦二十六日發同盟】씨티ㅣ側의 消息에依하면 目下 암스텔담에서 日獨兩國代表가 會合하야 北中國及蒙古方面의 經濟締結案에對하야 交涉中이라고 傳한다 兩國代表는 鐵道投資其他에 對하야 [illegible]

商工會議所員이
京南一帶를視察

【京南】都市는 資本經濟의 發祥地요 高度의 人口密度를 가진 等으로 區分되는터인데 今番 編入되는 京南一帶를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지난 三十日 調查委員七名이 踏查하고갓다 이는 來四月二十日頃 京城에서 開催되는 朝鮮都市問題에 提案할 商工會議員增加問題와 將來 商業區로서의 繁昌策을 論하고저 이곳을 視察한것이라한다

鰮粕依然三菱獨占
一部直賣□錢引下
期間短縮、最低買收價格設定等
殖產局原案內容

鰮粕協定은 아직 未解決로 二十八日午前은 休會하고 午後부터 再開될모양인데 午前中 總督府殖產局과 三菱의 木本 大久保氏間에 懇談한結果 左와如한 當局의 原案이 作成되엿다한다

一、一部直賣를 認할것(但、三菱獨占原則不變)
二、手數料의引下
三、期間의 短縮(二、三年程度)
四、最低買收價格의 設定
五、『리슈밀』도 統制圈內에넉흘것

當局에서도 前記原案을 提示하야 二十八日午後 生產者와의 協議를 繼續하리라는데 그前途는 자못 注目된다고한다

魚油定量入札

二月分 魚油定量入札은 受託數量 二十八萬八千罐 入札數量 十七萬三千罐을 合同油脂에 三圓六十七錢으로 落札되엿다 右價格은 이前의 新高價에 比하야 三錢高이며 魚油市況은 더욱 硬勢를 繼續하엿다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朝鮮取引所 株式 期米 柳來恒商店 仁川府本町 電話 [illegible]

取引停止

(二月廿四日) 京城府本町二丁目九〇番地洋雜商 小林良一 ▲京城府南大門市場內雜貨商 金光洙 (廿五日) 京城府元町二丁目金物商 池田德平

內地燒麥 白麥 精白米 塞麥糯米 玄米 中粉米 白、赤胡麻、粟 產地直輸入商 (東) 合資會社東一精米所 代表社員尹貞浩 釜山大倉町四丁目廿五番地 電話一九九〇番

經濟界消息

○金剛山電氣第三發電所九月竣工 金剛山電氣의 中臺里第三發電所發電工事는 豫定대로 進行되야 九月에는 竣工發電키로되바 同發電所는 發力二千六百킬로 그中三分二는 自家用에 消費하고 殘餘의 三分一은 京城電氣에 賣電키로되얏다

○十八銀行의 朝鮮內支店營業은 二十八日 殖銀에 引繼ㅣ 十八銀行 二十九日 現在로서 繼續하야 三月二日로부터 殖銀의 일홈으로 營業을 시작키로되바 十八銀行關係의 切手는 十九日發行 三月二日交換의것까지 認하고 三月一日以後 發行 三月三日以後 交換의것은 認지안키로되엇다고

期米 仁川 吉村取引店 福

大阪三品市場休會

大阪綿絲、綿花、人絹三市場은 當限受渡로 二十八日前後場 共히 休會이다

橫濱生絲當限解會

當限寄付七百圓의값을 本付하고 當限總解合價로서 成立하얏다

東京綿絲人絹休止

【東京電通電話】東京杉森 綿絲 人絹市場은 二十九日立會休止키로 決定하얏다

仁川正米弱含

【仁川】期米休會에 氣配混沌狀態이면서 買聲三二、三十錢低價를 唱하고잇다 產地의 態度는 依然强硬하다

金銀白金賣買 大陸商會 京城府鐘路 [illegible]

東京期米休會
二十九日까지

【東京電話商通】東京期米는 二十八、九日兩日 共히 立會休會키로 決定하얏다

堂島期米休會

【大阪電話商通】大阪米取는 東京同樣 二十八日도 休會繼行키로 決定하얏다

仁川期米休會
三月二日再開

仁川期米市場도 二十八日은 休會이고 二十九日도 東京大阪에 追從 [illegible]

釜山正米反落

【釜山】換金的賣物二千五百 [illegible] 程度이엇는데 各地期米市場의 休會와 不安人氣를稱하야 全般的으로 傍觀人氣이고 產地側의 小口物色買가 散見될뿐으로 市勢는 休日前보다 卄五錢程度의 反落을 告하엿는데 角ㇷ三等卄八圓六十錢 四等卄八圓卅錢 一等白米十二圓十二錢

朝米取株 光山 康益夏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 代表電話本局②一五一八六番

痔에는 오세로 オセロ 痔疾藥 全國各藥店에잇소 ¥0.30 ¥0.50

이마쓸저마을 잘팝이다 はれやか ¥0.30 ¥0.50 ¥1.00

劇藝術研究會 第九回公演 二月廿八日부터四日間 晝一時夜七時(晝夜二回公演) (東洋劇場) 勝者와敗者 入場料 [illegible]

相場

◆金融 廿七日 [illegible]
◆海外爲替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塊入價 [illegible]
◆京城正米 廿七日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場 廿七日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棉紗市場 [illegible]
◆紐育綿 [illegible]
◆株 [illegible]
◆神戶船舶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期米 廿八日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正米 [illegible]
商品 廿八日 ◆大阪砂糖 [illegible]
◆濱外砂糖 [illegible]